

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 1
국어

1학기·전과정

비상

강호영

내신에 남기를 도와 주는 100발100중!



소통으로 커지는 세상

01. 방문객_정현중

기출 심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④

- 01 ‘-다’라는 서술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월적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화자는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을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사람이 자연보다도 타인에게 무관심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자신의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내면에 공감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으나, 그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 03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는’, ‘그의 과거’, ‘그의 미래’ 등에서 지시어 ‘그’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그’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②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에서 문장 부호인 줄표(—)를 사용하여 시구의 의미를 부연하고 있다. ③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자연물인 바람을 의인화하고 있다.

- 04 ‘~오기 때문이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후렴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⑤ 특정 음보의 반복이나 글자 수의 배치 등 정형적인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로 문장들을 끝맺어 어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어조의 일관성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 05 ‘바람’은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태도를 나타낸다. 즉,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마음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이 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타인과의 만남이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②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그 사람의 한 평생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실은’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를, ‘필경’은 ‘환대가 될 것이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이를 통해 타인과의 만남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한다. ⑤ ‘환대’는 타인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06 화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오는 타인을 귀한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만남이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과 세계를 마주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방문객’이라는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환대를 하는 것은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한 자세라는 인식 때문이다. ③ 타인과의 만남에서 타인과 자신을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설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한 사람의 일생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남이란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타인의 삶 속에 자신이 손님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⑤ 타인을 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 07 ⑦에서는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다고 하여, 자연물을 사람에 비유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①에도 ‘눈’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자연물인 ‘눈’을 사람에 비유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에 겹으로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더 깊은 진실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나는 아직 기울고 있을 데요 찬란한 슬픔의 봄’에 역설법(‘찬란한 슬픔의 봄’)과 문장 성분의 순서를 뒤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④ ‘~ 이름이여’를 반복하는 반복법과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⑤ ‘내 마음은 호수요’에 원관념인 ‘내 마음’을 보조 관념인 ‘호수’에 비유한 은유법이, ‘옥같이’에 화자를 ‘옥’에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08 ‘바람’은 시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위로하는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②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 이유는 만남이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만나게 될 타인은 상처를 받아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⑤ ‘바람’을 흉내 내어 환대하는 것이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 09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 등에서 행간 걸침을 통해 시행에 담긴 의미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자연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 ④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⑤ 표면에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

- 10 마음을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지기’를 반복하여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 현재, 미래를 열거한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오기 때문이다’를 반복하여 타인과의 만남이 지나는 소중한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양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④ ‘바람’을 의인화하여 상처 입은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만남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지,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11 화자는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고, 이는 곧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서지기 쉬운, 그래

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의 마음이 오는 것(ㄷ)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ㄹ. '나'의 마음이 바람을 흉내 낸다는 것은 부서지기도 했을 '그'의 마음을 바람처럼 더듬어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사람이 오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니다.

- 12** 화자는 사람이 오는 것을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고 하여 타인과의 만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화자는 타인과 만날 때 '환대'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은 타인과의 만남에서 ㉠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은 타인과의 만남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자가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은 타인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나타낸 것이지, 바람을 맞이하는 자세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 ㉤에 타인의 인생에 대한 경의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에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도 담겨 있지 않다. ㉦ 화자는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 13** 이 글의 화자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한 것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화자 모두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이 글의 화자는 타인과의 만남을 그의 일생이 오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타인의 삶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화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의 '바람'은 의인화된 대상이지만, <보기>의 '섬'은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다. ㉢ 이 글에 '사람'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 또한 화자가 '사람들'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 이 글과 <보기> 모두 연 구분이 없지만, 산문적 진술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Plus <보기> 섬_정현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희망적
주제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해제	상징적 시어와 극도의 짧은 시행으로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함.

- 14** 이 글은 사람과의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주로 온라인에서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가볍게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친구에게 사람과의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 일깨워 줘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사람을 사귄 때는 그 사람의 과거까지 모두 알고 사귀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자연물인 바람처럼 사람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5** '마음이 오는 것'은 사람이 온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타인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람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보기>에서 이 글은 사람과의 만남을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오는 타인을 귀한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목이 '방문객'인 이유는 타인을 귀한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하고 있듯 작가가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하고 있듯 만남은 한 사람의 일생과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필경 환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하고 있듯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환대라는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⑤	10 ②	11 ④	12 ③

▶ (나) 스노볼 드라이브_조예은

갈래	공상 과학 소설
성격	서사적, 극적
주제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
해제	'방부제 눈'이 내리는 재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 양상을 그려 냄.

- 01** (가)는 작품 속 화자가 '나'로 등장하지만 현실 상황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나)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내부에 있는 인물로, 자신이 사는 도시인 백영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가짜 폭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나)는 '눈과 유사한 정체 불명의 하얀 결정체'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짜 눈이 내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가)와 (나) 모두 과거 화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가)와 (나) 모두 현실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02** 사람을 만날 때 ㉠이 오프로 화자는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한 것으로, 사람과의 만남은 그의 평생을 만나는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화자는 사람과 만날 때 ㉠이 온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환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은 사람들의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외출을 제한하다 보니 외로움과 답답함 등을 느끼게 된다. ㉤ ㉤은 정체 불명의 물질로,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치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을 통해 사람과의 만남은 그의 한평생을 만나는 것임을 나타내므로 ㉠은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한 이유로 볼 수 있고, ㉢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걸 꺼리게 되므로 ㉠으로 인해 사람들은 교류하지 못하게 된다.

- 03**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람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위로하는 것임을 형상화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상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사람이 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여 만남의 소중함을 환기하고 있다. ㉡ 과거, 현재, 미래를 뒤흔들며 제시하여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과 같이 쉽게 상처받는 마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시어를 반복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내 마음'이 바람을 흉내 낸다는 것은 바람처럼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태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 것이다.

- 04** <보기>에서 (가)는 환대보다 환멸이 앞서는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을 노래한다고 하였다. 마음이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

을’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환대와 환멸이 혼재된 현실의 문제 상황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가)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사람이 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시인은 현실의 문제 상황을 포착하여 성찰적 인식을 통해 시적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는 표현은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이므로 이는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시적 진실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시인은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시적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바람을 흉내’ 내면 ‘환대가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환대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이므로, 이는 시인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시인은 삶에 대한 개성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방문객’이라는 제목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는 타인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단순히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으로 여기지 않는 시인의 개성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 05 ‘하얀 결정체’를 치우기 위해 방역 회사와 정비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도왔으나 피해는 더디게 복구되었다고 했으므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난 12일, 정체 불명의 하얀 결정체가 떨어졌으며, 백영시가 가장 피해가 심했다고 하였다. ② ‘다치거나 실종이 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하여 하얀 결정체로 인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굴어 죽는 사람들,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망해서 죽는 사람들’ 등 하얀 결정체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몇 개월의 복구 작업을 비롯이라도 하듯 또다시 하얀 결정체가 눈과 함께 섞여 내렸고, 이에 ‘끝없이 치우는 이들이 있었고 치우길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 06 <보기>에 따르면 작가 맥락은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가)를 읽었다면 이는 작가 맥락이 아니라 문학적 맥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독자 맥락은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등과 연관된 것이다. 친구 사귀는 것을 쉽게 여겼던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가)를 이해했다면 독자 맥락이 작용한 것이다. ②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 등과 연관된 것이다. 사람들의 만남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세태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했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한 것이다. ④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 등과 연관된 것이다. 지구의 환경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적 상황과 관련지어 (나)를 이해했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한 것이다. ⑤ 문학적 맥락은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문학적 경향 등이 연관된 것이다. 생명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 문학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했다면 문학적 맥락이 작용한 것이다.

▶ (나) 꽃_김춘수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념적, 철학적
주제	존재의 본질 탐구와 진실한 관계에 대한 소망
해제	자연물인 ‘꽃’을 활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명명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노래함.

- 07 (가)는 ‘~ 오기 때문이다.’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의 이름을 불러 ~’, ‘~이 되고 싶다.’ 등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 모두 시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바람’, (나)는 ‘꽃’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현상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 08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나타낸 것이지, 자신이 타인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사람이 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며, 그 이유를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타인과의 만남을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만남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마음이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바람’은 타인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이해하는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를 흉내 낸다는 것은 화자가 그러한 ‘바람’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09 화자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흉내 내어 조심스럽게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일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는 타인과의 만남을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이 온다는 것을 그의 일생이 오는 것으로 여기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④ 화자는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다고 하며 바람을 흉내 내면 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10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보기>에서 뒤샹은 의미 없는 ‘기성품’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술품의 경지에 올려놓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대량으로 생산된 기성품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대상이다. ③ 예술품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대상이 가치를 지니게 된 결과를 의미한다. ④ 전통적인 미술가에게 <샘>은 예술품이 될 수 없다. ⑤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술가의 역할로, 이들에게 <샘>은 의미 있는 대상이 아니다.

- 11 [D]의 ‘눈짓’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몸짓’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의 상태이므로, 의미 없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②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달라고 했으므로, 이들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로 볼 수 있다. ⑤ 의미 없는 존재인 ‘몸짓’에 지나지 않던 화자는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고 ‘눈짓’이 되고 싶다고 했으므로, 화자인 ‘나’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보기>에서 <꽃>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명명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서로를 인식한 다음 인식 대상을 명명하는 것이므로, 서로를 인식하기 위해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방문객>은 타인과의 만남의 소중함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방문객>은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은 환대하는 것이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꽃>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명명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다고 하였다. ‘꽃’은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으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꽃’이 된 것이므로, 인식 이후에 명명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바람’은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존재이다. 이러한 바람을 흉내 낸다는 것은 바람과 같은 태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대상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1 ㉠: 미래, ㉡: 일생, ㉢: 마음 02 ㉢: 반복법, ㉤: 의인법 03 [A]는 행간 걸침을 통해 독자에게 대상의 일생을 떠올리게 한다. 04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존재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05 바람을 흉내 낸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바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환대’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1 화자는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고, 이는 곧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의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 02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에서는 ‘부서지기’를 반복하여 마음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에서는 사람이 아닌 ‘바람’을 사람에 빗대어 상대를 살피고 위로하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03 [A]에는 행간 걸침의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가 대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즉 그의 일생에 대해 떠올리게 하고 있다.
- 04 ‘바람’은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 05 화자는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람과 같은 자세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환대’라는 시어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1 ‘방문객’은 화자를 찾아오는 타인을 의미한다.
- 05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에 추측의 표현이 쓰였으나, 이는 환대를 바람직한 자세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 11 화자는 ‘바람’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여기며 ‘바람을 흉내 낸다면 /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에서 바람을 흉내 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20 제목을 ‘방문객’이라고 한 것은, 타인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단순히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01. 수라 백석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01 종결 어미 ‘-다’가 반복되고 있으나, 어조는 변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나다’ 등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밖으로 버려진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이것의 엄마와 누나 나 형’ 등에서 거미를 의인화하여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사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 02 사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황과 정서가 점차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거미들을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와 거미를 버리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교차하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③ 1연에서는 ‘거미 새끼’가 오자 이를 화자가 문밖으로 버리고, 2연에서는 ‘큰 거미’가 오자 화자는 ‘거미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큰 거미’를 다시 문밖으로 버리고, 3연에서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오자 거미 가족이 만나기를 바라며 이를 다시 문밖으로 버린다. ④ ‘거미 새끼’나 ‘큰 거미’와 달리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좁쌀알만 한 일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으로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⑤ 거미들을 문밖으로 버리면서 화자의 정서를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메이는 듯하다’, ‘슬퍼한다’로 표현하여 거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정서를 변주하여 드러내고 있다.
- 03 ‘-다’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화자는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제 깨인 듯한 발’에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대상의 움직임을 흉내 내는 의태어나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04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게 ‘손을 내어미’는 것은 새끼 거미를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태도로,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아모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차디찬 밤’에 ‘문밖으로 쓸어 버린’ 것은 거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 그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곳’으로 온 ‘큰 거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은 자신이 거미를 버려서 거미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느낀 화자의 자책감으로 볼 수 있다. ③ ‘큰 거미 없어진 곳’에 와서 ‘아들’거리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보며 화자의 ‘가슴이 메이는 듯’한 것은 거미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된 상황을 보며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화자의 정서로 볼 수 있다. ⑤ ‘이 작은 것’을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밖’에 버리는 것은 문밖으로 버려진 다른 거미 가족과 새끼 거미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 05 1연에서 화자가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버림으로써 ‘거미 새끼’와 ‘큰 거미’가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것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1연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3연에서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지만 거미 가족의 재회를 낙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1연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릴 때 화자는 거미 가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④ 1연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릴 때 화자는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무심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화자가 주변 사물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⑤ 1연에서 화자가 거미를 문밖으로 버림으로써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것이므로 거미 가족이 겪는 시련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연에서 ㉠이 거미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 06**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의 제목인 '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로, 이 글이 창작된 1930년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제의 가혹한 수탈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수라'가 불교 용어라고는 했지만, 작가가 일제의 지배로 인한 고통을 불교적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보기>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수탈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고 했으므로, 생존을 위해 일제로부터 도피했던 우리 민족의 무기력함에 대해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③ <보기>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제목이 이러한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보기>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수라'에도 이러한 의미는 함축되어 있지 않다.

- 07** 화자는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먼저 버린 '거미 새끼'와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아린 가슴'은 '새끼 거미'와 '큰 거미'의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추측에서 비롯된 정서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방바닥'은 '거미 새끼'가 내려온 공간으로 화자가 이곳에서 거미를 발견하고 문밖으로 버리므로, 이는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차디찬 밤'은 '거미 새끼'가 문밖으로 버려진 시간적 배경이므로, 이는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좁쌀알만 한 일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의 외양을 묘사한 것으로, 이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의 연약한 모습을 부각하는 외형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⑤ '보드러운 종이'는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조심스럽게 받아 내는 도구로, 이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 대한 화자의 배려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08**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받는 행위는 공동체적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체적 친근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하였다. '차디찬 밤'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백석의 시는 평안도 사투리와 사라져 가는 옛것을 소재로 한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니젠가', '가제' 등은 평안도 방언으로, 이를 통해 작가의 향토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적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화자가 거미 가족이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은, 공동체적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이 글은 일제의 착취와 억압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인 삶을 산 민중의 아픔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거미 가족이 외부 요인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모습은 일제의 착취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었던 당시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9** 화자인 '나'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거미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1연에서 3연으로 이

어질수록 연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④ 화자가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에는 거미에 무심했다가 점차 거미를 불쌍하게 여기며 슬퍼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10** 2연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온 '큰 거미'를 보며 '거미 새끼'를 무심히 문밖으로 버린 자신의 행위 때문에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화자는 '거미 새끼'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버렸으므로, '거미 새끼'를 버리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은 아니다. ② 1연에서 '거미 새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나 2연에서 '큰 거미'를 보며 가슴이 찢릿하므로, 이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③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보며 가슴이 에이는 듯하다고 하여 거미 가족이 헤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나, 새끼 거미를 잃어버린 '큰 거미'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먼저 버려진 거미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11** 화자는 가족과 헤어진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②에서 화자는 여승을 보며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높았으며 서러워하고 있는데, 이는 여승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대상이다. ③ 화자는 의원을 보며 먼 옛적 신선 같다고 여기며 호감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갈매나무가 눈 내리는 속에서도 굳고 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화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 12** '차디찬 밤'에 시간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표현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니젠가', '가제' 등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문밖으로 버리며',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와 같이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③ '방바닥', '문밖', '차디찬 밤' 등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찢릿한다', '서러워한다', '슬퍼한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13** 1연의 '거미 새끼'를 '쓸어 버린' '문밖'은 거미 가족이 헤어져 고통을 겪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3연의 '이 작은 것'을 버린 '문밖'은 거미 가족이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문밖'의 문맥적 의미가 다르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차디찬 밤'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므로, '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름'의 의미로도 쓰인 것이다. ③ 1연의 '거미 새끼'와 3연의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 ④ 2연의 '어니젠가'와 3연의 '가제'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은 맞지만, 작가가 특정 지역의 언어를 우월하게 인식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⑤ 3연의 '달어나', '보드러운'이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인 것은 맞지만, 작가가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 14** 가슴이 찢릿한 것은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내다 버린 행위 때문에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가족들과 헤어졌다는 것은 알 수 없으므로, 화자의 감정을 '큰 거미'에 투영하여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슴이 메이는 듯한 것은 가족들과 헤어진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큰 거미'가 없어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④ 서러움을 느끼는 것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 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도망치는 새끼 거미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슬퍼하는 것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렸지만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낀 감정으로,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15**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라고 했으므로, 새끼 거미에게 가라고 큰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내고 서글픈 심정이 가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작은 새끼 거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글픈 감정이 가시기도 전에 아주 작은 새끼 거미가 나타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쏘아 버렸다고 했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② ‘새끼 거미 쏘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온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찢긴다’라고 했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④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여나 버렸다고 했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032~035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②
09 ⑤	10 ①	11 ③	12 ④

▶ (나) 까치밥_송수권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향토적, 서정적
주제	까치밥을 통해 환기하는 배려와 인정의 가치
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삶의 시련을 헤쳐나가기 위해 남겨 두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교훈적으로 전달함.

- 01** (가)는 ‘거미’를 쏘아 버리는 경험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바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가 거미와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도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과거 회상이 드러나지만, (가)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 ‘차디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절적 배경은 알 수 없으며, 이는 거미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는 것이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는 ‘겨울 하늘’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에서 화자가 자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 또한 (나)에는 ‘까치밥(감)’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지는 않다.

- 02** 거미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처음에 무심함에서 차츰 서러움, 걱정, 슬픔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대상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거미는 계속 ‘문밖’으로 내보내지지만 그곳은 거미 가족이 재회할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인 거미를 사람에 빗대어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②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나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1연에서 3연으로 이어질수록 시행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 전개 과정에서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03** 화자를 ‘무서’워하며 ‘달여나 버리’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화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으로, 화자를 원망하는 태

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처음에 ‘아모 생각 없이’ 거미를 ‘쏘아 버리는데 이는 마물의 생명에 무심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작은 생명체를 보살겼다는 존재로 여기며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다. ② 거미를 내보낸 문밖의 상황은 ‘차디찬 밤’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차갑다는 촉각적 심상과 밤이라는 어둠의 속성을 통해 거미 가족이 처해 있는 비극적 상황이 더욱 부각된다. ④ 화자는 문밖에 버려진 거미들에 대해 ‘찌릿’하고 ‘서러워’하고 ‘가슴이 메이는 듯하며 ‘슬퍼’하는데, 이는 서로 헤어져 있는 거미 가족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느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⑤ 화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자신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미 가족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머나먼 길’은 ‘아이들’에게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작가의 확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힘든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서울에서 온 조카아이들은 까치밥을 따는데 이는 까치밥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까치밥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고향’과 이러한 문화가 남아 있지 않은 ‘서울’이 대비되고 있다. ② <보기>에서 작가는 도시 문명으로 인해 사라지고 잊혀 가는 우리의 고향과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조카아이들이 까치밥을 따려는 것을 통해 잊혀 가는 소중한 전통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보기>에서 힘든 삶을 견뎌 온 서민의 삶에 공감했다고 했는데, 사랑방 말쿠지에 잠신 몇 죽 걸어 놓고 무덤 속을 걸어가는 ‘할아버지’와 그 잠신 짊어지고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은 ‘아버지’는 힘든 삶을 견뎌 온 서민들의 삶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잠신’은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 05** ㉠의 ‘보드러운 종이’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배려의 마음이, ㉡의 ‘까치밥 몇 개’에는 겨울철 먹을 것이 떨어져 배고파할 ‘날짐승’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모두 수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은 미물인 거미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마물에 대한 용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은 마물인 ‘날짐승’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날짐승’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은 이상에 대한 동경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나)는 ㉡을 따르는 ‘서울 조카아이들’에 대한 만류를 통해 인정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과 관련이 없다. 한편 ㉡은 ‘날짐승’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06** (나)의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에서 ‘길’을 작가의 고된 삶이 반영된 ‘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1연에서 ‘문밖’은 집 안과 대비되는 외부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공간으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3연의 ‘문밖’은 1연의 ‘문밖’과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이지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1연의 ‘문밖’과 달리 3연의 ‘문밖’은 가족 공동체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 담긴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남도의 빈 겨울 하늘’은 까치밥이 남아 있지 않은 공간으로, 이는 화자가 지키려는 가치관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가야 할 머나먼 길’에서의 ‘길’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삶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제적으로 체득한 ‘길’로 볼 수 있다.

▶ (나) 신의 방_김선우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묘사적, 사색적
주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 통시

제주도의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를 생명의 관점에서 묘사하며 해석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태적 삶의 소중함, 생명 존중 등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아냄.

- 07 (가)에서 화자는 '나는 ~다'와 같은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다지요', '~네요' 등과 같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공감각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차디찬 밤'도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나)에도 공감각적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고, 계절적 배경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나라의 높은 분이 ~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에 비편적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으며 아들과 대립하고 있지 않다. (나)의 화자 역시 '통시'와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다. ⑤ (가)에는 거미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인 거미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화자의 행위가 드러나 있지 않다.

- 08 화자의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움을 느낀 것은 '거미 새끼'가 '쓸려 나간 곳'으로 '큰 거미'가 온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 때문에 아들이 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심적 고통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방바닥'은 화자가 거미 새끼를 감지한 공간이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공간이지만, 화자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은 아니다. 화자의 상실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큰 거미가 없어진 곳'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게 화자가 도움을 주려는 공간은 맞지만, 거미 가족이 이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은 아니다. ⑤ '문밖'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거미들의 만남 실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 09 ㉠은 화자가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내다 버리는 공간으로, 이는 자연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은 인간의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되어 돼지의 먹이가 되고, 돼지의 배설물이 다시 밭의 거름이 되는 등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이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중시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모두 세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② ㉠은 화자가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내다 버리는 공간이므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편 ㉡은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생명에 대한 화자의 경외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가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내다 버리는 공간으로, 화자의 인간 중심적 사고가 드러난다. 하지만 ㉠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④ ㉣은 화자가 거미를 버리는 공간이므로, 거미와 분리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다.

- 10 (가)와 (나)에는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정시의 음악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수라'라는 제목은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비유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신의 방'이라는 제목은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의 통시라는 공간에 대한 비유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는 화자가 거미를 문밖으로 내다 버리는 상황을 통해 가족의 해체라는 현실 세계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는 통시라는 특정 지역의 생활 양식이 사라진 것을 제시하여 현실 세계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는 거미를 문밖으로 내다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연쇄적으로 드러나는 시적 구조로 이루어져 이야기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나)는 행의 구분 없이 줄글의 형태로 시

상을 전개하고 있어 산문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와 거미는 합일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와의 합일이라는 서정시의 일반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공동체와 자연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정시가 지닌 압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 11 ㉠의 '두려운 때문'은 '잔 것들의 온기'가 쓸모없어지는 것, 더럽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두려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은 '통시'라는 거처가 돼지를 기르는 공간이 아닌, 사람과 돼지가 서로 길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② ㉡에서는 인간의 배설물이나 음식물 찌꺼기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큰 독 속에 모여 제 힘으로 다시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들에게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진다는 표현에는 '통시'에서 생명이 순환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지방 사람들'을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그들이 생명의 순환이 드러나는 '통시'를 마련했다는 생각과 관련 지어 볼 때, ㉤는 섬사람들이 생명의 순환이라는 신의 섭리에 따라 살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화자이다. 따라서 그 같은 행위를 통해 화자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제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횡포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족과 헤어진 거미를 통해 가족 공동체 붕괴의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작가가 목격한 피해한 민중들의 삶은 '차디찬 밤'을 통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③ '수라'는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서로 헤어진 거미 가족에 대해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는 <보기>에서 보듯이 일제 강점기에 피해한 민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6~037쪽

- 01 ㉠: 무심함, ㉡: 서러움, ㉢: 슬픔 02 촉각적 심상 - 차디찬 밤이다
03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등과 같이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은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이 된 반면에, ㉡에는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05 '수라'는 거미 가족이 외적 요인에 의해 헤어지게 된 비극적 상황처럼, 일제 강점기에 삶의 터전을 떠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상징한다.

- 01 1연에서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끌어버렸다고 했으므로, 이때 화자의 정서는 '무심함'으로 볼 수 있다. 2연에서 화자는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서러워하므로, 이때 화자의 정서는 '서러움'으로 볼 수 있다. 3연에서 화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슬퍼하므로, 이때 화자의 정서는 '슬픔'으로 볼 수 있다.

- 02 <보기>에서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에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이 글에서 '차디찬 밤'에도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Plus <보기> 가난한 사랑 노래_신경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현실적, 감각적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

- 03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등에서 '-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4 ㉠은 화자가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내다 버리는 행위로, 이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다. ㉡은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다른 가족들과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행위이다.
- 05 <보기>에서 '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했으며, 이 글이 창작된 시대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경험했다고 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038~0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4 화자는 독백적인 어조로 거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6 '-나'와 같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09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10 화자는 자신이 무심코 거미 새끼를 버린 행위 때문에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한다.
- 14 1연의 '문밖'은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공간이지만, 3연의 '문밖'은 거미 가족의 재회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 16 '보드러운 종이'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 대한 화자의 배려를 나타내는 소재이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18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은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02. 엽박자 D_김중혁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2~049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⑤ 08 ⑤
 09 ③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⑤ 15 ④ 16 ①
 17 ③ 18 ⑤ 19 ② 20 ②

- 01 서술자인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며 중심인물인 엽박자 D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특정 인물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인물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서술자는 '나'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02 '혹시,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라고 했으므로, 엽박자 D는 자원에서 합창단 단장을 맡을 정도로 열성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노래를 연습할 거냐는 엽박자 D의 물음에 음악 선생은 첫날 이나가 자습을 하라고 하였다. ② 엽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고 하였다. ④ 엽박자 D가 자신이 음치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 03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들뜬 날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음악 선생과 아이들은 합창단 활동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으나 엽박자 D는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엽박자 D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음악 선생은 합창 연습을 시키지 않고 아이들이 자습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합창단 활동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준다. ③ 합창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선정했다는 것은 별다른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곡을 선정했음을 보여 준다. ⑤ 엽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고 했으므로, 음악 선생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을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엽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으므로, 음악 선생은 엽박자 D의 노래가 다른 아이들의 노래까지 망친다고 생각하여 자진 사퇴를 권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엽박자 D는 노래 연습에 최선을 다했으며, 음악 선생의 지도에 반감을 지냈다고 볼 수 없다. ③ 합창곡 연습 과정에서 엽박자 D가 돌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연에서 엽박자 D가 돌발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니다. ④ 아이들은 엽박자 D와 합창 연습을 하는 데 불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⑤ 엽박자 D가 다른 아이들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일부러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 05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엽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는 엽박자 D가 실제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싶어 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엽박자 D가 사회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엽박자 D는 음악 선생의 자진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엽박자 D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는 획일적 사고를 거부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음악 선생이 엽박자 D에게 립싱크를 요구한 것은, 집단의 가치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아이들이 불만해하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합창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심리로, 이는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아이들은 합창단에 마지못해 가입하여 특별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는 입시 위주의 학교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6 ‘솔직히 조금 놀랐다.’,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등과 같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인 ‘나’는 엽박자 D의 공연 기획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에 대한 엽박자 D의 평가 등에 대한 생각 등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인 ‘나’는 엽박자 D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주관적 평가 등을 서술하고 있다. ③~⑤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 07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라며 엽박자 D는 ‘나’를 칭찬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가 방송국의 취재를 섭외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연에 대한 반응이 좋아 이례적으로 방송국에서 먼저 취재를 하러 온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엽박자 D의 공연 기획 아이디어를 듣고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② 공연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청해 달라는 엽박자 D의 부탁을 받고 ‘나’는 친구들에게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③ ‘나’는 엽박자 D와 함께 준비한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④ 엽박자 D는 “내가 연락하긴 좀 못해서 말야. 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라며 ‘나’에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초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 08 더블더빙의 음악은 청각 예술에 해당하고 무성 영화는 시각 예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엽박자 D는 공연을 통해 청각 예술과 시각 예술의 만남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공연 주제를 보고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② ‘나’는 공연 주제를 보고 더블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에 대한 엽박자 D의 깊은 이해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엽박자 D의 열정을 재확인한 것은 아니다. ③ ‘나’는 더블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④ 공연 주제는 엽박자 D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나’와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내놓은 결과물이 아니다.

- 09 고등학교 때 합창 공연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전설의 합창단’은 일종의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의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공연 전문가가 아닌 엽박자 D의 공연 기획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나’가 놀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엽박자 D와 ‘나’가 잘 맞는 파트너라고 한 것은 엽박자 D와 함께하는 공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은 ‘나’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공연에 앞서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는 것은 공연이 성공할 경우 자신이 유명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공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공연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필요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를 서너 명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해를 따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공연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청해 달라는 엽박자 D의 부탁에 대해 ‘나’는 친구들에게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나’는 공연 준비를 취재하러 온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를 하는데, 이는 공연을 자신의 유

명세를 얻는 기회로 활용하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나’는 방송 화면에 더블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이 나와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속물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 11 ‘더블더빙이 엽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고 했으므로, ‘나’가 더블더빙이 엽박자 D를 위해 일부러 엽박자를 내는 연주를 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더블더빙이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엽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나’가 공연을 보면서 엽박자 D의 공연 기획 능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엽박자 D는 ‘나’에게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구나. 이제 곧 시작되겠지.”라며 긴장된 마음을 드러내었다. ④ ‘나’는 공연에서 더블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음반으로 들던 것보다 리하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고 했으므로, 공연에서 더블더빙의 연주를 듣기 전에 그들의 음악을 들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한 순간은 무성 영화 <재제기>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를 할 때라고 하였다.

- 12 [A]에서는 서술 대상인 짧은 무성 영화에 대해 묘사적으로 서술하여,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독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무성 영화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무대 속 상황과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지는 않다. ② [A]는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현재적 서술을 하고 있지 않다. ③ [A]는 무성 영화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는 무성 영화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다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13 ㉠은 공연을 시작하면서 보여 준 것으로 이후 영화의 절정 장면에서 더블더빙이 기타를 치며 등장하므로, ㉠은 더블더빙의 극적인 등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에 나오는 장면과 더블더빙의 연주는 엽박자를 이루는데 관객들은 그것을 더 재미있어한다고 했으므로, ㉠은 음정과 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는 엽박자 D의 공연 기획 의도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모두 공연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③ ㉠ 이후로 더블더빙이 등장했지만 ㉠ 자체가 더블더빙의 현란한 연주를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하는 것을 보며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지만 ㉠ 자체가 더블더빙의 연주에 대한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 이후 진행된 더블더빙의 공연에 ‘나’는 첫 공연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능수능란하다고 했으나 ㉠이 ‘나’가 감탄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과 관련하여 더블더빙의 연주가 엽박자를 이루었으나 관객들은 즐거워했다고 했으므로 ‘나’가 더블더빙의 공연에 의아해한 것은 아니다. ⑤ ㉠은 공연의 시작과 함께 상영된 것으로 이후 더블더빙의 극적인 등장과 함께 공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나, ㉠이 관객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은 아니다.

- 14 관객들은 무성 영화의 장면과 더블더빙의 연주가 엽박자를 이루는 것에 대해 더 즐거워했는데, 이에 대해 ‘나’가 실망감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똥, 그리고 똥,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라고 했는데, 이는 아주 짧은 시간에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기대에 찬 관객들의 모습을 ‘커다란 해일’에 비유하여 공연장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출몰 직전의 영상 장면과 ‘뽕’하는 기타 소리가 연결되면서 더블더빙이 등장하여 극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더블더빙의 음악에 대해 강렬하고, 자유로우며, 품위 있고, 리드미컬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15 <보기>에서 이 글은 엿박자로 조금씩 어긋나면서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고 하였다. <재채기>라는 무성 영화의 장면과 더블더빙의 연주는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는 엿박자였는데 관객들은 이를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 같다고 한 것에서, 엿박자로 조금씩 어긋나더라도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엿박자 D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무성 영화에 맞춘 더블더빙의 연주를 '엿박자 D를 위한 엿박자 연주곡'이라고 생각한 것은 엿박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엿박자 D의 합창 역시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② 엿박자 D의 꼼꼼한 스토리보드에 따라 더블더빙의 공연이 능수능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과 고정 관념의 벽은 관련이 없다. ③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는 스크린을 찢고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온 더블더빙의 모습은 극적 등장을 위해 연출된 것으로, 여기에 확실성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는 담겨 있지 않다. ⑤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공연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엿박자 D가 떨린다고 '나'에게 고백한 것은 처음으로 기획한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을 나타낸 것으로, 다름에 대한 수용에 인색한 우리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16 주인공 엿박자 D가 준비한 공연과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 작중 인물인 '나'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인 '나'가 엿박자 D와 갈등하는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⑤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나'이다.

- 17 음치들이 부르는 노래의 음이 서로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은 '나'가 서로 다른 음과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음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앙코르 곡으로 준비한 더블더빙의 히트곡이 나오지 않자 '나'는 당황하는데, 이는 '나'가 엿박자 D가 몰래 준비한 공연 기획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엿박자 D는 20년 전 축제 때 불렀던 노래를 앙코르 곡으로 준비했는데, 이는 엿박자 D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음치들의 노래에 대해 아무도 못지 않고 일부는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음치들의 노래에 감동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엿박자 D가 리믹스한 음치들의 노래는 서로 겹치지도 않고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도 않는데, 이는 서로 다른 소리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엿박자 D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8 '나'는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이 앙코르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것은 더블더빙의 최고 히트곡이었다. '음치들의 노래'는 엿박자 D가 '나' 몰래 준비한 곡이다.

오답 해설 ① '음치들의 노래'는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는데, 이는 20년 전 축제 때 '나'와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라고 하였다. ② '나'와 친구들은 '음치들의 노래'에 맞추어 입만 뾰긋거렸는데, 이는 '음치들의 노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와 친구들은 '음치들의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며 서로의 다름과 개성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④ '나'는 '음치들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를, 아마도 엿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19 엿박자 D가 준비한 앙코르 곡은 '나'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곡으로, 이는 엿박자 D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공연의 일부를 기획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음악 소리가 작은 것은 엿박자 D가 일부러 조정한 것으로, 음향의 문제가 아니다. ③ 엿박자 D의 말을 듣고 '나'는 엿박자 D가 준비한 노래가 20년 전 '나'와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임을 떠올리고 있으나, 지난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관객들이 휘파람을 불고 브라보를 외친 것은 공연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고 감동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음치들의 노래가 시작되자 더블더빙이 다시 연주를 멈춘 것은 엿박자 D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 20 '나'와 친구들은 합창단원 중 가장 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치라는 이유로 립싱크를 강요받아야 했던 엿박자 D의 상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엿박자 D의 모습에 예의를 표하기 위해 음치들의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립싱크를 하는 것이 엿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했으므로, '나'와 친구들이 립싱크하는 것은 엿박자 D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없다. ③ 엿박자 D는 변화가 없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 공연을 기획한 것이 아니다. ④ 엿박자 D는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 것이지, 자신을 외면한 '나'와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⑤ 엿박자 D가 당시의 음악 선생을 비판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한 것은 아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50~055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⑤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②

- 01 현재의 '나'가 20년 전 고등학교 때 있었던 엿박자 D의 이야기를 서술하여 현재 엿박자 D가 기획한 공연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건 전개의 단서를 제시하거나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② 엿박자 D에 대한 서술자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도 엿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등에서 의문과 추측의 진술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에 대한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02 '나'와 친구들은 음치들의 노래에 맞추어 립싱크를 하는데, 이는 20년 전 음악 선생이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강요했던 때를 떠올리며 서로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축제를 위한 합창 연습에서 엿박자 D 때문에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음악 선생이 엿박자 D가 일부러 연습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②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지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다음 주였다.'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합창단에 들어간 것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엿박자 D가 공연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는 자신이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기 때문이다. ⑤ 축제 때 부를 곡은 1분도 되지 않아 선정이 되었는데, 엿박자 D가 노래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03 음악 선생은 합창곡을 연습하며 음치인 엿박자 D가 합창곡을 망친다고 생각하여 립싱크를 요구했으므로, 음치가 합창의 조화를 해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엿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래를 믹싱한 공연을 기획하여 음치의 목소리가 모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음악 선생은 음치가 합창의 조화를 해친다고 생각하여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요구했으므로, 합창에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엿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래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지, 합창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③ 음악 선생은 엿박자 D의 목소리가 혼자 튀기 때문에 합창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요

구한 것이다. 엿박자 D는 튀는 목소리가 합창을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튀는 목소리들도 다른 목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④ 음악 선생은 합창단 활동을 형식적으로 여기며 공연에서 부를 곡이 쉬운 노래이므로 한 번만 연습하자고 했던 것이지, 합창곡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엿박자 D가 합창곡을 부르는 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음악 선생은 합창단 활동을 형식적으로 대하며 아이들에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했다. 엿박자 D가 합창단 활동이 시험공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 04 '나'와 친구들은 음치들의 노래와 더블더빙의 연주가 잘 어우러진 공연에 감동을 하고 있을 뿐, 더블더빙의 멋진 연주가 음치들의 노래에 가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엿박자 D가 준비한 공연에서 음치들의 노래는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으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에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낀 '나'와 친구들은 립싱크를 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 낸 엿박자 D에게 예의를 갖추려 한 것이다. ④ 20년 전 합창 연습에서 엿박자 D는 음치라는 이유로 음악 선생에게 립싱크를 강요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와 친구들은 엿박자 D가 과거의 상처와 음치에 대해 편견을 극복한 모습에 예의를 표하기 위해 립싱크를 한 것이다. ⑤ 엿박자 D가 기획한 공연은 음치들의 목소리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나'와 친구들이 제대로 된 박자로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공연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립싱크를 한 것이다.

- 05 '나'와 친구들은 엿박자 D가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지난날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아이들은 엿박자 D의 목소리가 합창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표정이 일그러진 것이다. 이를 통해 엿박자 D가 음치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엿박자 D는 음치라는 이유로 음악 선생으로부터 자진 사퇴를 권유받는다. 이를 통해 엿박자 D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음치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엿박자 D는 음악 선생으로부터 합창 공연에서 립싱크를 하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엿박자 D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④ 엿박자 D는 자신이 기획한 공연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신이 직접 믹싱한 음치들의 노래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엿박자 D는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6 '나'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공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의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공연 내용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동시적으로 진행된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다.

- 07 <재채기>라는 짧은 무성 영화는 한 여자가 재채기를 할까 말까 하는 장면이 내용의 전부라고 하였다. 엿박자 D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엿박자 D가 무성 영화와 더블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라고 했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②, ③ 짧은 무성 영화로 공연이 시작되는데, 영화의 절정의 순간에 더블더빙의 기타 연주가 시작되며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극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공연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④ <재채기>에서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는 엿박자였지만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 08 고등학교 시절 축제에서 공연을 망쳤다는 이유로 크게 혼이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엿박자 D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기획한 공연에 합창단을 했던 친구들을 초대하려는 것은, 지난

날의 아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공연 내용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화해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다. ③ 엿박자 D가 '나'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자랑하려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고등학교 친구들이 엿박자 D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엿박자 D가 자신이 음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 09 <재채기>라는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며 '나'는 '더블더빙이 엿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다. 즉, 더블더빙이 엿박자 D를 위한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며, 엿박자 D가 이를 공연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엿박자 D가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라는 공연의 큰 주제를 제시했을 때 '나'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획이라고 생각하며 놀랐다. ② 엿박자 D는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라며 '나'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④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나'는 엿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⑤ 공연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청해 달라는 엿박자 D의 부탁을 듣고 '나'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 10 엿박자 D와 '나'는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엿박자 D는 중심인물로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기획하는 인물이며, 이는 소설에서 작가가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창조한 허구적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공연의 내용을 서술자인 '나'가 묘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독자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인 엿박자 D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관찰하며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의미에 대해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공연장은 더블더빙의 엿박자 연주와 무성 영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는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설정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 (나) 동승·하종오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비판적
주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비판
해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일상적 경험에서 깊은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 내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드러냄.

- 11 엿박자 D의 목소리는 합창 연습에 방해가 되었으므로 엿박자 D는 음악 선생으로부터 립싱크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나'와 친구들과 엿박자 D가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음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와 친구들은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이 깨지게 된다. '나'와 친구들이 엿박자 D를 용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합창을 하려고 할 때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고 했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② 엿박자 D의 목소리 때문에 합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음악 선생은 엿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하고, 엿박자 D는 이를 거부한다. ③ '나'는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엿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④ 엿박자 D의 목소리와 관련하여 '나'는

음치에 대해 편견을 가졌었으나 음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 12 ㉓는 20년 전에 '나'와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를 엿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래로 리믹스한 것으로, 음치에 대한 '나'의 편견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㉔는 서로 다른 깃털 색깔을 지닌 새들로, '나'는 이들이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젊은 아시안 남녀와 자연스럽게 동승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오답 해설 ㉒ ㉓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장에 올려 피치고 있으나 공연장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㉔가 국철 안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㉓ (가)에서 엿박자 D와 '나'가 갈등하는 상황은 없었으므로 ㉔가 갈등을 통합시키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 화자와 '아시안 젊은 남녀' 역시 갈등하고 있지 않다. ㉒ ㉓는 엿박자 D가 '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이다. 한편 ㉔가 '저이들(젊은 아시안 남녀)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다. ㉒ ㉓를 들으며 '나'는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라고 했으므로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간직해 온 노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㉒는 화자가 동승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 13 '저이들'은 '아시안 젊은 남녀'들로 이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모자를 하나 사서 서로 번갈아 써 보는 행동 등이 무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㉑ '국철'을 타고 있는 화자의 시선은 처음에는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㉒ '나'의 시선이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가 <보기>에서 말한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가졌다면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㉒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시선에 가치 평가적 요소가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㉒ '동승'은 차, 비행기 등을 함께 타는 행위를 뜻하므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지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4 (가)의 서술자인 '나'는 중심인물인 엿박자 D와 관련된 사건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국철 안에서 자신과 외양이 다른 외국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호기심을 보인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㉑ (가)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등에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나)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㉒ (가)는 대화를 통해 음악 선생과 엿박자 D의 외적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에는 대상의 외양 묘사를 통한 화자의 내적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㉒ (나)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하며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가)는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㉒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들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15 (가)에서 엿박자 D가 음악 선생의 자진 사퇴 권유를 거부한 것은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즉, 음악 선생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해설 ㉑ (가)에서 음악 선생이 엿박자 D에게 '입만 병긱병긱'이라고 말한 것은 엿박자 D의 특성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이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㉒ (가)에서 엿박자 D는 22명의 음치들의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게 리믹스했는데, 이는 엿박자 D가 다름을 받아들여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조화를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㉒ (나)에서 화자는 국철에서 '일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주변을 살피는데, 이는 자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㉒ (나)에서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해 낯짝이 부끄러웠다고 했는데 이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이며, 화자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1 열성적 02 실망한 엿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03 음악 선생은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모두가 같은 박자와 같은 음을 내는 것이 합창이라고 생각하고, 엿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랫소리가 서로 해치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보아 각자 자신의 박자와 음을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창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04 '나'와 친구들은 20년 전 립싱크를 강요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엿박자 D가 과거의 상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것에 예의를 표하기 위해 립싱크를 한 것이다.

- 01 엿박자 D는 자원하여 합창단 단장을 맡고 음악 선생에게 축제 때 부를 곡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연습을 하는지 등을 묻는 등 합창단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엿박자 D가 순수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2 '실망한 엿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서술자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표지에 해당하는 문장들이다.
- 03 음악 선생은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연에서 립싱크를 요구하는데, 이는 합창은 모두가 같은 박자, 같은 음을 내는 것이라는 음악 선생의 생각을 보여 준다. 엿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랫소리를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어울리도록 믹싱을 했는데, 이는 합창은 각자 자신의 박자와 음을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엿박자 D의 생각을 보여 준다.
- 04 엿박자 D는 20년 전에 음치라는 이유로 음악 선생에게 공연에서 립싱크를 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고, 음악 선생은 공연을 멈추고 엿박자 D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나'와 친구들은 엿박자 D가 기획한 공연에서 음치들의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며 서로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과거의 상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엿박자 D에게 예의를 표하고 있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2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러므로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중심인물인 엿박자 D를 지켜보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
- 03 엿박자 D는 음악 선생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합창단 단장을 맡았다.

- 05 고등학교 시절 특별 활동 시간에 합창단에 모인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래 연습이 아니라 시험공부 등 자습을 하였다.
- 07 음악 선생은 축제 공연에서 엿박자 D에게 무대에 오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립싱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 10 ‘나’는 필요에 의해 친구들 서너 명과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엿박자 D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 11 엿박자 D의 공연 기획 아이디어는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는데, 이는 그동안 공연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 15 공연은 짧은 무성 영화로 시작하였는데, 영화의 절정 장면에서 더블더빙의 기타 연주가 시작되면서 더블더빙이 극적으로 등장하였다.
- 19 공연의 마지막 노래에 ‘나’와 친구들은 모두 과거의 상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엿박자 D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음치의 노래에 맞추어 립싱크를 했다.

03. 파수꾼_이강백

기술 실전 문제

본문 062~067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① 05 ③ 06 ② 07 ④ 08 ②
09 ③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④ 15 ④

- 01 희곡의 무대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에 제한이 있다.

오답 해설 ① 희곡은 무대에서 연극으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이다. ③ 희곡에서 사건의 전개는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희곡에는 인물들의 행동과 표정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있다. ⑤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해설자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 02 파수꾼 ‘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리가 없다는 사실을 파수꾼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파수꾼 ‘나’는 끝까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수꾼 ‘나’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라는 파수꾼 ‘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었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훨씬 잘 안다고 그러니?”라는 파수꾼 ‘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파수꾼 ‘나’는 양철 북을 치면 덜 무서울 것이라고 조언하지만 파수꾼 ‘다’가 소용없다고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파수꾼 ‘다’는 자신이 망루에 올라가서 황야에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파수꾼 ‘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

- 03 흰 구름은 망루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황야에는 이리 떼가 아닌 흰 구름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을 알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이 흰 구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므로, 흰 구름은 진실을 밝히는 것의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양철 북은 이리 떼가 온다는 파수꾼 ‘가’의 외침에 따라 파수꾼 ‘나’가 두드리는 것으로,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② 망루는 높은 곳에 설치되어 황야를 감시하는 곳으로, 이리 떼를 발견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파수꾼이 이리 떼의 출현을 외치므로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리 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실재하는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가공의 적으로 볼 수 있다. ⑤ 낮은 곳은 망루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황야의 상황을 살필 수 없는 장소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이 은폐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04 파수꾼 ‘다’는 이미 이리 떼가 허상임을 알고 있으므로,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경고에 양철 북을 치는 파수꾼 ‘나’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②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북을 치는 행위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북을 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 ‘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니다. ③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가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④ 파수꾼 ‘다’와 ‘나’는 이리 떼의 존재 유무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⑤ 파수꾼 ‘나’가 북을 친 것은 이리 떼가 몰려왔다는 파수꾼 ‘가’의 외침을 들었기 때문이다.

- 05 이 글에서 촌장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인 이리 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고, <보기>에서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오지 않는데 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난을 일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진짜로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진실을 숨기려는 존재가 아니다. 또 <보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기>에서 양치기 소년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촌장이 이리 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보기>의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할 때마다 늑대를 잡기 위해 달려갔으므로, 늑대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⑤ 이 글의 이리 떼는 <보기>의 늑대와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 06 파수꾼 '다'와 촌장의 대화를 통해 이들이 이리 떼의 존재를 밝히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앞으로 보여 줄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③ 무대는 망루 아래로, 이는 사건 전개 과정에서 전환되지 않는다. ④ 일상적인 도구를 소품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7 자신은 원래부터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미루자는 설득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나? ~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나,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8 '딸기'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으로, 이는 독재 권력이 누리는 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딸기'는 파수꾼 '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적어 촌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므로, '편지'는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③ '딸기'는 촌장이 명분 뒤에 숨겨진 실리인 딸기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마을 사람들이 딸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④ '뎃'은 이리 떼가 있다고 선전하여 촌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장치이다. ⑤ '도끼'는 마을 사람들이 촌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도구로, 이는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기 위해 언급하는 대상이다.

- 09 망루에 올라가서 함께 외치자는 파수꾼 '다'에게 촌장은 "그래, 외치마."라고 말하는데, 이는 파수꾼 '다'가 자신을 믿도록 하여 시간을 벌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촌장이 실제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딸기는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자라는 부정한 대가로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특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촌장과 같은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이리 떼가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는 촌장의 말은 촌장도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촌장은 그동안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숨겨 왔음을 알 수 있다. ④ 도끼에 찌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혔을 때 살인이 벌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를 회유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촌장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⑤ 흰 구름은 진실에 해당하는데,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라고 말하며 다그친다. 이는 파수꾼 '다'도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몰아세움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의지를 꺾으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 10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부조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허상인 이리 떼를 진실로 믿고 있으며 흰 구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허상이 진실을 압도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진실을 감추려는 촌장과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촌장은 망루와 뎃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이리 떼의 존재를 믿게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마을 사람들이 촌장의 통치에 따랐던 것은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리 떼가 허상이고 진실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촌장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 11 '북소리, 한동안 계속 된다.',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등에서 음향 효과를 통해 극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촌장은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므로, 인물들의 대화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 ③ '망루'라는 특정 공간에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갈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등장인물은 '촌장', 파수꾼 '가', '나', '다'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므로, 인물들에 개성적인 이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⑤ 작품 전체에서는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배역을 수행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촌장은 자신의 뜻대로 파수꾼 '다'가 이리 떼가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한 다음, 파수꾼 '다'에게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파수꾼 '다'가 망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파수꾼 '나'가 "제가 저만큼 바라다드리지요. 뎃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가 없다는 파수꾼 '다'가 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망루로 왔으나, 파수꾼 '다'가 망루 위에 올라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촌장의 말을 다시 믿게 된다. ④ 촌장은 파수꾼 '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거짓으로 외친 다음 파수꾼 '다'에게 마을에 올 수 없다고 통보한 것에서, 파수꾼 '다'에 대한 촌장의 태도가 고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⑤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외치는 것에서, 결국 촌장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여 거짓의 편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3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은 '다'가 젊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젊은 날의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촌장이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②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로 향하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괴로운 심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촌장은 파수꾼 '다'를 회유하여 그가 망루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외치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다시 속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에 진실을 퍼뜨린 수다쟁이 운반인을 처벌하지는 것은 다시는 진실을 말하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는 것은 황량하고 스산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이는 촌장의 말을 믿고 거짓말을 했지만 촌장의 배신으로 암울함을 느끼는 파수꾼 '다'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 14 '망루'는 파수꾼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황야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만 독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망루는 독점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의 지도자인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망루는 황야에 이리 떼가 나타나는자를 감시하는 공간인데, 실제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루가 마을 공동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② 망루는 파수꾼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마을과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고독한 삶을 부각하는 공간은 아니다. ③ 마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이리 떼인데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망루가 마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다. ⑤ 마을의 지도자인 촌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를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마을을 통치하고 있으므로, 지도자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 15**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파수꾼 ‘다’가 양철 북을 두드리는 것을 보며 결국 이리 떼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므로, 이들이 거짓에 분노하고 항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이 창작된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을 강화하던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 지도자인 촌장은 독재자를, 이리 떼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양철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다’는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하수인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당시 독재 정권은 진실을 말하는 언론 및 지식인들을 탄압했다고 하였다.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마을과 격리시켜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촌장은 당시의 독재 정치 권력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당시 독재 정권은 진실을 말하는 언론 및 지식인들을 탄압했다고 하였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밝히려다가 촌장에게 회유당하고 결국에는 마을과 격리되는데, 이로 볼 때 파수꾼 ‘다’는 1970년대 독재 권력으로부터 회유당한 지식인층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이 글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차용, 변형하여 당대 현실을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촌장이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우화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부정 한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068~07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⑤	

- 01** 촌장은 운반인이 편지를 읽은 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렸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몰려올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무대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하며, 촌장이 파수꾼 ‘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극 중 시간의 흐름이 전화되지는 않는다. ② 촌장이 파수꾼들이 일하는 곳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공간적 배경은 망루로 볼 수 있다. ④ 파수꾼 ‘나’와 ‘다’는 이리 떼의 유무에 대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고, 파수꾼 ‘다’와 촌장도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다’와 촌장과의 갈등이며, 이것이 전체의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 02**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으며,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이 평생 양철 북을 쳐 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파수꾼 ‘다’를 촌장에게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촌장이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등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파수꾼 ‘다’는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촌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리 떼의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④ “그런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등과 같은 촌장의 말을 통해, 촌장은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 떼에 대한 공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며 주려는 겁니다.”라는 파수꾼 ‘다’의 말을 보면,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 03**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들킨 것에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당당하게 밝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파수꾼 ‘다’는 이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흥분된 상태이므로, 기대감에 찬 표정을 짓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다. ② 파수꾼 ‘다’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오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의아해하며 말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다. ③ 촌장은 딸기라는 이득을 제시하며 파수꾼 ‘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있으므로, 교묘한 웃음을 지으며 은근한 태도로 말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다. ④ 촌장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므로,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고 설득적인 어조로 말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다.

- 04**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망루 밖의 들판에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뺨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이 ‘뺨말’ 때문에 아무도 들판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촌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뺨말’을 적절히 활용한다. 즉, ‘뺨말’ 뒤에 있는 잘 익은 ‘딸기’를 그들만이 취하는 것이다. 결국 ‘뺨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취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딸기’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이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이 아니다. ② ‘뺨말’은 마을 사람들이 ‘딸기’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지, 촌장이 지남발을 몰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뺨말’은 마을 사람들이 ‘딸기’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며, ‘딸기’는 촌장과 같은 사람들이 독점하는 이익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⑤ ‘딸기’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촌장과 같은 사람들이 취하는 실리를 상징한다.

- 05** <보기>에서는 서사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대 위의 연극은 연극일 뿐임을 강조하는 서사극은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낯설게하기’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법은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관객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무대 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극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므로, 서사극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06**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인물로 비판의 대상일 뿐, 연민의 대상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관객들은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무대 위의 사건에 관여된다. ③ 무대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④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찌른 내 모습을. 피가 솟아들려내릴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참혹하게 죽는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의 심경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⑤ 무대 안에 위치한 망루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거짓 정보를 무대 밖에 위치한 마을로 전달하고 있다.

- 07** 파수꾼 ‘다’는 우연히 울타리 너머에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를 경계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촌장이 “야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춘장이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뗏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라고 말한 것과, 파수꾼 ‘나’가 들어온 이후 춘장에게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춘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춘장이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 이리 폐인지 아니면 흰 구름 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춘장이 “저기 빙글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8 ㉠에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숨기려는 춘장의 설득에도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다고 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서 파수꾼 ‘다’는 결국 춘장의 회유에 굴복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파수꾼 ‘다’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을 보이고 있는데, ㉡에서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파수꾼 ‘다’의 신념이 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에서 파수꾼 ‘다’는 춘장과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춘장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며, ㉣에서는 춘장의 뜻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춘장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③ ㉤에서 파수꾼 ‘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는 춘장의 의견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파수꾼 ‘다’는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므로 이는 현실과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 이전에 춘장이 파수꾼 ‘다’와 약속한 내용은 없다. ㉧은 춘장의 회유에 굴복하여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 09 춘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리 떼가 잡힐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을 이리가 곧 잡힐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 위한 발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춘장은 파수꾼 ‘다’에 대해 공감하는 듯한 태도로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있다. ② 춘장은 이리 떼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마음을 살짝 내비치고 있다. ③ 춘장은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가정함으로써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 ④ 춘장은 파수꾼 ‘다’의 행동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 10 <보기>에서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은 감시자의 행동을 볼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으므로 권력을 갖고 있는 감시자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 글에서 마을 사람들은 권력자인 춘장이 이리 떼와 관련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파수꾼은 마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시자는 수감자들을 감시하므로 그들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 ③ 감옥은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마을은 권력자인 춘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④ 감시용 탑에서 감시자는 수감자들을 감시한다. 하지만 망루는 내부가 아닌 마을의 외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⑤ 마을의 울타리 역시 감옥의 담처럼 사람들이 넘나들 수 없는 장애물의 작용을 한다.

- 11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와 대화를 하며 무대 밖 공간인 황야에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양철 북을 치는 소리, 바람 소리 등의 효과음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지는 않다. ④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소품은 나오지 않는다. ⑤ 춘장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으나, 관객들이 춘장이나 다른 인물에게 말을 건네지는 않는다.

- 12 관객들을 극에 참여시킨다고 하여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관객들에게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②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맡으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③ 춘장이 관객들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관객들을 극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고 있다. ⑤ 이 글은 희곡이므로 시·공간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는데,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제약을 해결하고 있다.

- 13 파수꾼 ‘나’는 이리 떼의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하므로, 주체인 파수꾼 ‘다’에게 협조자가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②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 춘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으므로 반대자에 해당한다. ④ 춘장은 가상의 이리 떼를 내세워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⑤ 춘장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기 위해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대자라고 할 수 있다.

- 14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는 하나 권력자인 춘장의 회유에 넘어가 결국에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 함께하는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망루에 왔으나 결국 춘장의 거짓말에 다시 속는 인물들이다. ② 파수꾼 ‘가’는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있다고 소리치는 인물로, 자신도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춘장과 함께 거짓말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인다. ③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고 여전히 이리 떼가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양철 북을 친다. ④ 춘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파수꾼 ‘다’를 회유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인물이다.

- 15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리 떼가 있다고 소리치자 파수꾼 ‘나’는 그를 격려하며 훌륭한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파수꾼 ‘나’는 실제로 이리 떼가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므로, 당시의 독재 권력과 타협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은 우의 기법을 활용하여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 글에서 한 마을을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1970년대에 독재 권력은 자신들에게 저항한 지식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하였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인물로, 1970년대 독재 권력에 저항했던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보기>에서 1970년대 독재 권력은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공 이념을 활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였다. 춘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한 것과 이리 떼가 있다며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반공 이념을 확산시켜 국민들을 기만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1970년대 독재 권력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4~075쪽

- 01 진실 02 ㉢: 이리 떼, ㉤: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 03 파수꾼 ‘다’를 마을에서 격려하여 진실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서이다. 04 춘장은 파수꾼 ‘다’에게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말해 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진실을 은폐하여 시민을 통제하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진실을 밝히려다 회유에 굴복하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 01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므로 이를 밝혀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춘장은 이리 떼가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02 ‘이리 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파수꾼 ‘다’는 이를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인식하고, 춘장은 이를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은

파수꾼 ‘다’가 확인한 진실로, 파수꾼 ‘다’에게는 밝혀야 할 진실에 해당하고, 촌장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추어야 할 진실에 해당한다.

- 03** 촌장은 자신에게 속은 파수꾼 ‘다’를 언제든지 다시 진실을 말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영원히 진실을 감추기 위해, 파수꾼 ‘다’에게 망루에서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04**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러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파수꾼 ‘다’에게 망루에 올라가서 직접 말하라고 종용하는데, 이는 파수꾼 ‘다’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촌장은 <보기>의 시민을 통제하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파수꾼 ‘다’는 촌장의 회유에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이리 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진실을 밝히려다 회유에 굴복하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X토 마무리 check

본문 076~077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3** 무대 안의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인데, 이는 무대 밖의 마을 사람들에게 파수꾼 ‘다’의 말이 전해지고 이에 마을 사람들이 망루로 오는 이야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06** 관객들은 중간에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극에 참여한다.
- 11** 파수꾼 ‘다’는 진실을 믿지 않고 양철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 12**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듣고 자신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 16** 양철 북소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 17**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외침에 이리 떼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양철 북을 두드렸다.

04.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_김금희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80~083쪽

-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① 06 ③ 07 ② 08 ④
09 ⑤ 10 ④ 11 ② 12 ② 13 ① 14 ① 15 ⑤

- 01** 이 글은 교술 갈래인 수필이다.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이 드러날 뿐,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다.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교술 갈래는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다는 특징이 있다. ②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④ 글쓴이는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와 달리, 글쓴이가 직접 독자와 소통한다. ⑤ 교술 갈래의 종류에는 설(說), 기(記),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있다.
- 02** 글쓴이가 다닌 한의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약을 지어 주지 않는 곳이다. 침과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여간해서는 약을 짓지 않는 한의원이라고 할 때 상당수가 넘겨짚은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② ‘처방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하기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응응, 나 좋았겠지? 좋았겠지?”라는 조카의 말을 통해 조카가 선생님과 대화한 일을 글쓴이에게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글쓴이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의를 믿는 힘이 세상을 좀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조카가 먼저 선의를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조카와의 대화에서 선의를 믿지 못하는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조카의 선생님처럼 선의가 담긴 조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의를 믿는 힘이 세상을 좀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⑤ 글쓴이는 조카와의 대화에서 한의원의 일화를 떠올리고 있지 않다.
- 04** 글쓴이가 ㉠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불신에 차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여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선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④ 악의를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믿음이 유지되는 사회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아들이 적어 손해를 본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05** ㉡는 불신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까닭은 허가 나지 않은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팔거나(㉠), 은행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털어 가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 선의가 우선인 모습이 드러난다.
- 06** 조카는 유치원 통학 버스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선생님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왔음을 글쓴이에게 자랑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카가 선생님에게 선의를 느낀 것은 사실이나 선생님의 선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④ 조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글쓴이에게 교훈

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⑤ 조카는 글쓴이에게 자신이 선의를 가지고 실았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7 ㉞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따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08 독자 1과 독자 2의 말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수정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독자 1은 약을 지어 주지 않은 병원에 간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② 독자 2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③ 독자 3은 교훈적 내용의 글을 읽고 이를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 ⑤ 독자 2는 비판적으로, 독자 3은 긍정적으로 글에 담긴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09 이 글은 교술 갈래로, 일상의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개성이 담기므로 경험을 주관적으로 전달한다. ②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상실감이 드러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10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 방법은 설의법이다. ㉠은 한의원의 선의를 강조하기 위해, ㉡은 선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은 선의를 믿는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임을 드러내기 위해 설의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 물음의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의문문이 사용되었으나, 당연히 내용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독자의 반응을 풍성하게 하는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1 글쓴이는 조카와 대화하면서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으나, 자신이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조카와의 일화가 담긴 글이다. ③ 글쓴이는 선의를 불신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④ 다른 사람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글이므로, 이를 수용하여 타자의 선의를 믿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적절한 감성이다. ⑤ 다른 사람의 진실과 선의를 믿는 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적절한 감성이다.

12 <보기>에서는 언어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언어 공동체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말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어른으로, 한자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뭇'은 글쓴이의 말이므로 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상당수'와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의 언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부러', '흔하다'는 방언이 아니며, 이 글에 지역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난 것도 아니다. ⑤ '이런 세상',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13 글쓴이는 자신이 다니는 한의원이 환자에게 선의를 보이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자신의 말을 듣고 한의원에 대해 넘겨짚은 상당수의 반응을 흥미로워한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③ 판단을 유보하는 이들을 덮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선의를 믿고 신뢰하는 조카의 가치를 덮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선생님의 선의의 말을 들은 조카를 부러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글쓴이는 선생님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4 ㉡는 불신에 차 선의를 믿지 못하므로 악의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는 선의를 믿는 세상이므로 선의를 신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는 불신에 차 선의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므로 악의가 방관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는 선의가 깨진 세상이나, 선의를 만드는 세상, 악의를 선의로 바꾸는 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15 글쓴이가 조카와의 일화를 통해 깨달은 점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람들이 글쓴이가 다니는 한의원의 선의를 신뢰하지 않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가 다니는 한의원에 대해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곳이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한다고 여기고, 몇몇 사람은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 ③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퍼더니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팔지 않나, ~ 그렇게 해서 한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 팔거나 보이스 피싱을 하는 건 이제 흔하다'는 일이 되어 버렸다'에서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조카와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084~087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⑤	14 ④		

01 일상에 대한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수필로, 교술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의 속성을 언급하지도,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지도 않고 있다. ② 한의원을 구체적 장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의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조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⑤ 의미상 대조되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02 글쓴이는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불신을 탓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선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의 조카는 선생님의 선의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는 선의를 믿는 힘이 갖는 가치를 깨닫고 있다. ③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이 크고 단단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조카에게 선생님에 해 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조카에 대한 지적과 당부라고 생각한다.

03 글쓴이가 한의원에서 선의를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통해 선의를 배풀고자 다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와 작품 속 '나'가 동일한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다. ② 일상에서 소재를 얻어 창작하는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다. ③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다. ⑤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다.

04 ㉠은 가해자나 타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상황이므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적반하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②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③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빗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을 이르는 말 ⑤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05 <보기>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포착한 일상을 토대로 문학적 의미

를 생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글쓴이가 조카의 일상을 관찰하여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포착하는 것은 <보기>와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조카와의 대화에서 삶의 의미를 포착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선의를 믿는 조카의 세상을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⑤ 글쓴이는 자신이 한의원에 다닌 이 이야기를 한 경험을 통해 불신이 만연한 사회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이를 확장해 현대 사회를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 06 글쓴이는 혼이 난 것에 가까운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즐거워하는 조카를 보며, 그 까닭을 타인의 선의를 믿고 신뢰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말에 숨겨진 선의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은 맞지만, ㉠에 글쓴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뜻이 담긴 것은 아니다. ② 조카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교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④ 조카가 선생님의 지적과 당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도, 글쓴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⑤ 글쓴이가 선의를 배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07 글쓴이는 조카의 세상, 즉 선의를 믿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라는 추상적 개념을 ‘크고 단단’하다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보드’라는 것과 ‘단단’한 것은 촉각적 심상을 대비한 것이다. ③ ‘느껴졌다’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④ 조카의 손이 믿을 수 없이 보드랍고 연약하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손이 쥐고 있는 조카의 세상이 크고 단단함을 강조하고 있다.

- 08 <보기>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보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믿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나,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라고 하였으므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의 행동 교정 방식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라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를 옳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③, ④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신과 불의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심각한 피해)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⑤ 글쓴이와 행동주의 심리학 모두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과나 보상에 따라 유도될 수 있다고 여긴다.

- 09 [A]에서는 선의를 선뜻 믿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의 예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오답 해설 ① 대조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반복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과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다.

- 10 글쓴이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며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선의에 의해서 한의원을 운영할 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② 사람들은 글쓴이가 다니는 한의원이 약을 잘 지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그곳이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한다고 생각하며 한의원의 선의를 믿지 않는데, 글쓴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요즘 그런 선의는 드문 것이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조카가 한 말을 듣고 선생님이나 한 말의 의도(지적과 당부)를 추측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선의를 믿는 가치관을 추측하고 있다.

▶ 이옥설 이규보

핵심 정리

갈래	설(說), 고전 수필
성격	교훈적, 경험적
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해제	자신의 집을 고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하여, 잘못을 미리 고쳐야 함을 역설함.

- 11 ‘설’에는 글쓴이의 의견과 깨달음이 담긴다. ㉠에서는 사람이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을 집을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는 글쓴이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⑤ ㉤는 글쓴이의 의견이기는 하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 12 ㉡는 일찍 수리했으면 경비가 적게 들었을 것을, 미루는 바람에 경비가 크게 든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뎠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3 C는 A의 행량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한 내용으로, 나라의 정치에서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비가 샌 곳을 바로 고치듯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즉, C에서는 유추의 방법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행량채를 수리한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난다. ② A의 경험과 사람과의 유사성은 B에서 사람의 몸에 대한 추론으로 확장된다. ③ B에서 확장된 사고는 다시 C에서 나라의 정치 영역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④ A → B → C의 과정을 통해 인식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 14 ㉠은 ㉡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에 적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해결책이 제시되는 부분이 아니다. ② ㉠과 ㉡은 서로 유사한 견해가 담겨 있다. ③ ㉠과 ㉡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 ⑤ ㉡의 깨달음이 ㉠으로 확장되고 글쓴이는 이를 사람의 몸과 나라에 적용한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88쪽

- 01 ㉠: 선의, ㉡: 태도 02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03 ㉡은 타인의 선의를 믿는 세상을 의미한다.

- 01 <경험 1>은 글쓴이가 자신이 다니는 한의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타인의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경험 2>는 조카가 선생님과 대화한 내용을 전해들음으로써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깨달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02 <보기>의 ‘뿌리’는 흔들리는 갈대에 새순을 돋게 하는 힘으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구절을 이 글에서 찾으면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다.

Plus <보기> 상한 영혼을 위하여_고정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긍정적
주제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촉구
해제	청유형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여 고통과 대면하고 이를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03 ㉠은 타인의 선의를 믿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8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04 글쓴이는 선의가 드문 일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이를 자조하고 있지는 않다.

- 10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일상을 보는 예리한 눈

01. 투표를 안 해도 될까_손혜정

기출 심전 문제

본문 094~099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①
0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④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② 19 ② 20 ② 21 ③

- 01 설득을 목적으로 하여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생각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⑤ 서사 갈래 및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 02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후보가 없을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로 볼 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브라질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그러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프랑스 기권당에서는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임을 주장했다. ③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퍼센트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와,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여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튀니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기권한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③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브라질 시민들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로 볼 때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기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함으로써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진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바뀐 내용이다. ④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져서 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지, 정부와 정치인들의 권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⑤ 투표에 기권하면 결국 투표를 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투표에서 기권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니다.

- 04 [A]는 주장하는 글의 서론에 해당하며,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브라질 시민들의 사례를 통해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등장한 배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브라질의 의무 투표제가 폐지됐을 때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으나, [A]는 서론이므로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④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서론이 아닌 본론에서 제기될 내용이며, 전개될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⑤ 브라질의 설문 조사 결과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브라질 시민들의 사례에 제시된 것으로 문제의식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 05 ㉠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즉, ㉠은 예상 반론에 해당하므로 글쓴이의 반박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④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③, ⑤ 기권은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권을 하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될 수 있다.

- 06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장’에 해당한다. ②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에 해당한다. ③ ‘2022년 12월, 튀니지 총선 투표율이 11.2퍼센트에 그치면서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에 해당한다. ④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한 것이다.

- 07 말려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임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제시하여,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② 미국의 말려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고 하며,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그들의 의도와 바람을 파악하고 있다. ⑤ 소재목인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해당한다.

- 08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로 볼 때, 글쓴이가 투표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에서 알 수 있다. ③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려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에서 알 수 있다.

- 09 ㉠과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에 해당하고,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에 해당한다.

- 10 글쓴이는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투표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은 글쓴이가 ㉠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은 투표를 해도 사회가 변화하거나 자신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11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는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말려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보기> 역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기>에서도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 ⑤ 1920년대에 성별과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은 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확장할 수 있었던 사례를 추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12 ㉠은 ‘값이나 비을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의 의미로, ㉡의 ‘높다’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 ②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③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습도, 압력 따위가 기준치보다 위에 있다.

- 13 <보기>에서는 ‘기권 표’가 투표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의사 표시를 하는 ‘무효표’와 다르다고 보았다.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무효표’는 투표에 관심은 있으나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뽑는다는 의미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한 결과이다. 즉, 뽑을 사람이 없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반면 ‘기권 표’는 투표에 관심이 없어 투표 자체를 안 한 것이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 ② 공직 선거법에서 ‘무효표’의 상황을 자세히 제시한 것은, ‘무효표’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투표는 했으나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이다. ③ 이 글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기권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무효표’가 아닌 ‘기권 표’를 선호할 것이다. ⑤ <보기>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관심 없는 ‘기권 표’보다는 ‘무효표’를 던지는 이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 공약을 내걸 것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정치권은 ‘기권 표’가 아닌 ‘무효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 14 글쓴이의 주장은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투표를 실행하자.’로, 투표를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밝히며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당들이 내놓은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는 한 표의 가치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②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거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나 정당들의 공약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장과 반대되는 실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15 우리나라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66.5퍼센트임은 밝히고 있지만, 총선의 투표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를 통해, 18세부터 투표가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③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를 통해,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④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간 운영,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16 [A]에서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 정당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 표의 가치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투표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현 가능한 공약을 통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당들이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것을 통해 한 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을 뿐,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당들이 내세운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은 이미 실질적인 내용들이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당들의 공약 실천을 확인하는 제도 마련과는 관련이 없다.

- 17 이 글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투표 외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로 볼 때 적절하다. ②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다니, 투표의 힘이 참 놀랍다.'로 볼 때 적절하다. ④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다.'로 볼 때 적절하다. ⑤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로 볼 때 적절하다.

- 18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투표를 통해 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면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치인들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③ 한 표의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음을 언급했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의식하게 된 것은 아니다. ④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니다. 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정치권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 것은 아니다.

- 19 [B]는 주장하는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주장하는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주장을 요약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주장하는 글의 본론의 역할이다. ③ 주장하는 글의 서론의 역할이다.

- 20 ㉠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다.'를 의미하므로, '주의 깊게 살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은 '실제로 시행되다.'를 의미하므로 '실제로 행해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은 '귀를 기울여 듣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은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특별히 염두에 두다.'를 의미하므로 '특별히 마음속에 두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은 '모양이나 규모 따위가 더 크게 되다.'를 의

미하므로 적절하다.

- 21 <보기>에서 노동당은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당이 불평등하게 차별받는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노동당은 선거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보수당이나 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선거 연령을 낮추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각 정당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고 했다. <보기>에서 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 연령을 더 낮추면 정당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다. ④ 보수당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노동당의 공약을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⑤ □□□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고려하여 선거 연령을 조정해야 하는데 노동당에서는 그러한 고려 없이 투표 연령만 바꾸고 싶어 함을 지적하고 있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00~103쪽	
01 ①	02 ①	03 ③	04 ⑤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②	10 ⑤	11 ①	12 ①

- 01 (가)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사실과 함께, 브라질 시민들에게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의무 투표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에서 알 수 있다. ③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간 운영,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에서 알 수 있다. ④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후보가 없을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에서 알 수 있다.

- 02 (가)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브라질 시민에게 의무 투표제가 폐지됐을 때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설문 조사를 시행했을 때 57퍼센트가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을 뿐,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나)에 따르면,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각 정당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③ (나)에 따르면, 표 한 장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의식하여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④ (다)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⑤ 글쓴이는 (다)에서 투표를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03 ㉢은 참인 전제를 근거로 결론을 증명하는 연역 논증의 예에 해당한다. 연역 논증의 전제는 결론을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뒷받침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인 귀납 논증의 예에 해당한다. 귀납 논증에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전제는

개연적으로 결론을 지지하지만, 이를 통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04 ㉔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을 의미한다. ㉔이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씌.'의 뜻으로 쓰이는 예로는 '약물 남용', '외국어 남용'을 들 수 있다.

05 (나)의 주장에 대한 이유로, 투표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투표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것임을 들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는 투표의 가치를 깨닫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②, ④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주관적 요인)로 적절하다. ⑤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객관적 자료)로 적절하다.

06 ⑤는 이 글이 아닌 <보기>의 글쓴이의 생각에 가깝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글쓴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기>의 글쓴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최악 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투표라고 생각한다. ④ <보기>의 글쓴이는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뽑은 차악의 후보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유권자가 선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주관적인 요인이고,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오답 해설 ①~④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08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법과 제도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에서 알 수 있다.

09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말이 글쓴이의 의견인지 전문가의 견해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말의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권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정부는 투표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했으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③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어느 나라에서 투표 기권을 인정하는지 밝힌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④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고 했으므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⑤ 2022년 12월에 치러진 튀니지의 총선 투표율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출처를 밝힌다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10 글의 흐름상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기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② 투표의 효용과 가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③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것을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④ 이미 (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11 ㉔는 '비교가 되는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므로,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를 뜻하는 '구별(區別)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가 몇 개로 갈리어 나뉜다. ③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 ④ 어떤 사실들이 쌓여 올려져 만들어지다. /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가 닳아져 세워지다. ⑤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다.

12 ㉔가 기권하겠다는 것은 결국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㉔에게는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므로, 투표용지에 기권 표기 칸을 만들어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으므로, 투표에서 기권하면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③ 글쓴이는 투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므로, 기권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④ 투표에 기권하는 것이 권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투표에 기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권을 권리로서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 ⑤ 투표 참여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일수록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줄인다고 했다. 하지만 투표에 기권한다면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4~105쪽

01 ㉔: 구체적, 개별적, ㉔: 일반적 **02** (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다):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03**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확장한 예를 추가하였다. **04**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으므로, 투표에서 기권하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될 수 있다.

01 이 글은 여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귀납이 사용되었다.

02 (가)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나)는 투표로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 (다)는 투표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03 (나)에는 없던 1920년대 성별과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를 추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4 ㉔ 뒤에 예상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4 논증을 재구성할 때는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 추가할 수 있다.
- 08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권은 법이나 제도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 11 글쓴이는 예상 반론에 대해,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 13 글쓴이는 투표 한 번으로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1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 글쓴이는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02. 매체가 비추는 세계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0~113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③
09 ⑤

- 01 작업반장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더 빨리 일하라며 চাল리를 다고 치는데, ㉠에서 작업반장이 고생하는 চাল리를 걱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해설** ① ㉠과 ㉡에서 사장이 쉬려는 চাল리에게 고향을 치거나 관리자에게 작업 속도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④ ㉢에서 চাল리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에서 চাল리가 기계 안에서 나사를 조이는 것은, 점점 기계화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에서 চাল리가 동그란 것만 보면 조이려고 하는 것은 기계화된 인간이 보이는 이상 증세라 할 수 있다.
- 02 혼란스러운 산업 사회 속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산업화 시대에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보기>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아니다. ③ চাল리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험에 처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아니다. ④ 이 영화와는 관련이 없다.
- 03 무성 영화로, 내레이션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해설** ①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③, ④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기계 시대의 인간 소외를 그리고 있다. ⑤ 이 영화의 주제에 해당한다.
- 04 전문가 인터뷰는 이에스지(ESG) 성과 지표의 등장으로 인해 어느 기업이 더 지속가능성이 높을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이에스지(ESG)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기자의 세 번째 보도("일풍처럼 변진 이에스지(ESG). ~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에서 이에스지(ESG)가 등장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에스지(ESG)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과 마케팅 수단이라는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일회용 컵을 없앤 커피 매장, 의류 업체의 옷 수선 서비스, 라벨 없는 생수병, 빨대를 없앤 음료수 등 이에스지(ESG) 경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에스지(ESG) 문제를 환경 전문 기자의 보도로 전달하고 있다.
- 05 이 뉴스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고려하여 기업이 모범적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이에스지(ESG)를 그린 워싱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아니다. ②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아니다. ③ 기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아니다. ④ 이에스지(ESG)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06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의 대형 연기금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였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기업별 이에스(ESG) 활동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의 대형 연기금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였습니다.”라는 기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요즘에는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이에스지(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죠.”라는 진행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③ “이후에 환경 문제 해법을 찾아 달라는 유엔(UN)의 요청에 따라서 4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라는 기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일회용 컵을 없앤 커피 매장, 의류 업체의 옷 수선 서비스, 라벨 없는 생수병, 빨대를 없앤 음료수 등이 이에스지(ESG) 경영 사례에 해당한다.

07 (가)와 (나)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음을 밝히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입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④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08 (다)의 첫 번째 출연자의 발언은 남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색깔을 표현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색깔을 분화해서 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주로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남한 사람과 달리 북한 사람은 주로 직접 화법을 사용한다. ② 북한 사람은 색을 표현할 때 ‘검은색, 흰색’과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한 사람은 ‘블랙, 화이트, 핑크, 아이보리, 카키’처럼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한다. ④ 남한과 북한은 어휘나 화법 면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⑤ 남한 사람들은 주로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돌려 말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주로 직접 화법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도 직설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대화할 때 서로 진심을 전달하려다가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09 ㉠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을 위해 한국인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14~117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⑤ 07 ③ 08 ④

09 ④

01 (가)는 영화, (나)는 뉴스이다. 영화와 뉴스 모두 같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뉴스인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인쇄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⑤ 디지털 통신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는 산업화로 인해 기계화되고 획일화되어 가는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가)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를 다그치는 사장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보여 주려는 것은 아니다.

03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 기업이 더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에스지(ESG) 성과 지표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에스(ESG) 경영 사례로 제시된 커피 매장의 다회용 컵, 의류 업체의 옷 수선 서비스, 라벨 없는 생수병, 빨대를 없앤 음료수 등은 모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의 배경에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커피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쓰자 고객이 이에 동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요즘에는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이에스지(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죠.”라는 진행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친환경 등을 앞세워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04 ㉠은 다회용 컵의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기>는 다회용 컵이 그런 위상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과 <보기>가 모두 그런 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은 친환경성에 주목하여 다회용 컵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보기>는 부정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④ ㉠은 다회용 컵을 실제로 사용하는 커피 매장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⑤ <보기>는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05 영상 설명란의 정보를 살펴보면 영상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석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제목과 섬네일을 보고 개인 방송이 어떤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지, 해당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다. ③ 섬네일에 사용된 이미지와 자막의 의도,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촬영을 할 때 대상을 찍는 카메라의 높이나 각도에도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을 분석해야 한다. ⑤ 영상은 이미지, 소리, 자막, 배경 음악 등을 활용하여 제작되는데, 이는 모두 영상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06 한글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다양한 언어 공동체와 소통하며 살고 있는 시대에 가급적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②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언어 공동체와 소통하며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의 수단으로서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 ③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언어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④ 언어 공동체의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기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07 <보기>의 어린이가 두 개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으나, 외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구사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양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② <보기>의 어린이가 말을 배우는 데에 있어 또래보다 늦다는 것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문제를 알 수 있다. ④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08 남북한의 말이 이질화되어 서로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해 남북한이 서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이 이념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② 남북한이 서로 다른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언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③ 남북한의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달라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⑤ 문화의 발전 속도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 차

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 09 <보기>는 외국에서 유입된 동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름을 보여 준다. 외국에서 유입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대상의 이름을 자체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의 한자어 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남북한의 외래어 명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남한과 자체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북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영어식과 러시아식 발음을 기준으로 외래어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남북한 언어의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⑤ 남북한의 두음 법칙 적용과 관련한 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18쪽

- 01 기계적 02 지속가능 03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04 • 두음 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등 서로 다른 맞춤법을 통일한다. •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어휘는 협의를 통해 통합한다. • 남북한이 협의하여 정한 새 맞춤법과 어휘를 널리 보급한다.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진다.
- 01 <모던 타임즈>는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산업화 시대에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과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 02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제품과 '이에스지(ESG) 경영'이 등장하게 되었다.
- 03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면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04 남북한의 언어는 어휘, 문법, 맞춤법 등에서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1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05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해 다룬 뉴스는 '이에스지(ESG)'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09 남북한의 언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화되고 있는데, 이질화가 계속되면 동질성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10 남한에서는 주로 간접 화법을, 북한에서는 주로 직접 화법을 사용한다.

4

빛나는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24~129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①
09 ②	10 ③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③	16 ⑤
17 ①	18 ①	19 ④	20 ④	21 ②	22 ①	23 ⑤	24 ⑤
25 ②	26 ③	27 ④	28 ①	29 ④	30 ③	31 ①	32 ③
33 ③	34 ③	35 ①	36 ③	37 ①			

- 01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거센소리되기 등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음운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음운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④ 음운 변동은 발음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⑤ 음운 탈락과 음운 축약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02 음운 축약이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이에 해당한다. '뫼'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 단어로, 음절 끝의 겹받침 'ㄲ' 중 'ㅅ'이 탈락하여 [목]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는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탈락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② '숯'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른 음운 변동이 나타난 단어로, 음절 끝의 'ㅍ'이 'ㅂ'으로 바뀌어 [숯]으로 발음된다. ③ '말형'은 거센소리되기(음운 축약)가 나타난 단어로,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미형]으로 발음된다. ④ '신랄'은 유음화(음운 교체)가 나타난 단어로, 유음 'ㄹ' 앞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어 [실랄]로 발음된다. ⑤ '술아불'은 'ㄴ' 첨가(음운 첨가)가 나타난 단어로, 합성어를 이루는 앞말 '술'과 뒷말 '이불'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술니불]로 발음된다.

- 03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이 중 'ㄱ, ㄷ, ㅂ'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이때 'ㄱ'은 'ㄱ'으로, 'ㄷ'은 'ㄷ'으로, 'ㅂ'은 'ㅂ'으로, 'ㄴ'은 'ㄴ'으로, 'ㄹ'은 'ㄹ'으로, 'ㅁ'은 'ㅁ'으로, 'ㅇ'은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음운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으로, 'ㄴ' 첨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더라도 음운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③ '꽃 위[꼬위]'와 같이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에는 '발에[바테]'와 같이 연음된다.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04 '발에[바테]'는 음절 끝의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경우로, 'ㅌ'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연음되었을 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ㄱ’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②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ㄱ’으로, ‘ㅅ’이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④ 자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⑤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난 뒤 연음되어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갔다.

Plus <참고> 연음

연음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음. [예 꽃이[꼬치], 밖에[바께], 술에[소테]]
----	--

- 05 실질 형태소란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이다. ‘옆얼굴’은 ‘옆’의 자음 ‘ㅍ’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얼굴’이 이어져 ‘ㅍ’이 ‘ㅂ’으로 바뀌어 [여벌굴]로 소리 나므로, <보기>의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③ ‘무릎[무릅]’과 ‘바깥[바깰]’, ‘부엌[부억]’은 <보기> 중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찾아[차지]’는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가 결합하여 ‘자’이 그대로 연음된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음운 변동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06 ‘국물[궁물]’과 같이 비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비음화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③, ④ 비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⑤ ‘덧문[덜문 → 뎡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소리 ‘ㅅ’이 ‘ㄷ’으로 바뀐 뒤, 비음화에 의해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이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소리가 ‘ㄱ, ㄷ, ㅂ’으로 교체된 뒤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07 ‘독립’은 ‘ㄱ’ 뒤 ‘ㄹ’이 ‘ㄴ’으로 바뀌어 [독닙]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ㄴ’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동닙]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유음 앞 ‘ㄱ’이 ‘ㅇ’으로 발음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굳는’은 비음 ‘ㄴ’ 앞 ‘ㄷ’이 ‘ㄴ’으로 바뀌어 [굳는]으로 발음된다. ③ ‘심리’는 비음 ‘ㄹ’ 뒤 ‘ㄹ’이 ‘ㄴ’으로 바뀌어 [심니]로 발음된다. ④ ‘작문’은 비음 ‘ㄹ’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장문]으로 발음된다. ⑤ ‘잡목’은 비음 ‘ㄹ’ 앞 ‘ㅂ’이 ‘ㄹ’으로 바뀌어 [잠목]으로 발음된다.

- 08 ‘국내’는 비음 ‘ㄴ’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내]로, ‘식물’은 비음 ‘ㄹ’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싱물]로 발음되는 사례로,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국물’은 비음 ‘ㄹ’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민낯’은 음절 끝 ‘ㅌ’이 ‘ㄷ’으로 바뀌어 [민낫]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단어이다. ③ ‘같이’는 음절 끝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화인 ‘ㅈ’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업무’는 비음 ‘ㄹ’ 앞 ‘ㅂ’이 ‘ㄹ’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④ ‘닫는’은 비음 ‘ㄴ’ 앞 ‘ㄷ’이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칼날’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칼날]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⑤ ‘신라’와 ‘진리’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각각 [실라], [질리]로 발음되므로,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 09 ‘국민’은 비음 ‘ㄹ’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민]으로, ‘밥물’은 비음 ‘ㄹ’ 앞 ‘ㅂ’이 ‘ㄹ’으로 바뀌어 [밤물]로,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ㄴ’ 앞 ‘ㅂ’이 ‘ㄹ’으로 바뀌어 [암날]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음운 변동은 비음화이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 중 ‘앞날’을 발음할 때 나타난다. ③ 유음화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란 끝소리가 ‘ㄷ, 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ㅿ’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10 유음화는 ‘신라[실라], 칼날[칼랄]’과 같이 ‘ㄴ’이 유음 ‘ㄹ’ 앞에 있는 환경에서도, 뒤에 있는 환경에서도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유음화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② 유음화의 결과는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④ 유음화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⑤ ‘ㄹ’이 ‘ㄴ’ 뒤에 오더라도 ‘상견례[상견네], 생산량[생산양], 횡단로[횡단노]’ 등과 같이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도 있다.

Plus <참고> ‘ㄹ’의 비음화

‘ㄹ’의 비음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유음 ‘ㄹ’이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도 있음.
	‘ㄱ, ㅇ’ + ‘ㄹ’ → ‘ㄱ, ㅇ’ + [ㄴ]
	[예 종로[종노], 심리[심니]]

- 11 ‘권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켈리]로 발음된다. ‘백로[백노 → 뽕노]’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ㄹ’이 ‘ㄱ’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뀐 뒤,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⑤ ‘신라[실라], 진리[질리], 물난리[물랄리], 불나방[불라방]’은 모두 발음할 때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 12 ‘한라산’은 유음 ‘ㄹ’ 앞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할:라산]으로, ‘물놀이’는 유음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물로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한라산’과 ‘물놀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 13 ㉠의 ‘심려’는 비음 뒤 ‘ㄹ’이 ‘ㄴ’으로 바뀌어 [심녀]로, ‘앞마당’은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ㄹ’ 앞에서 ‘ㄹ’로 바뀌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의 ‘설날’과 ‘줄넘기’는 유음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각각 [설:랄], [줄럼기]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③ ㉡에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의 ‘앞마당’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지만, ㉡에는 비음화나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14 된소리되기는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다[신:파]’와 같이 단어의 원래 형태를 지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된소리되기는 음운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음운의 개수에 변함이 없다. ③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⑤ ‘물질[物質][물질]’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한편 고유어인 ‘갈대[갈때]’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뜻하는 ‘물질[물질]’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유어에서는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오더라도 된소리되기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15 ‘물질’은 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뜻하는 고유어로, 한자어와 달리 ‘ㄹ’ 뒤에 ‘ㅅ’이 오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감탄’은 용언 어간 ‘감-’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던’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감:뎌]로 발음된다. ② ‘만날 사람’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ㅅ’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만날싸람]으로 발음된다. ④ ‘국기’는 받침 ‘ㄱ’ 뒤에 ‘ㄱ’이 된소리되기로 바뀌어 [국끼]로 발음된다. ⑤ ‘어찌할 바’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ㅂ’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어찌할빠]로 발음된다.

- 16** <보기>에 따르면, 된소리되기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에 일어난다. ‘갈 때[갈때]’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된소리 ‘ㅌ’이 왔으므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 들어갈 음운 변동으로 적절하다. ② ‘각도[각또]’는 끝소리 ‘ㄱ’ 뒤에 ‘ㄷ’이 온 경우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③ ‘담대[담:때]’는 용언 어간 ‘담-’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온 경우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④ ‘발전[發:展]’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ㅅ’이 온 경우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 Plus <참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 받침 ‘ㄴ, ㄹ’을 가진 용언 어간의 피동, 사동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예 [신발을] 신기다[신기다]
- ‘ㄹ’ 받침을 가진 한자어라도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예 허허실실

- 17** 구개음화는 음운 변동 중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에 속한다.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은 음운 탈락이다.

오답 해설 ② 구개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발음에만 반영된다. ③, ④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운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자음 ‘ㄷ,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ㅍ’가 올 때 일어난다. ④ 모음 ‘ㅣ’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잇몸소리인 ‘ㄷ, ㅌ’보다 센입천장소리인 ‘ㅈ, ㅊ’과 가까우므로 더 쉽게 발음할 수 있다.

- 18** ‘홀이불’은 접두사 ‘홀-’과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홀이불]로, 다시 ‘ㄴ’ 첨가가 일어나 [홀나불]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홀니불]로 발음된다. 따라서 ‘홀이불’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굴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구지]로 발음된다. ③ ‘불’은 끝소리 ‘ㅌ’과 반모음 ‘ㅍ’이 만나 [부처]로 발음된다. ④ ‘여닫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여다지]로 발음된다. ⑤ ‘해돋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해도지]로 발음된다.

- 19**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보기>의 ‘같이’는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가치]로 발음된다. ‘끝인사’는 실질 형태소인 ‘끝’과 ‘인사’가 결합한 합성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딘사]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끝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꼬지]로 발음된다. ② ‘끝이’는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꼬치]로 발음된다. ③ ‘말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마지]로 발음된다. ⑤ ‘가을걷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가을거지]로 발음된다.

- 20**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나 어미 등이 있다. ‘이랑’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형식 형태소)일 때에는 구개음화

(㉠)가 일어나 [바치랑](㉡)으로 발음되지만, ‘이랑’이 ‘논이나 밭을 갈라 골을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뜻하는 명사일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반이랑]으로, 다시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③ ‘발’ 뒤에 오는 ‘이랑’이 조사일 때나 명사일 때 모두 비음화나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21** ㉠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속물’은 ‘ㄱ’이 비음 ‘ㅁ’을 만나 ‘ㅇ’으로 바뀌어 [송물]로 발음된다. ‘염려’는 ‘ㄹ’이 ‘ㄹ’이 아닌 다른 자음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염:녀]로 발음된다. ㉡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달란’과 ‘실내’는 각각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달란]과 [실래]로 발음된다. ㉢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땀받이’는 음절 끝 ‘ㄷ’이 모음 ‘ㅣ’와 만나 [땀바지]로 발음된다. ‘달히다’는 음절 끝 ‘ㄷ’이 ‘ㅎ’을 만나 [다티다]로, 다시 ‘ㅌ’이 모음 ‘ㅣ’와 만나 ‘ㅊ’으로 바뀌어 [다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③~⑤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22** 음운 탈락이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모음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궁민]’은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로, 비음화는 음운 교체에 속한다.

오답 해설 ② ‘담가’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담그-+-아 → 담가’와 같이 ‘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모음 ‘ㄴ’이 탈락한 사례이다. ③ ‘읽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겹받침 중 앞 자음이 탈락하여 [익따]로 발음된다. ④ ‘좋아’는 자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조아]로 발음된다. ⑤ ‘타서’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타-+-아서 → 타서’와 같이 ‘ㅏ’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 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그중 하나가 탈락한 사례이다.

Ⓢ Plus <참고> 자음 탈락

‘ㄹ’ 탈락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이 일부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풀-+-는 → 푸는, 등글-+-ㄴ → 등근
‘ㅎ’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좋-+-아 → 좋[조아], 많-+-은 → 많[만은] → 마는]

- 23** 모음 탈락은 다른 음운 변동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 ‘씨’는 ‘쓰-+-어 → 씨[씨]’와 같이 ‘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모음 ‘ㄴ’이 탈락한 사례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을꼬[을꼬], 밭지[밭:찌], 맑고[말꼬]’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③ ‘놀애[노아]’는 자음 ‘ㅎ’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24** 겹받침 ‘ㅃ’은 ‘여덟[여덟]’에서와 같이 대부분 뒤에 있는 ‘ㅂ’이 탈락하지만, ‘넙적하다[넙찌카다], 넙둥글다[넙뚱글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앞에 있는 자음 ‘ㄹ’이 탈락한다.

오답 해설 ① 겹받침 ‘ㄹ’은 보통 ‘ㄹ’이 탈락하므로, ‘굶대[굶:때]’는 올바른 발음이다. ② 겹받침 ‘ㅃ’은 앞의 자음이 탈락하므로, ‘굶대[굶:때]’는 올바른 발음이다. ③ 겹받침 ‘ㅃ’의 발음 양상으로 볼 때 ‘읽대[알:때]’는 올바른 발음이다. ④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ㅌ’이 탈락하므로, ‘할다’는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할때]로 발음된다.

Plus <참고> 겹받침 ‘ㄹ’의 탈락

겹받침 ‘ㄹ’의 탈락

겹받침 ‘ㄹ’은 보통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ㄹ’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ㄱ’이 탈락함. 따라서 ‘말다’에서는 ‘ㄹ’이 탈락하여 [막따]로 발음되지만, ‘말게’에서는 ‘ㄱ’이 탈락하여 [말게]로 발음됨.

- 25 ‘잡그-+-아 → 잡가[잡가]’는 어간 ‘잡그-’ 끝의 모음 ‘ㅡ’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모음 ‘ㅡ’가 탈락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① 자음 ‘ㄹ’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풀-+-는 → 푸는’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음 ‘ㅎ’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줄-+-아 → 줄애[조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모음 탈락 중 동음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아서 → 가서[가서]’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⑤ 모음 탈락 중 동음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건너-+-어라 → 건너래[건너래]’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26 <보기 2>의 ‘말다’, ‘말게’, ‘불다’, ‘불게’에 나타난 겹받침 ‘ㄹ’은 보통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ㄹ’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ㄱ’이 탈락한다. ‘말게’와 ‘불고’는 모두 어간 끝 ‘ㄹ’이 각각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와 ‘-고’를 만나 [말게]와 [불꼬]로 발음되므로,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말다’와 ‘불다’는 겹받침 ‘ㄹ’ 중 앞의 자음이 탈락하여 각각 [막따]와 [북따]로 발음되므로, ㉡(겹받침 중 앞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27 ‘만형’은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텝]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화’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화]로 발음된다. ② ‘축하’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된다. ③ ‘줄지’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치]로 발음된다. ⑤ ‘그럴다’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크러타]로 발음된다.

- 28 <조건 1>은 거센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고, <조건 2>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간히다’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가티다]로, 다시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가치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간히다’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차례로 일어나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놀이다’는 자음 ‘ㅎ’이 탈락하여 [노이다]로 발음된다(자음 탈락). ③ ‘막히다’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마키다]로 발음되는 단어로,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 <조건 1>만 만족한다. ④ ‘불이다’는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부치다]로 발음되는 단어로, 구개음화와 관련된 <조건 2>만 만족한다. ⑤ ‘잡히다’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자피다]로 발음되는 단어로,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 <조건 1>만 만족한다.

- 29 ㉠(굴히다 → [구티다])에서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이는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구티다] → [구치다])에서는 ‘ㅌ’이 모음 ‘ㅣ’와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 30 ‘색연필’은 ‘색’과 ‘연필’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끝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덧나 [색년필]([ㄴ] 첨가)로, 다시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생년필]([비음화])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색연필’에서는 비음화보다 ‘ㄴ’ 첨가가 먼저 일어난다. ②, ④ 유음화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색연필’에서 유음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색연필’에서 모음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 31 <보기 1>의 ㉠은 음운 탈락에 대한 설명이고, ㉡은 음운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담가’는 ‘담그-+-아 → 담가[담가]’와 같이 어간 끝의 모음 ‘ㅡ’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모음 탈락의 사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삶’은 음절 끝의 겹받침 ‘ㅃ’ 중 ‘ㄹ’이 탈락하여 [삼]으로 발음하는 자음군 단순화의 사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숨이불’은 ‘숨’과 ‘이불’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의 자음 ‘ㅃ’과 모음 ‘ㅣ’로 시작하는 뒷말이 결합하면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숨:니불]로 발음되는 ‘ㄴ’ 첨가의 사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어근 ‘여름’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앞말의 자음 ‘ㄴ’과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뒷말이 결합하면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한너름]으로 발음되는 ‘ㄴ’ 첨가의 사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는 ‘담가’와 ‘삶’이, ㉡의 사례로는 ‘숨이불’과 ‘한여름’이 적절하다.

- 32 ‘묻히다’는 거센소리되기(㉠+ㅎ → ㅌ)가 일어나 [무티다]로, 다시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다]로 발음된다. ㉢(된소리되기)은 ‘묻히다’의 음운 변동과 관련 없다.

오답 해설 ① ‘업무’는 ‘ㅃ’이 뒤에 이어지는 비음 ‘ㅁ’을 만나 ‘ㅃ’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이 일어난 사례이다. ② ‘칼날’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칼날]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이 일어난 사례이다. ㉣ 한자어 ‘갈등(葛藤)’은 받침 ‘ㄹ’ 뒤에 ‘ㄷ’이 이어져 [갈등]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이 일어난 사례이다. ⑤ ㉠~㉣은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 33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독도’와 ‘박달재’는 ‘ㄷ’ 뒤에서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독독], [박달재]로 발음된다. ‘을숙도(乙淑島)’는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서 예사소리 ‘ㅌ’이 된소리로, ‘ㄷ’ 뒤에서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을쑤독]로 발음된다. ㉡의 단어들 중 한자어의 ‘ㄹ’ 받침 뒤의 ‘ㅌ’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을숙도’뿐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평한류[평할류]’, ‘대관령[대:팔령]’, ‘한라산[할라산]’은 모두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낙화암[나과암]’, ‘전곡항[전고항]’은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집현전[지편전]’은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소리 난다. ④ ㉣은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국망봉[궁망봉]’과 ‘백마강[백마강]’은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죽녹원[중녹원]’은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⑤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 비음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34 넓죽한: [넙죽한](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 탈락) → [넙쭈한](된소리되기) → [넙쭈칸](ㄱ+ㅎ → ㅋ 거센소리되기)

오답 해설 ① 밥물[밤물]: ‘ㅃ’은 마찰음이 아니라 파열음이다. ‘ㅃ’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뀐 비음화이다. ② 못만: [올만](음절의 끝소리 규칙) → [온만](비음화). 완전 동화가 아니라 불완전 동화이다. ④ 물약: [물낙]([ㄴ] 첨가) → [물락](유음화) ⑤ 예뻐서: 예쁘-+-어서 → 예뻐서. ‘ㄴ’이 아니라 ‘ㄷ’가 탈락하였다.

Plus <참고>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

음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음운을 동화주, 영향을 받는 음운을 피동화주라고 하는데, ‘담넌[단넌]’, ‘법문[法門]’에서와 같이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완전히 일치되게 변하는 것을 완전 동화라 하고, ‘먹는[멍는]’, ‘국물[궁물]’ 등에서와 같이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데 그칠 때 이를 부분 동화 또는 불완전 동화라 함.

35 '막내'는 비음화가 일어나 [망내]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음운 변동 전후의 음운 개수도 5개로 달라지지 않는다. '축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한여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한편 '건너라'는 '건너-+-어라 → 건너라[건:너라]'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담가'는 '담그-+-아 → 담가[담가]'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푸는[解]'은 '풀-+-는 → 푸는[푸는]'에서 자음 'ㄹ'이 탈락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보기>의 분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이다.

오답 해설 ② 음운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달라진 것은 '축하', '한여름', '건너라', '담가', '푸는'이다. ③ 모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은 '한여름', '건너라', '담가'이다. ④ 음운 변동 결과 인접한 두 음운이 같아진 것은 '한여름'뿐이다. ⑤ <보기>의 단어 모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다.

36 '얹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압날]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압날]로 발음되므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국화'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화]로 발음되므로,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음운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ㄱ' 뒤에 'ㅂ'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뽵]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넋'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겹받침 중 'ㅅ'이 탈락하여 [넉]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② '신라'와 '난리'는 모두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각각 [실라]와 [발리]로 발음되므로, 두 단어 모두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④ '잠목'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잠뽵]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썩'은 어간 '쓰-'와 어미 '-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끝 모음 'ㄱ'이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사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⑤ '맨입'은 접두사 '맨-'과 어근 '입'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앞말의 자음과 뒷말의 모음 'ㅣ'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신다'는 용언 어간 받침 'ㄴ'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이어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신타]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37 • 자음 탈락: ㉠ 쌓으-+-니 → [싸으니](‘ㅎ’ 탈락), ㉡ 말+소 → 마소(‘ㄹ’ 탈락)
• 자음 축약: ㉢ 싫-+-다 → [실타](‘ㅎ’과 ‘ㄷ’이 합쳐져서 ‘ㅌ’으로 축약), ㉣ 앉-+-히-+-고 → [안치고](‘ㅅ’과 ‘ㅎ’이 합쳐져서 ‘ㅈ’으로 축약)
• 모음 탈락: ㉤ 푸-+-어 → 퍼(모음 ‘ㅜ’ 탈락), ㉥ 나서-+-어 → 나서(동음 탈락으로 모음 ‘ㅣ’ 탈락)

심화 복합 문제		문항 130~135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9 ⑤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5 ①	16 ③	17 ④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④	23 ⑤	24 ③	25 ①											

01 '굳히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구티다]가 된 후,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구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미달이'는 'ㄷ'이 'ㅌ'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이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빨갈다'는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빨가타]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술이불'은 'ㄴ'이 첨가되어 [술니불]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와 축약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⑤ '잡히다'는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자피다]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02 '중력'은 유음화가 일어나 [중녁]으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칼날' 역시 유음화가 일어나 [칼날]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며, '툽밥'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툽뽵]으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중력', '칼날', '툽밥'은 ㉠에 해당한다. '먹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멩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집념' 역시 비음화가 일어나 [집념]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먹물', '집념'은 ㉡에 해당한다.

03 ㉠(뎨입)은 '뎨-'과 '입'이 결합하면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쌍아)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입학)은 'ㅂ'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나고, ㉣(칼날)은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선지는 ①이다.

04 '독서[독써]'는 된소리되기(음운 교체)가 일어나 'ㅅ'이 'ㅆ'으로 교체되어 음운 개수에 변동이 없고, [써]는 자음 'ㅆ'과 모음 'ㅣ'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오답 해설 ① '농인[노인]'은 'ㅎ' 탈락(음운 탈락)이 일어나 음운 한 개가 줄어들며, [노]는 자음 'ㄴ'과 모음 'ㅛ'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②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음운 첨가)가 일어나 음운 한 개가 늘어나며, [녀]는 자음 'ㄴ'과 모음 'ㅣ'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③ '일기[일끼]'는 자음군 단순화(음운 탈락)가 일어나 음운 한 개가 줄어들며, [일]은 모음 'ㅣ'와 자음 'ㄹ'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⑤ '맞는[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음운 개수에 변동이 없고, [만]은 자음 'ㅁ'과 모음 'ㅏ', 자음 'ㄴ'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05 '볼놀이'는 ㉠(‘ㄹ’의 뒤에서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경우)이 적용되어 [볼로리]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신라'는 ㉠(‘ㄹ’의 앞에서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경우)이 적용되어 [실라]로 발음된다. ② '칼날'은 ㉡이 적용되어 [칼날]로 발음된다. ③ '생신량'은 ㉢(‘ㄴ’의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 적용되어 [생신량]으로 발음된다. ④ '물난리'는 ㉠과 ㉡이 모두 적용되어 [물랄리]로 발음된다.

06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끝인사'의 '인사'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끝인사'는 [쑈단사]로 발음된다. '곧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와 어미 등이 있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곧이’는 [고지]㉠로 발음된다. ‘곧이어’의 ‘이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된다.

- 07** ‘해맑다’를 발음할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겹받침 ‘ㅍ’에서 ‘ㄹ’이 탈락(해막다)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ㄷ’이 ‘ㅌ’으로 교체(해막따)되므로, 음운이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① ‘살살이’를 발음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ㄷ’으로 교체(살살이)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ㅌ’이 ‘ㅌ’으로 교체(살살이)되며, ‘ㅌ’이 ‘ㄷ’ 앞에서 ‘ㄷ’으로 교체(살살이)되므로, 음운 개수는 7개로 동일하다. ② ‘넌피다’를 발음할 때에는 ‘ㅌ’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넌피다)되어 음운이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③ ‘교육열’을 발음할 때에는 ‘ㄴ’이 첨가(교육열)되고, 비음화에 따라 ‘ㄱ’이 ‘ㅇ’으로 교체(교육열)되므로, 음운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⑤ ‘국화꽃’을 발음할 때에는 ‘ㄱ’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ㄱ’으로 축약(구화꽃)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ㄷ’으로 교체(구화꽃)되므로, 음운이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 08** ‘국밥[국뽕]’은 음절 끝 ‘ㄱ’ 뒤에 ‘ㅍ’이 와서 ‘ㅍ’이 ‘ㅂ’으로 교체된 것으로,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는 각각 6개로 같다. ‘굳히다[구치다]’는 ‘ㄷ’이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된 후 ‘ㄷ’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으로 교체된 것으로,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급행열차[그행열차]’는 ‘ㅍ’이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고 ‘열차’에 ‘ㄴ’ 첨가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는 10개로 각각 같다.

오답 해설 ⑤ ‘국밥[국뽕]’, ‘굳히다[구치다]’, ‘급행열차[그행열차]’는 모두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09** ‘눈요기’는 ‘ㄴ’이 첨가되어 [눈노기]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곶’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거들]로 발음된다. ② ‘달하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어 [다타다]로 먼저 바뀐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다치다]로 발음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아니라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다. ③ ‘밖’이 [박]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것이지만, ‘달’이 [닥]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 ‘ㄱ’만 발음되기 때문이다. ④ ‘할다’는 먼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ㅌ’이 탈락하여 [할다]가 된 뒤 된소리되기에 의해 [할따]로 발음되는 것이다.

- 10** ㉠의 ‘난로[날로]’는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뀌며, ‘ㄴ’은 잇몸소리이자 비음이고 ‘ㄹ’은 잇몸소리이자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비음 → 유음)만 바뀐다. ㉡의 ‘툼날[툼날]’은 뒤의 음운 ‘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ㅂ’이 ‘ㄴ’으로 바뀌며, ‘ㅂ’은 입술소리이자 파열음이고 ‘ㄴ’은 입술소리이자 비음이므로, 역시 조음 방법(파열음 → 비음)만 바뀐다.

오답 해설 ㉢의 ‘말이[마지]’는 뒤의 음운 ‘ㄷ’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ㄷ’이 ‘ㄷ’으로 바뀌며, ‘ㄷ’은 잇몸소리이자 파열음, ‘ㄷ’은 선입천정소리이자 파열음이므로, 조음 방법과 위치가 모두 바뀐다. ㉣의 ‘실내[실래]’는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뒤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뀌며, ‘ㄴ’은 잇몸소리이자 비음이고 ‘ㄹ’은 잇몸소리이자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비음 → 유음)만 바뀐다.

- 11** ‘팔뺑[판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맏던[만틴]’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애뜰한’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애뜰한]으로, 다시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애트탄]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낫설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뀌어 [낫설고]로,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ㅌ’이 ‘ㅌ’으로 바뀌어 [낫설고]로 발음된다. ② ‘뽕더라’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노터라]로 발음된다. ③ ‘맞는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뀌어 [만는지]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ㄴ’으로 바뀌어 [만는지]로 발음된다. ④ ‘먹히는’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ㄱ’과 ‘ㅎ’이 ‘ㄱ’으로 축약되어 [머키는]로 발음된다.

- 12** <보기>에 따르면 ㉠에는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가, ㉡에는 비음화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웃땀시[온땀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ㄷ), 비음화(ㄷ → ㄴ), 된소리되기(ㅌ → ㅌ)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다. ‘꽃말[곤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ㄷ), 비음화(ㄷ → ㄴ)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뽕개[뽕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ㅌ), 된소리되기(ㄱ → ㄱ)는 일어나지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묵넙[묵넙]’은 비음화(ㄱ → ㅇ)는 일어나고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③ ‘부엌문’과 ‘얹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각각 [부엌문]과 [얹날]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부엌문]과 [얹날]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음화만 일어나고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에 해당한다. ④ ‘광안리[광일리]’는 유음화(ㄴ → ㄹ)만 일어날 뿐 비음화와 된소리되기 모두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권력가[결력가]’는 유음화(ㄴ → ㄹ), 된소리되기(ㄱ → ㄱ)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긱살[긱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ㄷ), 된소리되기(ㅌ → ㅌ), 비음화(ㄷ → ㅇ)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습득물[습득물]’은 된소리되기(ㄷ → ㅌ), 비음화(ㄱ → ㅇ)가 모두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13** ㉠의 ‘막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막지]로,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막찌]로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과 음운 교체가 일어난 사례이다. 또한 음운 개수는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의 ‘막힘없다[마키몹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막힘’이 [마킴]으로,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없다’가 [업따]로 발음되므로, 음운 축약, 음운 탈락, 음운 교체가 일어난 사례이다. 또한 음운 개수는 11개에서 9개로 줄었다. 따라서 ㉠과 ㉡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의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따라 [꼴잎]으로, 다시 ‘ㄴ’ 첨가가 일어나 [꼴닙]으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꼴닙]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와 음운 첨가가 일어난 사례이다. 또한 음운 개수는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 14** ‘종고[조:코]’에서는 ‘ㅎ’과 ‘ㄱ’이 결합하여 ‘ㄱ’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당아[다아]’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썰넬[썰넬]’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비음 ‘ㄴ’의 영향으로 다시 ‘ㄴ’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넌’은 [넌]은 음절의 끝소리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비음 ‘ㄴ’의 영향으로 다시 ‘ㄴ’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줄헛조핀’은 ‘ㅎ’과 ‘ㅍ’이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하지만 ‘달지[달지]’는 ‘ㅎ’과 ‘ㄷ’이 결합하여 ‘ㄷ’으로 축약되었으므로 ㉡가 아닌 ㉡의 예로 적절하다.

- 15** ‘값만’은 ‘ㅌ’ 중 ‘ㅌ’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ㅌ’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감만]으로 발음된다. ‘흙파’는 ‘ㅌ’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ㄱ’이 ‘ㄱ’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흑파]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잃는’은 자음군 단순화(ㅌ → ㄹ)와 유음화(ㄴ → ㄹ)가 적용되어

[일른]으로 발음되며, ‘을고’는 자음군 단순화(ㄱ → ㅍ)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ㅍ → ㅂ), 원소리되기(ㄱ → ㅍ)가 적용되어 [읍고]로 발음된다. ③ ‘덜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ㅍ → ㅂ)과 원소리되기(ㅈ → ㅉ)가 적용되어 [덜찌]로 발음되며, ‘뽕혀’는 거센소리되기(ㄱ + ㅎ → ㅋ)가 일어나 [뽕켜]로 발음된다. ④ ‘뽕는’은 자음군 단순화(ㄱ → ㅍ)와 비음화(ㅂ → ㅃ)가 일어나 ㉠ [뽕는]으로 발음되며, ‘뽕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원소리되기(ㄷ → ㅌ)가 일어나 [뽕따]로 발음된다. ⑤ ‘뽕어’는 ‘ㅁ’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뽕머]로 발음되며, ‘뽕지’는 자음군 단순화(ㅈ → ㅉ)와 원소리되기(ㅈ → ㅉ)가 일어나 ㉡ [뽕찌]로 발음된다.

- 16 ㄱ의 ‘목화[모화]’는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이 되는 음운 축약이 1회 나타난다. ㄴ의 ‘얕다[안파]’는 겹받침 ‘ㄴ’의 ‘ㅅ’이 탈락하는 음운 탈락 1회와 ‘ㄷ’이 ‘ㅌ’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가 1회 나타난다. ㄷ의 ‘땀입[땀입]’은 ‘ㄴ’이 새로 첨가되는 음운 첨가가 1회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ㄱ에만 ‘예’라고 표시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ㄱ~ㄷ순으로 ‘x, o, x’로 표시해야 한다. ④ ㄱ~ㄷ순으로 ‘x, x, o’로 표시해야 한다.

- 17 ‘땀입’은 접두사 ‘땀-’과 어근 ‘입’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땀입]으로 발음된다.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어근 ‘여름’이 이어진 파생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한여름]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물’은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출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출이불]로, 다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출니불]로, 다시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훈니불]로 발음된다. ② ‘눈물’은 음운 변동 없이 그대로 [눈물]로 발음된다. ‘햇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헛소문]으로, 다시 원소리되기(음운 교체)가 일어나 [헛쏘문]으로 발음된다. ③ ‘덧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덜신]으로, 다시 원소리되기(음운 교체)가 일어나 [덜신]으로 발음된다. ‘내복약’은 어근 ‘내복’과 ‘약’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내복약]으로, 다시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내뽕약]으로 발음된다. ⑤ ‘옹이’는 음운 변동 없이 그대로 [옹이]로 발음된다. ‘송이불’은 어근 ‘송’과 ‘이불’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송니불]로 발음된다.

- 18 ‘만형[마형]’(6개 → 5개), ‘쫄다[잘파]’(6개 → 5개), ‘색연필[생년필]’(8개 → 9개)은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만, ‘불나방[불라방]’(8개 → 8개), ‘불이다[부치다]’(6개 → 6개)는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다.

오답 해설 ① ‘쫄다[잘파]’는 자음군 단순화와 원소리되기, ‘색연필[생년필]’은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만형[마형]’은 거센소리되기, ‘불나방[불라방]’은 유음화가, ‘불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불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가, ‘색연필[생년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는데, 이는 모두 뒤 음절의 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ㅣ’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⑤ ‘불나방’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불나방[불라방]’은 유음화가 일어나 뒤 음절의 ‘ㄴ’이 ‘ㄹ’로 바뀌어 인접한 두 음운이 완전히 같아진 것이다.

- 19 ‘맑다’는 ‘맑다 → [막다] → [막따]’의 음운 변동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고 ‘ㄷ’이 ‘ㅌ’으로 교체된다. 이때 ‘ㄹ’이 탈락하므로 음운은 1개가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① ‘국밥[국뽕]’은 ‘ㅂ’이 ‘ㅃ’으로 교체되며(음운 교체), 이때 음운 개수는 변화가 없다. ③ ‘막내[망내]’는 ‘ㄱ’이 ‘ㅇ’으로 교체되며(음운 교체), 이때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④ ‘물약 → [물락] → [물락]’의 음운 변동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고(음운 첨가) ‘ㄴ’이 ‘ㄹ’로 교체된다(음운 교체). 이때 ‘ㄴ’이 첨가되므로 음운은 1개 늘어난다. ⑤ ‘뽕혀[뽕켜]’에서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된다(음운 축약). 이때 두 음운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이 되었으므로 음운은 1개 줄어든다.

- 20 ‘금행요금[그행요금]’에서는 ‘금’의 끝소리 ‘ㅂ’과 ‘행’의 첫소리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고(축약), ‘금행’과 ‘요금’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첨가).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물약[물락]’은 ‘ㄴ’이 첨가된 뒤(첨가)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교체). ② ‘을는[을는]’은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고(탈락),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뀐 뒤(교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바뀌어 발음된다(교체). ③ ‘값하다[가파다]’는 겹받침 ‘ㅃ’ 중 ‘ㅅ’이 탈락하고(탈락),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된다(축약). ⑤ ‘넙죽하다[넙쭈카다]’는 겹받침 ‘ㅃ’ 중 ‘ㄹ’이 탈락하고(탈락), 남은 ‘ㅂ’의 영향을 받아 뒤의 자음 ‘ㅈ’이 원소리 ‘ㅉ’으로 바뀐다(교체). 그리고 ‘죽’의 끝소리 ‘ㄱ’과 뒤의 자음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축약).

- 21 ‘겉멋만 → [건면만]’, ‘꽃식물 → [꼴썰물]’, ‘낮잡는 → [난잡는]’ 모두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오답 해설 ① ‘겉멋만[건면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겉’의 음절 끝 자음 ‘ㅌ’이 ‘ㄷ’으로 교체된 뒤, 뒤에 오는 ‘ㅁ’을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멋’의 음절 끝 ‘ㅌ’이 ‘ㄷ’으로 교체된 뒤, 뒤에 오는 ‘ㅁ’을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② ‘꽃식물[꼴썰물]’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의 음절 끝 자음 ‘ㅌ’이 ‘ㄷ’으로 교체된 뒤, ‘식’의 음절 끝 자음 ‘ㄱ’이 뒤에 오는 ‘ㅁ’을 만나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③ ‘낮잡는[난잡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낮’의 음절 끝 자음 ‘ㅌ’이 ‘ㄷ’으로 바뀌어 원소리되기(음운 교체)의 조건이 마련된 뒤, 다음 음절의 ‘ㅌ’이 원소리 ‘ㅉ’으로 바뀌었다. ⑤ ㉠, ㉡과 달리 ㉢의 ‘낮잡는[난잡는]’에서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ㄹ’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 22 ‘겉늬다[건늬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겉’의 ‘ㅌ’이 ‘ㄷ’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초성인 ‘ㄴ’을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밖만[방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밖’의 ‘ㅍ’이 ‘ㄱ’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초성인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② ‘꼭넙다[콩넙다]’에서는 ‘꼭’의 ‘ㄱ’이 비음화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값’의 ‘ㅃ’에서 ‘ㅅ’이 탈락한 뒤,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으로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⑤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 23 ‘버들잎[버들뉘] → 버들뉘 → 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표’이 ‘ㅂ’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ㄴ 첨가)가 한 번, 교체(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가 두 번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재있는[재민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다. ② ‘견인력[견년력]’에서는 교체(비음화)가 한 번 일어난다. ③ ‘똑같이[똑같이] → 똑가치]’에서는 교체(원소리되기, 구개음화)가 두 번 일어난다. ④ ‘겉늬다[건늬다] → 건늬다]’에서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다.

- 24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술에’는 음절의 끝소리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되어 [소테]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난로'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날로]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② ㉡은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만며느리'는 음절 끝의 자음 'ㄷ'이 'ㄹ'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만며느리]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④ ㉣은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책상'은 예사소리 'ㄱ' 뒤에서 'ㅅ'이 된소리로 바뀌어 [책상]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⑤ ㉤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피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인 'ㄷ'으로 바뀌어 [피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25 ㉠의 '실없네[시럽네]'는 'ㅍ → ㅂ'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ㅂ' → 'ㅁ'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오답 해설 ② ㉡의 '깊숙이[깁쑤기]'는 'ㅍ → ㅂ'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ㅍ' → 'ㅂ'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③ ㉢의 '짓밟지[짐밟지]'는 'ㅍ → ㅂ'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ㅍ' → 'ㅂ'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④ ㉣의 '꺾넌[경넌]'은 'ㄱ → ㄱ'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ㄱ' → 'ㅇ'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⑤ ㉤의 '밭고[밭꼬]'는 'ㅍ → ㅂ'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ㄱ' → 'ㅁ'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36~137쪽

01 ㉠ [습]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가치] / 구개음화 ㉢ [난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반꼬] / 된소리되기 **02** ㉠ 비음화 / 'ㄱ, ㄷ, ㅂ'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 유음화 /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모음 탈락 / 두 모음이 어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03** ㉠: 국물, 독도 ㉡: 꽃잎, 색연필 **04** ㉠: 합성어의 앞말 '서술'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역'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첨가됨. ㉡: 첨가된 'ㄴ'이 앞말의 받침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됨.

01 ㉠ '술'은 음절 끝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습]으로 발음된다. ㉡ '갈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ㄷ'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된다. ㉢ '냥'은 먼저 음절 끝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뒤 뒤에 있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난는]으로 발음된다. ㉣ '반꼬'는 음절 끝 'ㄷ'의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 'ㅌ'으로 바뀌어 [반꼬]로 발음된다.

02 ㉠은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국내'는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궁내]로, '식물'은 'ㄱ'이 비음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싱물]로, '달'은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업무'는 'ㅂ'이 비음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된다. ㉡은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ㄴ'이 유음 'ㄹ'을 만나 '갈날'은 [칼랄]로, '실내'는 [실래]로, '권리'는 [퀄리]로, '산림'은 [살림]으로 발음된다.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축하'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결합하여 [추카]로, '만형'은 예사소리 'ㄷ'과 'ㅎ'이 결합하여 [마형]으로, '잡혀'는 예사소리 'ㅂ'과 'ㅎ'이 결합하여 [자퍼]로, '좋지'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결합하여 [조치]로 발음된다. ㉣은 모두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들이다. '가-+-아서 → 가서'에

서는 모음 'ㅏ'가, '답그-+-아 → 답가'에서는 모음 'ㅓ'가 탈락한다.

03 '국물'은 비음 'ㄹ'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꼇입]으로, 다시 'ㄴ' 첨가가 일어나 [꼇닙]으로, 다시 비음 'ㄴ' 앞에서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된다. '독도'는 예사소리 'ㄷ'이 'ㄱ' 뒤에서 된소리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독또]로 발음된다.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로, 다시 비음 'ㄴ'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국물'과 '독도'는 음운 변동이 한 번, '꽃잎'과 '색연필'은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는 단어이다.

04 ㉠에서는 'ㄴ' 첨가가, ㉡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OX로 마무리

본문 138~1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비음화와 유음화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04 '앞날[안날 → 안날]'과 같이 한 단어 안에서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한다.

09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끝인사[쑤던사]'와 같이 끝소리 '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1 '굳히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티다]로,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치다]로 발음된다.

15 '답그-+-아 → 답가'에서는 탈락한 모음은 'ㅓ'이다.

16 겹받침 'ㅃ'은 보통 앞에 있는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ㅃ'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뒤에 있는 'ㄱ'이 탈락한다. 따라서 '맑다'는 [막다]로, '맑게'는 [말게]로 발음해야 한다.

02. 문법 요소와 어휘의 활용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42~147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②	07 ④	08 ⑤
0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⑤
17 ②	18 ①	19 ③	20 ③	21 ⑤	22 ⑤	23 ①	24 ③
25 ①	26 ⑤	27 ⑤	28 ③	29 ⑤			

- 01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실현되며,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계체 - 해라체'의 격식체와 '해요체 - 해체'의 비격식체로 구분된다. ③ 상황 맥락에 따라 높임 표현은 다르게 실현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상황이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우리말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해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 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주체의 사물이나 신체 일부를 높여 결과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표현법이다.

- 02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이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목적어로 나타난 '할머니'를 높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② 부사어로 나타난 '선생님'을 높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④ 청자인 학생들을 높여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⑤ 주어로 나타난 '선생님'을 높여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03 (나)는 부사어로 나타난 객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할아버지' 대신 '동생'이 주체가 되면 '주무시다'는 '지다'로 바뀌어야 한다. ④ '선생님' 대신 '친구'가 객체가 되면 '여쭙다'는 '묻다'로 바뀌어야 한다. ⑤ (가)에서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나)에서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04 '오다'의 주체인 '너'는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너 오라고 하셔(오라셔)'가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의 '행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아쉽지만 이 행사는 벌써 마감되었어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④ ③의 '할머니의 다리'는 간접 높임을 통해 높임을 실현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할머니께서는 아직 다리가 아프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05 ㉠은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요'를 사용하는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은 문장의 주어인 주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한 것이다. ③ ㉠은 가방을 준 사람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고 있다. ④ ㉠에 쓰인 '보다'는 객체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 어휘이다. ⑤ ㉠에 쓰인 '모시다'는 생략된 객체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 어휘이다.

- 06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

오답 해설 ①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로, 선어말 어미 '-았-/-었-' '-더-'를 쓴다. ③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로, '-겠-', '-(으)ㄹ', '-(으)ㄹ 것' 등을 쓴다. ④ 동작상은 보조 용언으로 실현되며,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완료상은 동작이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어 있다'나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된다.

- 07 '질문'을 받는 사건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지금'은 발화시이다. ② '질문'을 받는 때는 사건시이다. ③ '받겠습시다'의 '-겠-'으로 시제가 드러난다. ⑤ 강의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앞서 행해진 것이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 08 ㉠은 의미상 '이어질'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④ ㉠~㉣ 모두 적절하게 시간 표현이 쓰이고 있다.

⊕ Plus <참고> 선어말 어미 '-었-'

-었-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냄.
예 어제 공부를 하었다(했다). / 그 모습이 초라하였다(초라했다).

- 09 '그때 본 친구는 내 고향 친구이다'의 '본'은 '-(으)ㄴ'을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을 통해 미래 시제가 실현된 것이다. ② '-(으)ㄴ'을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 것이다. ④ '-(으)ㄹ 것'을 통해 미래 시제가 실현된 것이다. ⑤ '-(으)ㄴ'을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 것이다.

- 10 <보기 1>에서는 '-ㄴ-'이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내일 시상식이 열린다.'는 보편적인 사실도, 습관적인 일도, 진행의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과거의 일도 아니다. 미래의 일을 '-ㄴ-'을 통해 표현한 까닭은 예정된 미래의 의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11 '나도 최선을 다하겠어.'에 쓰인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동생은 낚시를 하러 가겠다고 한다.'의 '-겠-'이다.

오답 해설 ①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②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③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⑤ 추측을 나타낸다.

- 12 피동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라도 '-아지다/-어지다'가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찢다'는 '찢기다'로 사용되지만, '찢어지다'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피동 표현을 만드는 적절한 방법이다. ④ 피동 표현의 개념이다.

- 13 '새로운 유물을 발굴했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었다.'가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적절하게 바뀐 피동 표현이다.

- 14 '여러분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는 번역투의 문장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여러분의 제보가 큰 도움을 줍니다.'가 더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피동 접미사 '-아-'와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지다'가 함께 쓰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② 피동 접미사 '-하-'와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지다'가 함께 쓰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④ 피동 접미사 '-가-'와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지다'가 함께 쓰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⑤ 피동의 의미를 가진 '-되다'와 '-어지다'가 함께 쓰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 15 '우리 학교 운동장은 가끔 주차장으로도 이용되었다.'는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없어 쓰인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④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쓰인 피동 표현이다.

- 16 ㉠은 피동 표현이나, 행위의 주체가 이안류임을 알 수 있다. 객

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은 모두 뉴스 보도로, 객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②,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없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④ ㉢의 '어린이 다섯 명이'는 주어로, 이를 통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알 수 있다.

17 간접 인용의 경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조사 '고'를 쓴다.

오답 해설 ①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③ 간접 인용을 사용할 경우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이 바뀔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④ 인용 표현의 개념이다. ⑤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쓰고,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인다.

18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에 쓰인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이는 '라고'가 아니라 '앞 절의 일을 뒤 절의 까닭이나 근거로 들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②~④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이다. ⑤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한 직접 인용이다.

19 '친구가 나에게 "내 책 좀 반납해 줄래?"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자기 책 좀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가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적절히 바뀌었다.

20 '영서가 경호에게 "나도 같이 가고 싶어."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영서가 경호에게 자신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된다. 즉, '나'는 '경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은 직접 인용, ㉡, ㉣은 간접 인용이다. ② ㉠과 ㉢의 비교를 통해 '할게'는 '하겠다'가 됨을 알 수 있다. ④ ㉡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도 '거기'는 그대로 쓰인다. ⑤ ㉣을 직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큰따옴표 안에 선생님의 말 그대로를 인용해야 한다.

21 철학자 루소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강연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용을 충실히 구성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④ 인용 표현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2 전문어를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사용하면 소외감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전문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다. ③ 전문어는 의학, 법률, 방송, 건축, 항공 등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이다. ④ 전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23 '낭비'는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어휘이므로, (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③~⑤ (나)는 '특색', '항상하느' 등의 긍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어휘로 볼 때,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사고 도구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 쓰이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로, 전문어의 상위 개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가 많다고 하였다. ④, ⑤ 사고 도구어는 주로 한자어이고, 논리와 사고 전개

과정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25 '고구려'는 나라의 이름으로, 사고 도구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⑤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 도구어에 해당한다.

26 ㉡의 '향토적'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골답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문맥상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세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의 '복합적'은 '두 가지 이상이 합쳐 있는 것'의 뜻으로, 문맥상 ㉡은 '여러 가지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은 '서로 비슷하다.'의 뜻으로, 문맥상 '비슷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은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다.'의 뜻으로, 문맥상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하거나 반영하다.'의 의미를 지닌 '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7 ㉠은 한자어로,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의미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28 미술 작품의 보존을 위해서는 온도 18~22도, 습도 50~70퍼센트 정도에서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보존 환경은 작품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다. ② 습도가 높으면 물음 현상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낮으면 표면 박락과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집 지키는 게>는 작품 표면의 오염 때문에 보존 처리를 통해 오염을 제거하였다. ⑤ <집 지키는 게>는 작품의 형태는 안정되었으나, 표면에 오염이 있다고 하였다.

29 '표면'은 '사물의 가장 바깥쪽'을, '박락'은 '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굵히고 깎이어서 떨어짐'을 의미하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문이라면 ㉠을 '그림 바깥쪽의 벗겨짐'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48~15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01 '어머니의 선생님께 이 선물을 드리면'은 객체인 '어머니의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겠다.'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할아버지, 일어나서 진지 드세요'는 청자이자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는 청자인 '어머니'와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아버지의 키가 정말 크십니다.'는 간접 높임을 통해 '아버지의 키'를 높이고 있고(㉡), '크십니다'를 통해 생각된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는 주체인 '아버지'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02 ㄱ은 객체를 높이는 조사 '께'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청자인 '범서'를 낮추고 있는 상대 높임이 쓰인 문장이다. ③ ㄴ은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상대 높임이 쓰인 문장이다. ④ ㄴ은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이 쓰인 문장이다.
 ⑤ ㄴ은 선어말 어미 ‘-(으)사-’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생각인 ‘걱정’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간접 높임)이 쓰인 문장이다.

- 03 ㉠을 ‘영희’ 대신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꾸면 조사 ‘가’는 ‘께서’가 된다.

오답 해설 ② 부사격 조사 ‘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조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⑤ ㉠을 ‘영희’ 대신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꾸면 조사 ‘에게’는 ‘께’가 되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 04 ㉠에 쓰인 ‘잡수시다’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오답 해설 ② ㉠의 ‘-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다. ③ ㉠의 ‘-습니다’는 청자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종결 어미이다. ④ ㉠의 ‘께서’는 주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의 ‘께’는 객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다. ⑤ ㉠의 ‘마치시다’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표현으로 주체를 높이고 있지만 특수 어휘는 아니다. ㉠의 ‘드리다’는 객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특수 어휘이다.

- 05 ㉠은 ‘-(으)ㄴ 것’을 통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은 ‘지금’, ‘-ㄴ-’을 통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과거 시제가 드러나 있다. ④ ㉠은 ‘지금’, ㉠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간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가 드러나 있다.

- 06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심초은 곧 여기를 떠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이나, ‘잠시만 비켜 주시겠습니까?’에 쓰인 선어말 어미 ‘-겠-’은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의 선어말 어미 ‘-ㄴ-’은 보편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이고,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의 선어말 어미 ‘-ㄴ-’은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겠-’은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의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 07 ㄴ은 부사어 ‘곧’과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 시제인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ㄴ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가 드러난다. ③ ㄴ은 ‘곧’, ㄴ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④ ㄴ은 ‘입을’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통해, ㄴ은 ‘만든’의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시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⑤ ㄴ은 ‘내린다’의 선어말 어미 ‘-ㄴ-’, ㄴ은 ‘시작하겠습니다’의 선어말 어미 ‘-겠-’, ㄴ은 ‘먹더라’의 선어말 어미 ‘-다-’를 통해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 08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이 강조된다.

오답 해설 ②, ④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③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⑤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지다/어지다’ 또는 ‘-게 되다’를 어간에 결합함으로써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09 ㄴ의 ‘보여진다’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의 의미를 지닌 ‘-어지다’를 함께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때 ‘-어지다’는 접미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능동문의 주어인 ‘아버지가’가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부사어인 ‘아버지에게’로 바뀌었다. ② 명사 ‘파악’ 뒤에 ‘-되다’를 붙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③ ‘겪이다’는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설정하기 어렵다. ⑤ ㄴ에서는 ‘안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ㄴ에서는 ‘겪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아-’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10 ㄴ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너’를 ‘나’로 바꾸어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ㄴ은 문장 종결 표현인 ‘했구나’를 ‘했다’로 바꾼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ㄴ은 높임 표현인 ‘갔어요’를 ‘갔다’로 바꾼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ㄴ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바꾼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ㄴ은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바꾼 것이므로 적절하다.

- 11 ‘쫓-’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번역투의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다. ③ ‘반복되어’가 아니라 ‘반복하여’로 써야 한다. ④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지다’와 ‘-게 되다’가 이중으로 쓰여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⑤ 피동의 의미를 가진 ‘-되다’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쓰여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 12 ㉠의 행위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로, 행위의 주체가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 ㉠의 피동문인 ‘편지가 찢어졌다’에는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를 통해 주체를 숨기는 효과를 드러낸다. ③ ㉠의 피동문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는 신문에 ‘내 이야기’를 실은 ‘기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를 숨긴 것에 해당한다. ⑤ ㉠의 피동문 ‘추웠던 날씨가 풀렸다’는 자연 현상이므로 그 주체를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한 예이다.

- 13 ㄴ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가 된다. ㄴ과 비교하면,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대명사(‘당신’ → ‘내’, ‘제’ → ‘자기(의)’, 높임 표현(‘-시었-’ → ‘-았-’), 종결 어미(‘-습니까’ → ‘-냐’)에 변화가 생긴다. ㄴ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가 된다. ㄴ과 비교하면,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시간 표현(‘내일’ → ‘오늘’), 종결 어미(‘-바니다’ → ‘-니다’)에 변화가 생긴다.

- 14 ‘어제 선영이에게 “내일 학교에 갈 거니?”라고 메시지를 받았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 선영이에게 오늘 학교에 갈 거냐고 메시지를 받았다.’가 된다. 즉, ‘내일’이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준수가 “발표는 우리 모둠이 해 봐.”라고 제안했다.’가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서 ‘너희’가 ‘우리’로 바뀌었다. ② ‘연아가 “이 꽃 참 향기롭지.”라며 꽃다발을 건넸다.’가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서 ‘이’가 ‘그’로 바뀌었다. ③ ‘어머니께서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서 ‘내가’ ‘당신’으로, ‘하겠다’가 ‘하시겠다’로 바뀌었다. ⑤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서 “너희 반 반장 나와.”라며 화를 내셨다.’가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서 ‘너희’가 ‘우리’로 바뀌었다.

- 15 ‘좋은 결정’이라는 어휘로 볼 때 학생은 《서양 미술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어려운’, ‘부담스러웠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학생은 《서양 미술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④ ‘방대하기’, ‘자료가 풍부하고’는 모두 《서양 미술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휘이다.

- 16 ㉔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를 뜻하는 사고 도구어인 ‘난해하다’로 바꿀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㉔는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의 이름, 특징, 업적 따위를 다른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되다.’를 뜻하므로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다.’라는 의미의 ‘저명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 ㉔의 ‘삼다’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를 뜻하므로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라는 의미의 ‘명명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 ㉔는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를 뜻하므로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하다.’라는 의미의 ‘섭렵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 ㉔는 ‘다른 문화, 문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되게 하다.’를 뜻하므로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의 ‘수령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17 ㉔는 ㉔가 없어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책이다.

오답 해설 ㉔, ㉔, ㉔ ㉔는 사고 도구어 학습 도구로 보기 어렵다. 사고 도구어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데 쓰이며, 사고 과정을 정교화할 수 있다. ㉔ ㉔이 전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8 ‘그렇다면 보존 환경과 보존 처리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㉔ 보존 과학이라는 발표의 화제는 제시되었으나, 발표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㉔ 화면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 변천이 아니라 보존 처리 전후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㉔ 발표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나 당부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 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9 ㉔, ㉔는 사고 도구어로, ㉔, ㉔, ㉔는 미술 분야의 전문어로 볼 수 있다.

- 20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많다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른다면 ㉔는 ㉔와 같이 고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㉔ 고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달라졌다. ㉔ 손상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는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㉔ ‘표면 박락’을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적절하게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㉔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치면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1 학생 3은 발표에 외래어, 한자어, 외국어가 많이 쓰여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발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해도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㉔ 학생 1은 미술과 기술이 접점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㉔ 학생 2는 장 뒤뷔페의 작품이 보존 처리되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보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며 주체적으로 발표를 수용하고 있다. ㉔, ㉔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4~155쪽

- 01 ㉔: 주체 높임, ㉔: 상대 높임, ㉔ 객체 높임 02 ㉔의 시제: 현재 시제, ㉔의 동작상: 진행상 ㉔의 시제: 과거 시제, ㉔의 동작상: 완료상 03 ㉔: 발생하고 있다, ㉔: 연구되고 있다 04 ㉔: 정여리가 고래에게 먹혔다. ㉔ 오랜 시간 동안 사회가 형성됐다. ㉔: 벽화가 학생들에 의해 멋지게 그려졌다. 05 ㉔: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㉔: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㉔: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06 ㉔는 전문어이고, ㉔, ㉔, ㉔는 사고 도구어이다.

다.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가 많고, 일상적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사고 도구어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로, 주로 한자어이고,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사고 과정을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07 간직한 08 ㉔, ㉔, ㉔, ㉔

- 01 ㉔는 조사 ‘께서’와 ‘께서’를 통해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이다. ㉔는 조사 ‘요’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는 상대 높임이다. ㉔는 조사 ‘께’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이다.

- 02 ㉔는 ‘지금’을 통해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고,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㉔는 ‘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아 있다’를 통해 완료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3 물 부족 현상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발생하다’를 현재 시제와 진행상을 사용하여 써야 한다. 또한 기술이 연구되는 중이므로 ‘연구되다’ 역시 현재 시제와 진행상을 사용하여 써야 한다.

- 04 ㉔는 ‘먹-’에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먹히다’의 과거 시제 표현인 ‘먹혔다’로 써야 한다. ㉔는 ‘형성’에 ‘-되다’를 결합한 ‘형성되다’의 과거 시제 표현인 ‘형성됐다’로 써야 한다. ㉔는 ‘그리-’에 ‘-어지다’를 결합한 ‘그려지다’의 과거 시제 표현인 ‘그려졌다’로 써야 한다.

- 05 ㉔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내일’은 ‘오늘’이 된다. ㉔를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자기’는 ‘나’가 된다. ㉔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이곳’은 ‘그곳’이 된다.

- 06 ㉔는 사법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어이고, ㉔~㉔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사고 도구어이다.

- 07 ㉔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생각이나 기억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다.’라는 뜻의 ‘간직한’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08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사고 도구어는 주로 한자어가 사용된다.

OX로 마무리

본문 156~157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2 상대 높임은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 04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서’나 ‘여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07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이다.
- 10 '재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는 현재 시제의 완료상이 실현된 문장이다.
- 12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 15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숨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8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03. 마음을 잇는 대화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60~163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① 05 ③ 06 ③ 07 ④ 08 ④
09 ② 10 ③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②

- 01 (가)의 우진은 수연에게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사과하고 있으므로, 수연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수연은 사과하는 우진에게 더욱 화를 내고 있으므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의 지영은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수진의 질문에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④, ⑤ (다)의 선배는 후배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고, 후배 역시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 02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여 말함으로써 공손성의 원리를 지킬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나는 안중에도 없니?”, “너는 이제 친구도 아니야.”, “다음엔 나도 늦게 올게.”, “다음에도 그러면 진짜 화낼 거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발화로서 적절하지 않다.

- 03 예원은 새로 산 초록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을 자랑하는 준호에게 옷이 별로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찬동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리는 요령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②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관용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④ 협력의 원리 중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질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⑤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하는 관련성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 04 지호는 자신을 칭찬하는 은영의 말에 도리어 은영을 칭찬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린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고 있는 것도,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고 있지도,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고 있지도 않다.

- 05 준서의 말에 지연이 당황한 까닭은 준서가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서의 말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말을 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에 따라 고쳐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준서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질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② 준서의 말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양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④ 준서는 명료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⑤ 준서의 말은 공손성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 06 <보기 1>은 협력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 2>에서 은지는 저녁을 함께 먹자는 석준의 말에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⑤). 이와 같은 대화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나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어.”와 같이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 07 동생에게 거실을 치우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는 ‘다 놀았으면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하면 어떨까?’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① ‘미안한데’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여 준다. ② 위로의 말로 적절하다. ③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선생님께 감사의 이유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08 <보기 2>의 (나)에서 노인은 청년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는 대화를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체면을 손상하는 대화이고, (나)는 반대로 체면을 보호하는 모습이 드러난 대화이다. ② (가)에서 청년이 반발한 것은 노인이 청년의 체면을 손상하는 발화를 했기 때문이다. ③, ⑤ 체면을 손상하는 대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 09 ②는 신중하게 말하라는 과거의 담화 관습을 수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꼭 필요한 말이라도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과거의 담화 관습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말이라도 삼가야 함을 알 수 있다.

- 10 (가)에서는윗사람의 말을 들을 때 곧장 해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듣기 태도와 관련이 된다. 한편 윗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조목조목 말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홍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큰 소리로 떠들어 대거나 허튼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어른이 단속하거나 꾸짖을 때 비록 잘못이 있어도 곧장 스스로 해명해서는 안 되고, 이를 감추어 두고 있다가 한참 만에 천천히 세밀한 내용으로 조목조목 말하여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11 (나)의 시조와 설명을 통해 과거에는 우회적으로 말하는 담화 관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⑤에서는 임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으므로 우회적인 말하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조선 건국 시기 권력을 탐하는 세력을 ‘가마귀’로 빗대어 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② 조정을 ‘동량재로, 당파 싸움을 하는 상황을 ‘기운 잡’으로 빗대어 당파 싸움에 나라의 인재를 잃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③ ‘눈’이라는 고난에도 휘저 않는 ‘대’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고려 말 간신인 신돈을 ‘구름’에 빗대어 당시 조정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 12 화자는 조선 개국에 반대하며 길로 고고한 척하는 고려 유신을 백로에, 조선 개국에 참여한 관리들을 까마귀에 비유함으로써,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운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고려 유신들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검을소냐’ 등에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이는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② ‘백로야와 같이 대상을 직접 호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가마귀’, ‘백로’를 상징적인 시어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임금과 함께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는 없다. ⑤ 화자가 백로의 위선적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나, 자신도 이와 같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3 담화 관습은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된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 습관으로, 집단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담화 관습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 ② 한 언어문화권 내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적 요인에 따라 담화 관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③ 담화 관습은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현재의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화 관습이 생기기도 한다. ⑤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화 관습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되,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 14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현재의 담화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미덕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과거에는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② 오늘날의 담화 관습에서는 외래어, 외국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찰된다. ④ 요즘은 상대가 기본 나쁜 내용을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⑤ 요즘은 자신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도리어 미덕이 되는 경우가 있다.

- 15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말’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담화 관습은 말을 귀담아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삼가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다. ②, ⑤ 신중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다. ③ 신중하게 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다.

- 16 오늘날의 담화 관습은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딸과 아들의 말에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과거의 담화 관습인 겸손하게 말하기 방식이 남아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들은 과거의 담화 관습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아들은 대화의 원리를 어겼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곧 담화 관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아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을 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64~167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③	11 ⑤	

- 01 (가)뿐 아니라 (나)도 주로 화자가 지켜야 할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지켜야 할 원리는 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협력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대화하는 사람의 말과 목적 또는 요구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나)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대화 참여자 간에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⑤ (가), (나)는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인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02 “오늘 시험 잘 봤어?”라는 A의 물음에 B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한 것은 묻는 말에 올바른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지,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②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③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자신의 개인적 용무에 대한 것이므로, 물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④ A의 제언에 대해 B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리 있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한 것이다. 이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03 ㉠에서 친구 2는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친구 1에게 ‘네’가 발표자이니 열심히 연습하라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친구 2는 배고프니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친구 1에게 공감해 주는 표현 없이 자신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은수는 발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축구 시합을 하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비가 와서 축구 시합이 미뤄졌다는 발언에 시합을 앞두고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한 것은 ㉢을 위배한 것이다.

오답 해설 은수의 발언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농부는 ㉠을 통해 짐승도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가려는 자세가 아닌,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말하기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06 ㉢은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학생 3의 말에 대한 의견 제시이다. 따라서 학생 3의 말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극적 체면을 손상해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학생 1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동아리 행사에 마을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견 제시이다. 따라서 관련성의 격률을 지켜 말한 것이다. ② ㉡은 “좋은 생각이야”라며 학생 2의 말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③ ㉢은 공연과 관련한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근거를 들어 말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④ ㉣은 그림을 그릴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장소를 옮기자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07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라는 학생 1의 발화는 회의에 늦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발화이므로, ㉡에 해당한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커 보여.”라는 학생 2의 발화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라는 학생 3의 발화는 대화에 늦게 참여하여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D]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 3에게 회의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E]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08 승희는 뚜렷한 근거 없이 다회가 지갑을 훔쳐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는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대화의 맥락으로 볼 때 승희가 하는 말은 음담패설(㉠)이나 과장된 말(㉢), 속이는 말(㉣)이나 원한이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없다.

09 ㉢에서 지훈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용우가 편하게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질문의 형식으로 용우의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용우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② 용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부각하여 용우가 동아리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④ 용우의 의견을 먼저 인정한 다음 규현의 생각도 인정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 용우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지훈의 칭찬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은 잔디를 밟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의 ‘아파요’는 ㉡의 ‘아파요’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자신의 마음이 슬픈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11 <보기>는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에 대해 이야기한 글이다. 글쓴이는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진실이 아닌 말, 바르지 못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68쪽

01 ㉠: 공손성의 원리, ㉢: 찬동의 격률 **02** 준서는 협력의 원리 중 ㉢의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지연을 당황시키고 있다. **03** 과거에는 자신의 의사를 우회적(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현재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1 수연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우진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해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02 준서는 토요일에 학교에서 열릴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는 지연의 말에 어제 저녁에 본 야구 경기 관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 중에서도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03 (가)에서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다른 대상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나)에서는 놀이공원에 가자는 아빠의 말에 딸과 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본문 16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4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요령의 격률이다.

- 05 동의의 격률은 서로의 의견 사이에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은 늘리는 것이다.
- 08 적극적 예의 전략은 예의를 갖추고 유대감을 나타내어 상대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자신의 요구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체면 위협 전략에 해당한다.
- 10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담화 관습과 과거 조상들의 담화 관습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5

생각의 힘을 키우는 설득

01.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02. 공동체를 위한 글쓰기

기술 실전 문제

본문 174~179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③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⑤				

- 01 토론은 상대측 논증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보완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논리적 허점을 반박하는 논쟁적, 경쟁적 말하기 유형이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력적 말하기는 토의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토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② 토론은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된 논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③ 토론자는 책이나 전문가의 의견, 통계 자료나 설문 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⑤ 토론은 특정한 논제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 02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토론할 주제(㉠)로,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와 같이 정책의 실행 여부와 관련된 논제(㉡)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인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로, 사실의 진위를 다루는 사실 논제(㉠)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가 아니다.

- 03 상대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상대측 논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은 입론이 아니라 반대 신문이다.

오답 해설 ① 입론을 통해 찬성과 반대 양측은 논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다. ② 입론에서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④ 입론에서 찬성 측은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논증을 구성하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발언을 한다. ⑤ 입론에서 반대 측은 논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찬성 측의 논증을 반박하며 입장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다.

- 04 축산업 방식의 문제점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와 같이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미국 뉴욕의 공립 학교와 프랑스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채식 급식과 같이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채식의 날’은 생선과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급식이 제공되는 날을 뜻합니다.”를 통해, 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발언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된 축산업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를 통해, 육류 생산과 관련된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6억 2,200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과 비슷합니다.”와 같이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05 토론의 쟁점은 토론자들이 논증에서 다룰 세부 내용으로, 사회자는 필수 쟁점이 아니라 토론에서 다룰 주제인 논제를 안내한다.

오답 해설 ① “오늘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와 같이 토론의 시작을 선언한다. ② 찬반 양측의 경쟁적 말하기인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③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와 같이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⑤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토론 참가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며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 06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료 제조나 가축 수송 및 가공 판매를 제외한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7퍼센트에 불과합니다.”라고 하여, 찬성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매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퍼센트를 차지함.)에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 찬성 측이 통계 수치를 과장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합니다.”를 통해 논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찬성 측이 활용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찬성 측과 동일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와 같이 축산업이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합니다.”라고 하여, 필수 쟁점인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 가능성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07 [B]와 [C]는 찬성 측의 반대 신문으로,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에 대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발언이다. 찬성 1은 [B]에서는 “먹거리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로 드신 쌀과 달걀”와 같이, [C]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와 같이 상대측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상대측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에서 찬성 1이 상대측 의견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B]에서 반대 1은 상대측이 제기한 문제가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라며 상대측의 발언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상대의 주장과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C]가 아니라 [B]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라며 상대측의 발언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C]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08 이 글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양측의 입론에 대해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다.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에 대해 반대 측 제2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입론과 이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각 측의 입론 이후에는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각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끝난 이후에 반론이 진행된다.

- 09 ①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라고 하여, 채식의 날을 도입함으로써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육류 수요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찬성 측 주장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입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②, ③ 육류 수요를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도축되고 있다는 것과,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동물을 방목해서 키우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장에 대한 이유라 할 수 있다. ⑤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장식 축사에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 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주장에 대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10 “현재 미국에서만 육식을 위해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습니다. ~ 암탉지들은 창살에 갇혀 짧은 주기로 새끼를 낳다가 도축됩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육류 소비로 인해 동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키울 수 없고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었다. ③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찬성 측은 동물 복지의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필수 쟁점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⑤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의 수와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으로 사육되는 닭과 암탉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 11 찬성 2는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공장식 축산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육류 소비 자체를 줄여야 육류 소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만약 가축을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도적인 도축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육류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를 통해, 반대 1은 공장식 축산 방법의 문제점이 육류 소비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가요?”를 통해, 반대 1은 공장식 축산 문제와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찬성 2는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를 통해, 찬성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육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러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하는 등 사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공장식 축산 방식의 개선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물 복지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먹거리의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하여,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에 어긋난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라고 하여, 공장식 축산의 문제와 ‘채식의 날’ 도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러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하는 등 사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⑤ “우리 학교에서도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학교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생명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13** 반대 1은 “예를 들어 소고기는 사육 환경이나 사육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는 열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라고 하였다. 즉, 사육 환경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하여 축산 방식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발언자는 반대 2가 아니라 반대 1이다.

오답 해설 ① “저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라고 하여, 반대 1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반대 1은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및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 중금속 등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강조하면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저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육류 소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식의 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14** (가)에 따르면,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견해가 충돌할 수 없는 윤리적 당위성을 지닌 사안이므로, 사회적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AI 기술을 규제해야 하는 문제는 AI 기술 규제에 의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다. ③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 문제는 동물 실험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과 동물 윤리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집단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④ 어린이 제한 공간을 폐지하는 문제는 상반된 견해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⑤ 지역의 오래된 문화재를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문화재 훼손의 측면과 문화재 향유의 측면에서 상반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15** (나)에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대상자 제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체육 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 자체가 사회적 쟁점은 아니다. ④ ‘체육 시설 근처 거주자들의 민원 급증’은 (나)에 제시된 글의 제목으로 이것 자체가 사회적 쟁점은 아니며, 민원 급증의 원인이 되는 거주지 근처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이 쟁점이다. ⑤ 거주지 근처 실외 체육 시설 이용의 형평성이 사회적 쟁점은 아니다.

- 16** 은호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쓰려면 (가)에 따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본 후에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을 먼저 명확히 정한 후에 지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호는 빛 공해와 소음 공해를 들며 체육 시설 근처 거주자들의 민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지수는 공원의 운동 시설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을 늘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은호와 반대하는 지수의 견해 차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⑤ (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려면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의사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수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7** 적절한 전개 방법과 전략을 정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아니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이다.

오답 해설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정한다. ③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의 관점과 조직한 내용에 맞게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 18** 쟁점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근거(‘야간에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빛과 소음이 근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야간 관리 인원을 확충하기도 어려워 녹색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를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이 경험한 불편함이 아니라 공원 근처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언급하며 문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② 자신의 견해가 수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상반되는 견해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쟁점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19** ㉓는 건의 형식의 제목이지만, 게시글의 예상 독자인 녹색구 주민들은 글쓴이가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글쓴이와 의견을 공유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㉓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기사라며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㉓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㉓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 정책 제안에 참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글쓴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⑤ ㉓는 글쓴이가 제시한 소음과 빛 공해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20** 자료의 출처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오답 해설 ① 주제는 글쓴이의 의도와 견해를 드러내므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견해를 정해야 한다.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쓸 것인지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③ 어떤 매체를 통해 견해를 드러낼 것인지 ‘계획하기’ 단계에서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④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80~185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⑤	

- 01** 반대 신문은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단순히 발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 발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상대측 발언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대측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 02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정책 논제로, 양측은 육식과 채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다룬 가치 논제에 대해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제1 토론지에 의해 입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논증은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되며, 양측은 쟁점인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③ 토론에서 양측은 필수 쟁점이 드러나도록 입론하여 논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다. ④ 입론 이후에 반대 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양측의 입론에 대해 상대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반대 신문식 토론임을 알 수 있다.

- 03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와 마찬가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 04 양측은 모두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필수 쟁점으로 하여 찬성 측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은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와 자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한 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통계 수치를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5 ㉠에서는 환경 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농업도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질문하고 있다. ② ㉠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상대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의 근거를 제시하며 해결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④ ㉠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통해 상대측이 질문한 의도를 일부 수용하면서 자신이 주장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에서는 현재 축산업계의 노력을 제시하여 상대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06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채식의 이점이나 육식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식이 개인 건강의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학교 급식의 메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학교 급식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제공되는 날 음식을 쓰레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은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관련된다.

- 07 찬성 측에서는 육식을 줄이는 것이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방법으로는 현재의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장이 아니라 이유에 해당한다. ③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채식의 날’을 학교 급식에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에 해당

한다. ④ 동물들을 방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동물들을 방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닭과 임태지를 도축하는 비인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닭과 임태지를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08 찬성 2는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육류 소비를 줄이면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대 1은 육류 소비 문제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문제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는 문제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② 반대 1은 공장식 축산 방법을 개선하면 육류 소비 문제가 아니라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물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공장식 축산 문제가 상대측 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찬성 2는 공장식 축산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공장식 축산으로 육류 소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09 상대측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을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므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측 주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공장식 축산의 문제와 ‘채식의 날’ 도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인 공장식 축산의 문제와 논제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면 된다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논증의 허점을 밝히고 있다. ⑤ 상대측 논증에서 제기한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 10 찬성 1은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대 1은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② 반대 1은 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하여 축산 방식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복지와 육류 소비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⑤ 찬성 2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 차원의 노력으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환경 문제나 동물 복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11 (다)와 같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쓸 때는 쟁점이 발생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다.

- 12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라며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 어떨까요?’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문답의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공원 근처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쟁점이 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주민 인터뷰의 내용을 활용

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빛과 소음 공해가 생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대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3 ㄱ의 출처가 기사임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주장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ㄱ을 활용하여 야간에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의 안전 사고에 관한 문제점을 추가하고 있다. ③ ㄴ의 주민 인터뷰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④ ㄷ의 실내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활용하여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 제한이라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ㄹ의 실내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시한 것은 야간에도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 14 다양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쓰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반론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저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공원 근처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② (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쓴 글이므로, 글쓰기가 자신의 주장을 요청하는 대상인 녹색구청이라는 기관에 쓴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예상 독자 가운데 글쓰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실내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쓰기 계획에서 고려한 매체인 주민 모임 누리집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15 ㉠과 ㉡은 모두 쟁점이 되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야간에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문제를 제시하여 글쓰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있다. ② ㉡은 쟁점이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 정책 제안에 참여자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③ ㉢은 글쓰기가 근거로 제시한 조명이나 소음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은 글쓰기가 제시한 문제 상황인 소음과 조명을 해결할 방안(조명 밝기를 조절하고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을 마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을 제시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6~187쪽

- 01 • 주장: 육류 생산을 위한 축산업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 이유: 축산업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 근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와 자료 02 ㉠: 반대 2, ㉡: 반대 신문 03 ㉢: 정책, ㉣: 문제의 심각성 04 • 주장: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 이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의 직접적인 배출량은 그 비중이 크지 않고, 환경 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근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조사 자료 05 ㉤: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 ㉥: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 06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01 찬성 측은 육류 생산을 위한 축산업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축산업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와,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와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 02 2명 대 2명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할 경우 찬성 1의 입론 후에 반대 2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 03 이 글의 논제인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로,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효과 및 개선 이익과 같은 필수 쟁점을 다룬다.

- 04 반대 측은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의 직접적인 배출량은 그 비중이 크지 않고 환경 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와,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 05 이 글에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쓸 때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06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글로 표현하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본문 188~18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4 논제는 토론의 주제로,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부 주장은 논제가 아니라 쟁점이다.

- 08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입론의 논증에서 육류 생산을 위한 축산업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2 찬성 측 제2 토론자는 입론에서 미국에서 육식을 위해 매년 도축되는 동물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 16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쓰려면 사회적 쟁점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한 후에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야 한다.

제1회

본문 192~195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② 12 ② 13 ③ 14 ② 15 ③

- 01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연물인 바람을 의인화하여, 바람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영탄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도치법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 02 ‘~이다’라는 서술 형태를 반복하여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명사로 끝맺는 시행은 ‘마음’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를 연달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지 않는다. ④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 03 [A]에서는 ‘그는’, ‘그의 과거’, ‘그의 미래’ 등에서 지시어 ‘그’를 사용하여, 독자가 시적 대상인 ‘그’의 일생에 대해 떠올리게 하고 있다(ㄷ).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행을 바꿔 가면서 제시하여, 만남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ㄱ). 그리고 단어들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조사 ‘와’와 접속어 ‘그리고’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ㄴ).

- 04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한 사람의 세계를 마주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의 제목은 타인과의 만남의 중요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잘 보여 준다고 하였다. ‘방문객’이라는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손님으로 여기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이 글은 타인과의 만남을 ‘사람이 온다’는 것으로 표현하며 타인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사람이 온다는 것을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이 글은 타인을 위한 손님으로 여기며 만남이란 한 사람의 일생과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⑤ <보기>에서 이 글은 타인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은 바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세, 즉 환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 05 화자는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인 ‘바람’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자 하므로, 화자는 ‘바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에서 화자는 봄별을 마다하고 된서리에 홀로 피어 있는 ‘국화’를 귀하게 여기며 ‘벗’으로 대하고 있다. 이는 국화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시골에서 지내며 ‘바깥일’은 모른다고 했으므로, 화자는 ‘바깥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화자는 ‘공명부귀’를 잊었다고 했으므로, ‘공명부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④ 화자는 백로

에게 까마귀가 싸우는 꼴짜기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⑤ 화자는 ‘구름’을 험하다고 하며 배를 위협에 빠뜨릴 대상으로 보므로, ‘구름’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06 ‘~ 오기 때문이다’를 반복하여 타인과의 만남의 중요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구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의 상반된 속성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③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이라고 하여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④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 07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을 바람이 더듬어 보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타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이 온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으므로 이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즉 그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다. ④ 화자는 바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위로해 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 08 화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오기 때문이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열거하여 만남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문장 부호인 줄표(⋮)를 사용하여 ‘그 갈피’의 의미를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으로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그는’, ‘그의 과거’, ‘그의 미래’에서 지시어 ‘그’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그’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09 ‘바람을 흉내 낸다’는 것은 바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자세를 지니겠다는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타인과의 만남에 수동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이 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타인과의 만남은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②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것, 즉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만남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③ 마음을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약한 속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④ ‘바람’을 의인화하여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상처 입은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10 이 글은 ‘바람’이라는 대상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보기>는 ‘공’이라는 대상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고 있다. ③ <보기>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에서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④ <보기>는 ‘공처럼’, ‘왕자처럼’에서 직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 글에는 직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Plus <보기> 섬·정현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유적, 의지적, 교훈적

주제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해제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의 속성에 착안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노래함.

▶ (나) 아름다운 관계_박남준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의지적, 교훈적
주제	사랑하고 베푸는 삶에 대한 소망
해제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의미를 형상화함.

- 11 (가)는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연물인 바람을 의인화하여, 바람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바위'를 의인화하여 '바위'가 '소나무'를 받아들이고 키워 내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는 '푸르'와 같이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소나무의 싱싱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시간 표현인 '과거', '현재', '미래'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는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 12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등에서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연물인 '바람'과 화자의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⑤ '그'라는 지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원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13 마음이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사람이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만남을 방문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타인과의 만남을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만남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바람'은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위로하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떨경 환대가 될 것이다.'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현대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타인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 14 (가)에서 '바람'은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타인과의 만남에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자세를 보여 주므로, ㉠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함축한다. 한편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바위'와 '소나무'의 모습을 발견하여 그 관계를 고찰하고, 2연에서는 외부 세계로 향했던 화자가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전환하여 자기 응시를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함축한다.

오답 해설 ① ㉠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은 회한이 아닌 성찰의 태도에 가깝다. ③ ㉠은 화자가 바람과 같은 자세를 갖추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지만 바람과의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도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에서 바람을 흉내 낸다는 것이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에서 뒤돌아보며 성찰하겠다는 것이

부정적 세계와 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⑤ ㉠은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내지만, 이로 인해 현실 상황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 15 (나)에서 '소나무'의 생명의 원천은 '바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는 다시 '소나무'에서 '바람', '새'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매개의 지점을 '강물 소리'와 '노랫소리'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하고 있듯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고, 이를 더듬어 보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④, ⑤ (나)에서 '소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키워 낸 것이 아니라, '바위'가 먼저 '틈'을 벌려 '솔씨'를 뿌리내리게 하고, '몸'을 틀어 '빛물'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으로 '소나무'를 키워 낸 것이다. 이를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란 내가 먼저 '몸의 한 편'을 내어 누군가를 풀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회

본문 196~205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⑤	13 ④	14 ④	15 ⑤	16 ⑤
17 ⑤	18 ②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④							

▶ (나) 북어_최승호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성찰적, 비판적
주제	비판 정신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해제	시적 대상인 '북어'의 특성에 착안하여, 비판 정신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함.

- 01 (가)는 '문밖으로 버리며'를 반복하여, (나)는 '말한 셈이다'와 '너도 북어지'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미에 대해 무관심했던 화자가 거미를 안쓰럽게 여기게 되는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③ (나)는 '나타나는 모양이 아주 뜻밖이고 갑작스럽게'라는 의미를 지닌 '느닷없이'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는 시상이 전환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나)는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이지,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⑤ (가)는 '문밖으로 버린다' 등에서 현재형 잔술이 쓰이고 있다. (나)는 '나는 죽음에 꿔꿎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무덤 속의 벼여리를 말한 셈이다' 등에서 현재형 잔술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가), (나) 모두 대상의 속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02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갓 나와 '발이 채 서지도 못한'다고 묘사한 것은 새끼 거미의 연약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새끼 거미에 대한 화자의 애정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아모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차디찬 밤'에 '문밖으로 쏘아 버린' 것은 거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 그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거미들을 보며 '짜릿'하고 '서러워'하고 '가슴이 메이는 듯'하며 '슬퍼'하는데, 이는 자신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미 가족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④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발는 행위는 연약한 존재인 새끼 거미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⑤ 화자는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는 자신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미 가족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03 (가)에서 거미를 내보낸 문밖의 상황은 '차디찬 밤'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미 가족이 처해 있는 비극적 상황을 더욱 부각하는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밤의 식료품 가게'는 북어들이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상황을 화자가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북어들은 '너도 북어지'라고 부르짖으며 화자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거미 가족이 화자를 원망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 화자는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버리며 슬퍼하고 서러워하지만,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 화자가 북어들을 일깨워 주고 있지도 않다. ③ (가)에서 화자는 거미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을 뿐, 거미와 함께 고통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에서 화자가 북어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⑤ (가)에서 '차디찬 밤'은 거미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화자의 비정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에서 화자가 북어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 04 (나)에서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있는 존재들은 북어가 아니라 '사람들'로,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꿈과 지향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는 '큰 거미'를 쏘아 버리며 '천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하는데, 이는 헤어진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볼 수 있으며, <보기>를 참고할 때 가족과 헤어진 거미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연달아 문밖으로 버려지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일제 강점기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꼬챙이에 꿰어진 북어들을 '일 개 분대'라며 군사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군사 독재 정권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쏘아 버린 뒤 나타난 '큰 거미'를 보며, '거미 새끼'를 버렸던 자신의 행위가 거미 가족을 헤어지게 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된다. (나)에서 화자는 '북어들'이 자신에게 '너도 북어지'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상상하는데, 이는 자신도 북어와 다를 바 없다는 성찰적 인식을 하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 05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했으므로, 음악 선생이 합창단 활동 시간에 매번 합창 연습을 지도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합창 연습 때 엿박자 D의 목소리 때문에 합창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음악 선생은 엿박자 D가 공연을 망칠 것을 우려하여 자진 사퇴를 권한 것이다. ② '실망한 엿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와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엮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라면서 '우리는 엿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하였다.

- 06 서술자인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활동의 기억을 회상하며 중심인물인 엿박자 D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중심인물인 엿박자 D에 대한 주변 인물의 증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합창단 활동 시간에 합창 연습이 아니라 각자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중심인물인 엿박자 D는 몰랐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④ 인물 간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 07 엿박자 D는 고등학교 때 축제에서 공연을 망쳤다는 이유로 크게 혼이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기획한 공연에 합창단을 했던 친구들을 초대하려는 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엿박자 D가 공연에 친구들을 초대한 것은 음악 선생을 함께 비난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② 엿박자 D는 친구들이 공연 중에 자신이 맞을 때 무대에서 그냥 내려온 것에 대해 이해하여 지금의 공연에 초대된 것은 아니다. ④ 고등학교 때 '나'가 엿박자 D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⑤ 엿박자 D는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

- 08 '나'는 엿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고 했으므로, 엿박자 D의 노래가 질대로 합창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엿박자 D가 노래 연습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엿박자 D가 '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

있음을 나타낸다. ③ '나'는 '필요에 의해서' 서너 명의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나'가 이익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음을 나타낸다. ④ '나'는 공연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대해 달라는 엃박자 D의 부탁을 받고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이는 '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엃박자 D의 부탁을 받고 친구들에게 연락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그동안 친구들과 활발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친구들의 소식을 잘 몰랐음을 나타낸다.

- 09 서술자인 '나'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공연 내용에 대해 자신의 시선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둠 속에서 그런 것일까', '어둠 속에서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도 엃박자 D의 리믹스 덕분에일 것이다.' 등에 추측의 진술이 쓰였으나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③ 서술자인 '나'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고 있지 않다.

- 10 '나'와 친구들이 음치들의 노래를 들으며 립싱크를 한 것은, 음치들의 합창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조화로우음을 만들어 낸 엃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하는 더블더빙을 보며 엃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② 엃박자 D는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라고 하였다. ④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엃박자 D의 리믹스 덕분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라고 하였다.

- 11 ㉠은 더블더빙의 연주와 묘한 엃박자를 이루는데, 관객들은 오히려 이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은 음치들이 부른 노래로, 이는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절묘하게 배치되어 '나'와 친구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로 볼 때 ㉠과 ㉡은 각각 박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엃박자 D가 준비한 공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관객들이 ㉠과 더블더빙의 연주를 가장 재미있어 했지만 '나'가 공연 내용에 호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에 대해 관객들도 호응하고 있다. ② ㉠은 애초의 공연 기획에 있는 내용으로 엃박자 D와 '나'가 함께 준비한 내용이지만, ㉡은 '나'가 아닌 엃박자 D가 몰래 준비한 공연 내용이다. ③ ㉡은 엃박자 D가 '나'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가 맞지만, ㉠은 더블더빙이 엃박자 D를 위해 준비한 영화가 아니다. ⑤ ㉡은 음치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나'와 엃박자 D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과 관련하여 엃박자 D와 '나'가 갈등하고 있지 않다.

- 12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나'와 친구들이 립싱크를 한 것은 엃박자 D의 공연 기획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친구들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재채기>와 더블더빙의 연주는 엃박자를 이루지만 관객들은 이를 재미있어했다고 했으므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엃박자 D의 기획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엃박자 D는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만 믹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음치들에 대한 애정, 즉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 준다. ③ 22명의 음치들의 노래가 마치 화음 같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음과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다름을 통해 얼마든지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관객들은 음치들의 노래에 대해 이상하다고 못지 않고 같이 후련을 부르니까지 했다고 하였다. 이는 엃박자 D가 공연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던 것, 즉 다름을 통해 얼마든지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상황에 맞지 않는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이리 떼'(허구), '흰 구름'(감춰진 진실) 등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등에서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등에서 대사를 통해 무대 밖의 정보가 무대 안에 전달되고 있다. 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찬장과 파수꾼 '다'가 상반된 견해를 보임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14 ㉠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마을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파수꾼 '다'를 협박하는 것이다. 즉, 진실을 알리는 것이 무의미함을 말하며 파수꾼 '다'의 생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이리 떼가 습격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으로, 이는 파수꾼 '다'가 아직 이리 떼의 존재를 믿고 있을 때 이리 떼에 대해 가졌던 공포감을 나타낸 것이다. ② ㉡은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막기 위해 자신이 망루까지 직접 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찬장의 불편한 심기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③ ㉢은 성난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이는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달콤한 이익을 주겠다는 화유로 볼 수 있다. ⑤ 파수꾼 '다'가 계속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찬장은 ㉠과 같이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척하는데, 이는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15 찬장이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려는 파수꾼 '다'에게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라며 회유하지만, 파수꾼 '다'는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라며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헛된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파수꾼 '나'를 조롱하지는 않는다. ② 운반인은 파수꾼 '다'가 찬장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읽어 보고 그 안에 담긴,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고 다닌다. 그러나 파수꾼 '다'가 운반인에게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 ③ 찬장은 이리 떼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었다고 파수꾼 '다'를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파수꾼 '다'를 막으려 한다. ④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나, 그 근거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 16 '편지'는 파수꾼 '다'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운반인을 통해 찬장에게 보내려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독재 권력에 저항한 세력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망루'는 황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 곳으로, 이는 당시 독재 정권이 정보를 통제하여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② 황야에는 이리 떼가 아닌 흰 구름만이 있으나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다. 그러므로 '흰 구름'은 당시 독재 권력이 은폐한 진실이자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중에게 폭로하려는 진실에 해당한다. ③ '양철 북'은 이리 떼가 온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는 당시 독재 정권이 대중을 기만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④ '이리 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적으로, 이는 당시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에게 반공 이념을 강요할 때 동원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17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찬장이 관객들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관객들에게 극 중 인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무대 밖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한 청각적 효과는 제시되어 있

지 않다. ② 촌장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한 공간 내에서 주로 촌장과 파수꾼, 마을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④ 지시문보다 대사의 비중이 높다.

- 18** 파수꾼 ‘다’는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촌장의 약속을 믿고 촌장의 말대로 이리 떼가 있다고 외친 것이다.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앞으로 마을에 내려오지 말라고 말하자 침묵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파수꾼 ‘다’는 촌장과 함께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가 쓴 편지의 내용, 즉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망루로 찾아왔다. 그런데 파수꾼 ‘다’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온다고 외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가 있다는 촌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③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사실을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자, 파수꾼 ‘다’는 그건 아니라며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수꾼 ‘다’는 촌장이 사실대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촌장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④ 촌장은 파수꾼 ‘다’가 자신이 요청한 대로 이리 떼가 있다고 외치자 이후에 파수꾼 ‘다’에게 마을에 오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파수꾼 ‘다’가 자신에게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촌장은 사실을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파수꾼 ‘다’가 살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19**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실제로 있다고 믿는 인물로, 이리 떼가 온다는 파수꾼 ‘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북을 신나게 친 것이다. 즉, 파수꾼 ‘다’의 용기를 복돋워 주기 위해 북을 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몇과 파수꾼의 외침에도 딸기 따기에 열중했다는 것은 촌장도 어린 시절에 이미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겉으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허를 날름거렸다는 것에서 촌장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흰 구름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거냐고 은근히 묻는 것은, 흰 구름은 내일도 사라지지 않으니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야 한다는 파수꾼 ‘다’의 의지를 꺾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⑤ 운반인은 파수꾼 ‘다’의 편지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전파한 인물로, 촌장은 운반인을 처벌하여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20** ㉠은 촌장의 뜻대로 이리 떼가 온다고 외쳐야 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긴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며, ㉡은 촌장의 뜻대로 자신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촌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뇌를 침묵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에서 나온 행동으로 자신의 입무에 대한 중압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은 자신이 포기해야 할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내포한 것이 아니다. ② 파수꾼 ‘다’는 이전에도 망루에 올라간 본 적이 있으므로 처음 올라간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에 촌장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이리 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서 이리 떼를 발견하기 위한 엄정한 태도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은 촌장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당황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에는 촌장의 뜻대로 이리 떼가 온다고 외쳐야 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으므로, 촌장과 약속을 지킬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촌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21**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마을의 상황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만 전달되고 있다. 실제 무대 위에 마을 공간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중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나 묘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인물인 촌장에게 극 중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의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희곡은 극 중 분위기 등을 표현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바람 소리를 나타내는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진실이 왜곡된 어두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 등에 제약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극 중 인물인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 희곡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성격을 표현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등장인물인 촌장의 행위나 표정, 어조 등의 연기를 통해 그의 심리나 성격을 관객들에게 보여 준다.

- 22** 글쓴이가 조카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한 말을 ‘지적과 당부’라고 느낀 것은 평범한 시각으로 선생님의 말을 해석한 것으로, 이는 삶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수필의 소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이 다니는 한의원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소재이다. ② <보기>에서 일상적인 소재를 평범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간해서는 약을 짓지 않는 한의원에 대해 사람들은 ‘선의’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평범한 시각으로는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④ <보기>에서 이 글의 글쓴이는 개성적 시각으로 일상적인 경험을 해석한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조카가 유치원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조카의 경험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않으려는 개성적 인식을 보여 준다. ⑤ <보기>에서 이 글의 글쓴이는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깨달음과 통찰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유치원 선생님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였을 조카를 보며 처음에 ‘지적과 당부’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있다.

- 23** 글쓴이가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한 경험과 조카와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에서 선의라는 공통적 요소를 이끌어 내어,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② 관찰 대상의 행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앞으로 벌어질 현상에 대해 예고하고 있지 않다.

- 24** 글쓴이는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러 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도 힘들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과장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믿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5**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는 글쓴이의 대답에 대해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구나, 하며 넘겨짚었다고 했으므로, 이들은 한의원의 운영 방식을 선의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카는 유치원 선생님한테 ‘지적과 당부’에 해당하는 말을 듣고도 즐거워하는데, 이에 대해 글쓴이는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조카는 유치원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의원 운영 방식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당수의 사람들이 글쓰기가 다니는 한의원을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짚었다고 했으므로, 아들은 한의원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카가 선생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상당수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이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고는 했다고 하였다. 또한 조카가 선생님의 말의 진의를 곡해한 것은 아니다. ⑤ 상당수의 사람들은 글쓰기가 다니는 한의원이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짚은 것으로, 글쓰기의 생각에 동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조카도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글쓰기의 생각에 동의하는지는 알 수 없다.

제3회

본문 206~213쪽

- 01 ② 02 ② 03 ① 04 ①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③

- 01 논증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글쓰기의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가진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를 설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표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투표와 관련된 글쓰기의 개인적 체험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투표에 기권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⑤ 독자에게 생소한 전문 분야 이해에 필요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다.

- 02 여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③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귀납 논증의 특징이지만, 결론의 내용이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연역 논증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 03 (다)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의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마)의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라)의 '정치권에서는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에서 알 수 있다.

- 04 (다)를 통해, ㉠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 행위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과 거리가 먼 설명이다.

- 05 ㉠은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의 의미인데, ㉡의 '들다'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 ③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④ 나이가 많아지다. ⑤ 잠이 이루어지거나 자는 상태에 이르다.

- 06 (나)의 ㉠, (다)의 ㉡, (라)의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나)의 ㉣, (다)의 ㉤, (라)의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 07 (가)는 영화, (나)는 텔레비전 뉴스로, 둘 다 영상 매체이며,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누리 소통망은 디지털 통신 매체로, 영상 매체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잡지와 신문은 인쇄 매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방송 매체로, 모두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전달된다.

- 08 (가)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과 미국 산업화 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모습을, (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고려하여 기업이 모범적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생산성 증가로 인해 경제가 성장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사회적 의제는 아니다. 또한 (나)는 이에스지(ESG) 경영이 친환경 경직임을 알리고 있지만, 친환경 제품의 장점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화 공정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기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만 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또한 (나)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 매장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 자체를 사회적 의제로 다룬 것은 아니다. ③ (나)는 다회용 컵을 쓰는 커피 매장, 의류 업체의 옷 수선 서비스 등 이에스지(ESG) 경영 사례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지만, (가)는 기술 발달로 인한 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는 혼란스러운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나)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09 텔레비전 뉴스가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의제에 대해 긍정적 혹은 비판적인 관점으로 뉴스를 제작할 수도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보에 대한 출처를 밝히면 뉴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어떤 사실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이다. ③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 자막, 시각 자료 등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④ 텔레비전 뉴스는 새로운 사실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전달한다.

- 10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이에스지(ESG) 성과 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인 결과로, 이에스지(ESG)에 대한 의구심(㉠)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이에스지(ESG)가 윤리 경영처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이론이나 그런 워싱과 다를 바 없다고 했으므로, 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커피 매장의 다회용 컵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이에스지(ESG) 경영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와는 반대로 다회용 컵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 11 (나)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보기>는 카드 뉴스이다. 텔레비전 뉴스와 카드 뉴스 모두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보기>에만 해당한다. ④ (나)에만 해당한다.

- 12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언어 공동체도 다양해졌다. 그런데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다원화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모두 다양한 국적이나 배경을 지닌 경우이므로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13 (나)와 <보기>에서 남한 사람은 예들러 말하는 표현에 익숙한 남한 문화에 따라 간접 화법을 사용하지만,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북한 문화에 따라 직접 화법을 사용하므로, 둘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가 달랐기 때문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② 단어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쓰임 때문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③ 사용하는 어휘의 뜻이나 용법이 달라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⑤ 남한 사람이 표준어를, 북한 사람이 문화어를 썼기 때문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 14 엄마는 한국에 이주한 사람이지만, 아들 셋이 한국에서 태어났

다는 말을 통해 자신이 한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엄마가 영어를 쓰는 것은, 이주민이 한국어를 배우기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② ○○가 영어와 한국어를 쓰는 것은, 부모의 언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상황임을 보여 준다. ③ 엄마가 2001년에 한국에 왔다는 것과 아들 셋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 ○○의 가족이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가 한국에서 태어나 나이지리아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가 내국인 이민자 2세임을 나타낸 것이다.

- 15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쓰는 것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② 형태나 의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남북한의 어휘들을 정리하여 차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남북한어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④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같이 남북한이 언어 관련 사업과 언어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 16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전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함께 쓰게 될 어휘를 개발하는 것은 이 사전이 하게 될 역할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겨레말을 한데 모으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남북 언어의 통합을 지향하므로,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②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일을 이룬 후 예상되는 사회 언어학적 문제와 혼란에 대비할 수 있다. ③ <겨레말큰사전>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남한과 북한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남북 언어의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⑤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회 언어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물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겨레말을 한데 모으므로써, 물리적 통일을 넘어 정신적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 17 '로인(ㄹ)'과 '락하산(ㄷ)'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각각 '노인'과 '낙하산'이 된다. 또한 '페돼지(ㅍ)'는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로, 사이시옷을 적용하면 '뱀돼지'가 된다.

오답 해설 ㄴ, '나룻배'를 분석하면 '나루+ㅅ+배'로, 사이시옷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표기법에는 맞지 않는다.

01 ㉓	02 ㉓	03 ㉓	04 ㉓	05 ㉓	06 ㉓	07 ㉓	08 ㉓
09 ㉓	10 ㉓	11 ㉓	12 ㉓	13 ㉓	14 ㉓	15 ㉓	16 ㉓
17 ㉓	18 ㉓	19 ㉓	20 ㉓	21 ㉓	22 ㉓	23 ㉓	24 ㉓
25 ㉓	26 ㉓	27 ㉓	28 ㉓	29 ㉓	30 ㉓	31 ㉓	32 ㉓
33 ㉓							

- 01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 ㅈ’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홀이불’의 ‘이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끝소리 ‘ㅌ’과 만나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홀이불’은 ‘홀-’의 끝소리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홀이불]로, ‘이불’의 ‘이’에 ‘ㅣ’가 첨가되어 [홀니불]로, 다시 ‘ㄷ’이 비음 ‘ㄴ’을 만나 ‘ㄴ’으로 바뀌어 [홀니불]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된다. ② ‘미담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④ ‘해돋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어 [해도지]로 발음된다. ⑤ ‘물허야’는 끝소리 ‘ㄷ’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무터야]로, 다시 ‘ㅌ’이 반모음 ‘ㄹ’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어 [무쳐야]로 발음된다.

- 02 ‘할 때’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된소리인 ‘ㅌ’이 이어져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표기 그대로 [할때]로 발음된다. 따라서 ‘할 때’가 ㉓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ㄱ’ 뒤에 ‘ㅂ’이 와서 ㉓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뽕]으로 발음된다. ② ‘담다’는 용언의 어간 ‘담-’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와서 ㉓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담뽕]으로 발음된다. ③ ‘갈등(葛藤)’은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이 와서 ㉓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갈뽕]으로 발음된다. ④ ‘갈 곳’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ㄱ’이 와서 ㉓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곳’의 ‘ㅌ’은 ‘ㄷ’으로 바뀌어 [갈뽕]으로 발음된다.

- 03 겹받침 ‘ㅍ’은 보통 앞자음인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ㅍ’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ㄱ’이 탈락한다. ‘맑게’는 어간 ‘맑-’의 ‘ㅍ’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를 만난 경우이므로, ‘ㄱ’이 탈락하여 [말게]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을고’는 겹받침 ‘ㅍ’ 중 앞에 있는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을고]로,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끝소리 ‘ㅍ’이 ‘ㅂ’으로 바뀌어 [을고]로, 다시 ‘ㅂ’ 뒤에 ‘ㄱ’이 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을꼬]로 발음된다. ② ‘여덟’은 겹받침 ‘ㅍ’ 중 뒤에 있는 ‘ㅂ’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여덟]로 발음된다. ④, ⑤ 겹받침 ‘ㅍ’은 보통 ‘ㅂ’이 탈락하지만 ‘ㅂ’이 자음을 만날 때나 ‘ㄴ’과 만나 [넙쩌카다] 등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따라서 ‘넙적한’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넙적한]으로, 다시 된소리되기가(ㄱ → ㅋ)와 거센소리되기가(ㄱ → ㅋ)가 일어나 [넙쩌칸]으로 발음된다. 또한 ‘넙적’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넙지]로,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넙찌]로 발음된다.

- 04 <보기>의 ‘담그-+/-아 → 담가[담가]’에서는 어간 끝의 모음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한 것으로, 이는 원래 있던 음운이 탈락하는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은 음운 교체이다.

오답 해설 ① 모음 ‘ㅡ’ 탈락이 표기에도 반영되어 ‘담가’로 표기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모음 ‘ㅡ’가 탈락하여 음운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 ④ ‘짐그-+/-아 → 짐가[짐가]’에서도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⑤ ‘ㄱ’ 탈락은 어간 끝의 모음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는 것이다.

- 05 ㉓의 ‘놓다’는 ‘ㅎ’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타]로 발음된다. ‘만형’은 예사소리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텝]으로 발음된다. ‘종고’는 ‘ㅎ’과 예사소리 ‘ㄱ’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코]로 발음된다. ㉓의 ‘가을걷이’와 ‘굳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어 각각 [가을거지]와 [구지]로 발음된다. ‘붙여’는 끝소리 ‘ㅌ’이 반모음 ‘ㄹ’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어 [부처]로 발음된다. ㉓의 ‘각도’는 ‘ㄱ’ 뒤에 ‘ㄷ’이 와서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각뽕]로 발음된다. ‘신다’는 용언의 어간 ‘신-’의 끝소리 ‘ㄴ’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신:뽕]으로 발음된다. ‘실수(失手)’는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ㅌ’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실쑤]로 발음된다. 따라서 ㉓의 음운 변동은 거센소리되기, ㉓의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 ㉓의 음운 변동은 된소리되기이다.

- 06 ‘뽕다’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나 겹받침 ‘ㅍ’ 중 ‘ㄹ’이 탈락하고, ‘ㄱ’ 뒤의 ‘ㄷ’이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뽕다]로 발음된다. 이때 자음군 단순화를 거치며 음운 개수는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② ‘잡목’은 ‘ㅂ’이 비음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잡목]으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음운 변동 전과 후 각각 6개로 동일하다. ③ ‘축하’는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된다. 이때 거센소리되기를 거치며 음운 개수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④ ‘뽕밭이’는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 [뽕바지]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음운 변동 전과 후 각각 7개로 동일하다. ⑤ ‘한여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ㄹ’로 시작하여 ‘ㄴ’ 첨가(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ㄴ’ 첨가를 거치며 음운 개수는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 07 ‘들녁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㉓)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되어 [들:려글]로 발음된다. [들:려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인류가’는 유음화(㉓)가 적용되어 [일류가]로 발음된다. [인류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ㄹ’의 비음화(㉓)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② ‘순환론’은 ‘ㄹ’의 비음화(㉓)가 적용되어 [순환론]으로 발음된다. [순환론]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유음화(㉓)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③ ‘꼬끼이’는 구개음화(㉓)가 적용되어 [꼬끼지]로 발음해야 한다. [꼬끼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했기 때문이다. ⑤ ‘봄여름’은 ‘ㄴ’ 첨가(㉓)가 적용되어 [봄녀름]으로 발음해야 한다. [보며름]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ㄴ’ 첨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08 A는 음운 변동이 발생했지만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이므로 음운 교체, B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지만 음운의 수가 줄지 않았으므로, 즉 늘었으므로 음운 첨가, C는 음운의 수가 줄었지만 새로운 음운이 없으므로 음운 탈락, D는 음운의 수가 줄고 새로운 음운도 있으므로 음운 축약이다. ㉓의 ‘같이[가치]’는 구개음화가, ㉓의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 ㉓의 ‘집안일[지반일]’은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B에 해당한다. ㉓의 ‘좋은[조:은]’은 ‘ㅎ’ 탈락이, ㉓의 ‘을는[을: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탈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음운은 없다. 따

라서 C에 해당한다. ㉔의 ‘얹고[안코]’는 ‘ㅎ’과 ‘ㄱ’이 만나 새로운 음운인 ‘ㄱ’이 되는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D에 해당한다.

- 09 ‘흙화덕’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흙화덕],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흐화덕]으로 발음된다. ‘드넓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드널다], 된소리되기에 의해 [드널따]로 발음된다. ‘끓졌다’는 거센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끈졌다], 된소리되기에 의해 [끈졌다]로 발음된다. ‘걸치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걸치레]로 발음된다. 따라서 ‘흙화덕’과 ‘드넓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㉑)은 자음군 단순화이고, ‘흙화덕’과 ‘끓졌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㉒)은 거센소리되기이며, ‘끓졌다’와 ‘걸치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㉓)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끓졌다’와 ‘드넓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㉔)은 된소리되기이다. ‘술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㉕)에 의해 [술하다]로, 다시 거센소리되기(㉖)에 의해 [수타다]로 발음되므로 ㉑, ㉒이 모두 일어난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밭히다’는 거센소리되기(㉖)만 일어나 [밭키다]로 발음된다. ② ‘닭고기’는 자음군 단순화(㉑)와 된소리되기(㉖)가 일어나 [닥꼬기]로 발음된다. ③ ‘깎고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㉕)과 된소리되기(㉖)가 일어나 [깎꼬서]로 발음된다. ⑤ ‘단팔죽’은 음운의 끝소리 규칙(㉕)과 된소리되기(㉖)가 일어나 [단판죽]으로 발음된다.

- 10 ㉑의 ‘실없네[시럼네]’는 자음군 단순화(㉑)가 일어나 접받침 ‘ㅁ’ 중 ‘ㅅ’이 탈락한 후, 받침 ‘ㅁ’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화(㉒)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㉑의 ‘깊숙이[깊쑤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㉕)이 일어나 ‘ㅍ’이 ‘ㅁ’이 된 후, 받침 ‘ㅁ’ 뒤에 ‘ㅅ’이 오면서 된소리되기(㉖)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③ ㉑의 ‘짓밟지[질뽕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㉕)이 일어나 ‘ㅅ’이 ‘ㄷ’이 된 후, 받침 ‘ㄷ’ 뒤에 ‘ㅁ’이 오면서 된소리되기(㉖)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④ ㉑의 ‘꺾는[깁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㉕)이 일어나 ‘ㄱ’이 ‘ㄴ’이 된 후, 받침 ‘ㄴ’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화(㉒)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⑤ ㉑의 ‘흙고[흙꼬]’는 자음군 단순화(㉑)가 일어나 접받침 ‘ㅁ’ 중 ‘ㅅ’이 탈락한 후, 받침 ‘ㄴ’ 뒤에 ‘ㄱ’이 오면서 된소리되기(㉖)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 11 ‘쌍뿔’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쌍뿔]으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축약에 해당한다.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얹고’는 어간 말의 ‘ㅎ’과 어미의 첫소리 ‘ㄱ’이 결합하여 ‘ㄱ’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얹꼬]로 발음된다. ③ ‘끓이다’는 어간 ‘끓-’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로, 겹받침 ‘ㅎ’에서 ‘ㅎ’이 탈락하고 ‘ㄹ’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끄리다]로 발음된다. ④ ‘참하고[치카고]’는 겹받침 ‘ㅎ’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ㄱ’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하찮은[하차는]’은 ‘ㅎ’ 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⑤ ‘먹히다[머키다]’는 ‘ㄱ’과 ‘ㅎ’이 만나 ‘ㄱ’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나고, ‘끓고세[끈코세]’는 ‘ㅎ’과 ‘ㄱ’이 만나 ‘ㄱ’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각각 음운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 것이다.

- 12 ㉑의 ‘낫 한때[나탄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㉑의 ‘맺힌[매진]’은 ‘ㅌ’과 ‘ㅎ’이 곧바로 합쳐져 ‘ㅌ’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㉑의 ‘달한데[다칸데]’는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ㄱ’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㉑의 ‘꽃하고[고타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㉑의 ‘닐히는[닐피는]’은 겹받침

‘ㅁ’의 ‘ㅁ’이 접미사 ‘-히-’의 ‘ㅎ’과 곧바로 합쳐져 ‘ㅍ’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3 ㉑의 ‘아버지, 할머니께 다녀와도 되겠습니까?’는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이 나타난 문장이다. ㉑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까’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부사격 조사인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㉑에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㉑의 ‘민지는 할머니께 갔다.’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② ㉑의 ‘수아는 선생님을 뵈고 왔다.’는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③ ㉑의 ‘할머니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신다.’는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14 ㉑(간접 높임)은 주체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처럼 주어와 긴밀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㉑는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귀’를 높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④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각각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 ‘아버지’, ‘부모님’, ‘삼촌’을 높인 직접 높임이 나타나 있다.

- 15 ㉑에서 손자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와 하십시오체를 통해 ‘할아버지’를 높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는 ‘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높이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㉑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② ㉑에서 ‘나으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으셨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④ ㉑의 ‘아빠’는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아빠’를 높여 말하고 있다. ⑤ ㉑에서 화자인 장인은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예사 낮춤인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 16 ㉑에서 선생님이 부른 대상은 ‘연우’가 아니라 ‘나’이므로, 간접 인용은 ‘연우는 나에게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②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고, ‘나’ 대신 ‘자기’라는 대명사, ‘이곳’ 대신 ‘그곳’이라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고 의문문의 종결 어미를 바꾸어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③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고 의문문의 종결 어미를 바꾸어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④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고, 시간 표현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 17 <보기>의 첫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은 ‘오늘’(㉑)이 되어야 한다. 또 ‘계실시오’는 아들이 부모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쓴 것인데, 부모가 말할 때 아들의 말이 간접 인용이 되면 부모인 ‘나’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있-’으로 서술어를 바꾸어야 하고,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㉒)로 말해야 한다. <보기>의 두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므로, ㉑에는 주어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또 직접 인용의 명령형 ‘남겨라’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간 ‘남기-’에 ‘-(으)라고’가 붙어야 하므로 ‘남기라고’(㉓)가 되어야 한다.

- 18 ‘안경을 벗고 있다.’에 대해 ㉠과 ㉡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에서는 ‘안경을 잃어버린 뒤의 상황’이라는 일정한 문맥이 부여되므로 해당 문장은 ‘안경을 벗고 지낸다.’ 정도의 의미만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양치질을 하는 중이었어요.’로 교체하여도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의 예로 적절하다. ② ‘오해하는 중인 것 같아.’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아는 중이야.’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생신임을 아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⑤ ‘빅타이를 매고 있네.’는 ‘신입 사원이 빅타이를 매는 동작을 진행한다는 의미’, ‘신입 사원이 현재 빅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 19 ㉠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어제’와, ‘봤다’에 사용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간 표현은 미래 시제이다. ㉠은 ‘잔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관형사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은 현재 시제이다. ㉡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시간 표현은 과거 시제이다. ㉢은 ‘곧’이라는 시간 부사와 ‘내리겠습니다’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20 ㉠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이 미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에서 어머니께 혼나는 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그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이 과거임을 뜻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② 1919년 3월 1일이라는 과거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③ 봄날 거리에 개나리가 피어 있음을 의미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것으로, 이때의 ‘-었-’은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찬 것이 과거임을 뜻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한편 ‘-었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21 ㉠은 형이 동생을 울도록 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사동문으로, 동사의 어간 ‘을-’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사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 1>에 따르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의 ‘잡히다’는 동사의 어간 ‘잡-’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여 행위의 대상인 ‘도둑’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의 ‘찢어졌다’는 동사의 어간 ‘찢-’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④ <보기 1>에 따르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더위를 겪은 행위의 주체는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은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⑤ <보기 1>에 따르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에서 학생회장을 뽑은 행위의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은 행위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 22 ㉠(이중 피동 표현)은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아지다/-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표현이다. ‘쓰이다’는 동사의 어간 ‘쓰-’에 피동 접미사 ‘-이-’를 한 번만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보여지다’는 동사의 어간 ‘보-’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보이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② ‘민겨지다’는 동사의 어간 ‘민-’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민기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③ ‘놓여지다’는 동사의

어간 ‘놓-’에 피동 접미사 ‘-아-’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놓이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④ ‘잊혀졌다’는 동사의 어간 ‘잊-’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잊히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 23 ㉡의 ‘할머니에게도’는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할머니께도’로 고쳐야 한다. ‘께서’는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격 조사이므로, 객체인 ‘할머니’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 ‘아쉬울 거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아쉬웠어’로 고쳐야 한다. ② ㉡의 ‘열려질’은 동사의 어간 ‘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결합한 표현이므로, ‘열릴’로 고쳐야 한다. ③ 직접 인용은 인용할 부분 앞뒤로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한 부분 다음에 조사 ‘라고’를 붙이므로, ㉢의 조사 ‘고’는 ‘라고’로 고쳐야 한다. ④ ㉣의 ‘괜찮았다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괜찮다면’으로 고쳐야 한다.

- 24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늘려야 할 것’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 요령의 격률),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 찬동의 격률), 나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 관용의 격률), 나를 낮추는 표현(㉣: 겸양의 격률), 상대와 내 의견 중에 같은 점(㉤: 동의의 격률)’이고, ‘줄여야 할 것’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요령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 찬동의 격률), 나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 관용의 격률), 나를 칭찬하는 표현(㉣: 겸양의 격률), 상대와 내 의견 중에 다른 점(㉤: 동의의 격률)’이다.

- 25 이현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찬동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찬동의 격률에 따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도록’ 고쳐야 한다. ㉡는 ‘한심하다’거나 ‘실력 없다’는 식의 비방을 줄이고 ‘기본 실력이 있다’는 칭찬을 늘림으로써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 ㉡ 여전히 상대를 비방하고 있는 표현이다. ㉢, ㉣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 26 철수는 빵을 자신이 나누는 대신 나누어진 빵에 대한 선택권은 상대에게 주면서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오답 해설 ㉠은 겸양의 격률, ㉡는 관용의 격률, ㉢은 찬동의 격률, ㉤은 동의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보기>에서는 이와 같은 격률의 적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 27 제안을 거절할 때는 먼저 상대의 제안에 공감함을 표현한 다음,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며 상대의 제안에 공감함을 표현한 다음, “그런데 이미 봉사 활동을 가기로 친구들과 약속했어요.”라며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고(동의의 격률), “대신 다음 주에 함께 낚시 가는 것은 어떠세요?”라며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므로(요령의 격률) 적절하다.

- 28 ㉡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은 양의 격률, ㉢은 관련성의 격률, ㉣은 질의 격률, ㉤은 태도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 29 지은은 ‘모듬 발표 주제 정하기’라는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함으로써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오답 해설 ㉡는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 ㉢은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 ㉣은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 ⑤는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과 관련된 조언이지만, 자은의 말과는 무관하다.

- 30** 지혜는 ‘어느 구’에 사는지를 묻는 인성의 질문에 대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대화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는 태도의 격률, ③은 관련성의 격률, ⑤는 질의 격률과 관련되나, 지혜의 말에서 이와 같은 격률의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

- 31** 은경은 대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화의 주제를 제시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정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을 지켰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해주는 전통문화 중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라고 말함으로써, 즉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말을 하여 협력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② 우신은 한옥을 주제로 하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상황에서, 현대의 주거 문화나 현실 등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여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용운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아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⑤ 미선은 점심 식사에 대한 감상이나 먹고 싶은 음식 등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32** 재훈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소극적 예의 전략도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른 전략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해설 ①~③ 윤희는 준석에 대해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적 예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적극적 예의 전략도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른 전략이다. ⑤ 재훈은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전통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 33** <보기>는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는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 경우로,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④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의 예이다.

제5회

본문 224~229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②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②	13 ①	14 ③	15 ②	16 ②
17 ④							

- 01** 상대측 논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입론이 아니라 반론에서 이루어진다.

오답 해설 ①~④ 입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드러내며, 주장의 신뢰성을 위해 근거의 출처를 제시하고, 논증을 구성할 때 필수 쟁점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02**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④, 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좋고 나쁘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③ 사실의 진위를 다루는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 03**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은 맞지만,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매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육류 생산을 위한 축산업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 폐기물과 가축의 분뇨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채식 급식을 법으로 제정한 외국의 사례(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 학교, 프랑스의 모든 학교)를 언급하며 채식 급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된 축산업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심각한 토양 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환경 오염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04** 찬반 양측의 입론에 대해 상대측이 반대 신문을 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오답 해설 ① 한 번씩 입론과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론에 이어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③ 세 명이 한 팀이 아니라, 2대 2로 이루어진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④ 논제의 하위 쟁점을 하나씩 밝히며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입론과 반대 신문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사회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 05** 찬성 측과 달리 반대 측은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 ⑤ 주장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 06**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해 찬성 1이 “4인 가족이 일주일에 하루 만이라도 고기와 치즈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 전국 학교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통해, ㉠에는 ‘일주일에 한 번 채식 급식을 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의 답변을 고려할 때 ‘채식을 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는 질문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며,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서도 벗어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②, ③ 찬성 1의 답변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와 ‘축산업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대 신문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정에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는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며, 찬성 1의 답변을 고려할 때 반대 신문의 내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07 찬성 1은 상대측의 발언을 확인하면서(“먹거리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단순히 말씀하셨는데요.”) 축산업과 농업을 함께 다루어 논증하는데 대해 논리적 허점을 지적(“예로 드신 쌀과 달리 고기는 콩과 같은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이 상대측 주장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찬성 1이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신뢰성을 평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반대 1은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반대 1은 상대측이 제기한 문제가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들어 반박하고 있지 않다.

08 육식으로 인한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문제를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공장식 축사로 인해 동물을 방목해서 키울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육류 수요가 줄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동물 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을 제시하고 있다. ③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되는 닭과 암탉의 비인도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미국에서 도축되는 동물의 수치가 100억 마리가 넘는다고 하여 엄청난 육류 수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9 ①의 논증은 찬성 측의 주장을 드러내는 입론으로, 상대측의 반론을 예상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라며 논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② “미국에서만 육식을 위해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습니다. ~ 암탉들은 창살에 갇혀 짧은 주기로 새끼를 낳다가 도축됩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으나, 근거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④ 미국에서 육식을 위해 도축되는 동물과 공장식 축사에서 길러지는 동물을 근거로,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필수 쟁점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과도한 육류 수요)와 그에 대한 근거(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사)를 제시하고 있다.

10 [B]에서 반대 2는 “하지만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에 어긋난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찬성 측이 쟁점의 원인을 과도한 육류 소비로 본 것과 달리 다른 관점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에서 반대 2는 “먹거리의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하여 찬성 측이 다른 쟁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B]에서 반대 2는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동물 복지 간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④ [C]에서 찬성 2는 반대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긍정적 측면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C]에서 반대 2는 “처음부터 급식에 필요한 육류 모두를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재료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며 찬성 측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1 [E]에서 반대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길러진’ 육류를 소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 동물 복지를 고려한 먹거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D]에서 반대 1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 외에 친환경적으로 생

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기, 자전거 이용하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② [D]에서 반대 1은 “예를 들어 소고기는 사육 환경이나 사육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는 열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라며, 축산 방식을 변화하면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축산 방식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③ [D]에서 찬성 1은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 중금속 등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불러온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E]에서 찬성 2는 “저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라며,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12 “이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를 통해 토론의 마무리를 선언(㉔)하고, “반대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에 주십시오.” 등을 통해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제시된 부분에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거나(㉑), 토론 시 유의할 점을 숙지시키거나(㉒),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정리하는(㉓)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예상 독자는 지역 주민이지만, (가)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의하는 내용의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야간에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이다. ③ (나)의 ㄱ과 ㄴ은 쟁점이 되는 사안의 문제점을, ㄷ은 야간에 실내 체육관 개방 시간을 안내함으로써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④ (다)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야간의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이다. ⑤ (다)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요청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나,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처음 부분에서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②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녹색구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④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주민 모임 누리집에 글을 올려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15 (나)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자료로 수집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정하고 있다. ③ (다)에서 앞부분에 주장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㉔에서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비하여 (나)의 실내 체육 시설 운영 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다)에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예상 독자의 참여를 기대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16 (나)-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수치를 조사하여 보완하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ㄱ이 신문 기사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ㄱ과 관련하여 야간에 공원 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예상 반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의 주장을 보완하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 ④ (나)-ㄴ 중 첫 번째 인터뷰를 활용하여 이미 소용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실외 체육 시설에서 발

생하는 불빛과 소음이 휴식에 방해가 된다는 점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 ⑤ (나)-
ㄷ은 상반된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반론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7** 건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녹색구
청을 대상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공공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에 관한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
으므로, 현안을 분석한 후 쟁점을 파악하여 쟁점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② 야간
에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
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건의문으로 고칠 경우 현안에 대한 예
상 독자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녹색구청이나 기관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정도나 태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없다. ⑤ 현안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문법 익힘북

01 음운 변동 1 교체

본문 232~233쪽

01 ㄷ 02 ㄱ, ㄷ, ㅂ 03 유음화 04 예사소리 05 ㅈ, ㅊ 06 형식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없다 16 비음화, 방법
17 유음화, 역행 18 뒤 19 구개음화 20 비음화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2 유음화 23 실질 24 (1) [바치] (2) 구개음화 25 ② 26 ⑤
27 ⑤ 28 ④ 29 ④

- 07**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가 일어
나도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 08** 유음화는 ‘ㄹ’의 위치에 따라 순행 동화(예 갈날[갈랄])와 역행 동
화(예 신라[실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바
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10**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 (예 절도[절또])
- 12** ‘갈등[갈똥]’, ‘멀시[멀씨]’, ‘발전[발쩍]’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
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ㄷ, ㅌ, ㅊ’을 된소리로 발
음해야 한다.
- 20**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
에 해당한다.
- 21**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압
니]가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ㅁ]
으로 변하여 [압니]가 된다. 따라서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 22** ‘천리[철리],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
어이고, ‘물난리[물랄리]’는 ‘ㄴ’의 ‘ㄴ’ 2개가 앞과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 2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
어나므로, ‘발+일 → 발일[반닐]’과 같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
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24** ‘발이’는 실질 형태소(‘발’)와 형식 형태소(‘이’)가 이어지므로 ‘ㄹ’
앞의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바치]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
난다.
- 25** ‘꽃을’은 받침 ‘ㅈ’이 연음되어 [꼬출]로 발음될 뿐 음운이 교체되
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
(ㅈ → [ㄷ])가 일어난다. ③ ‘꽃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만]이 되었다
가 비음화에 따라 [꼬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 → [ㄴ])가 일어난
다. ④ ‘꽃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받침]이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꼬받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 / ㅂ → [ㅃ])가 일어난다. ⑤
‘꽃꽃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이 [꼬]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가 일어난다. 이후 ‘꽃이’의 받침 ‘ㄷ’이 연음되어 [꼬꼬지]로 발음된다.

26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ㄹ → [ㄱ])와 된소리되기(ㄷ → [ㅌ])가 일어난다.

27 '넙기다'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고[삼:표]'와 같이 'ㅁ'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사동 접미사나 피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넙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더듬대[더듬따]'와 '신기개[산끼개]'는 어간이 각각 'ㅁ'과 'ㄴ'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값도[갑또]'는 앞말의 받침이 'ㅂ(ㅃ)'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닭과[닥꽈]'는 앞말의 받침이 'ㄱ(ㄷ)'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28 '미달이[미다지]'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홀이불[혼니불]'은 형식 형태소('홀-') 뒤에 실질 형태소('이불')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굴하다[구치다]'는 'ㄷ(ㄷ + ㅎ)'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③ '밥술이[밥소치]'와 '발입니다[바칩니다]'는 'ㅌ'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말이[마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9 '생산량[생산량]'은 'ㄹ'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발이[바치]: 구개음화 ② 덮개[덥개 → 덥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겹옷을[견우습 → 거두습]: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 줄넘기[줄럼기 → 줄럼끼]: 유음화, 된소리되기

02 음운 변동 2 - 탈락/첨가/축약

본문 234~235쪽

01 축약, 첨가 02 거센소리되기 03 파생어 04 ㅎ 05 탈락 06 ㄴ 07 ㅌ
08 × 09 × 10 ○ 11 × 12 ○ 13 ○ 14 초성 15 값싸다 16 두
17 - 18 줄어든다 19 축약 20 거센소리되기 21 ㄴ 22 (1) [색년필] → [생년필] (2) 첨가 → 교체 23 (1) [바파고] (2) 거센소리되기(축약) 24 (1) ㉠, ㉡ (2)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06 가랑잎: [가랑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 가랑닙('ㄴ' 첨가 - 첨가)]

08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09 어간의 끝소리 자음 'ㄹ'은 몇몇 어미 앞에서만 탈락한다.

10 서른여덟: [서른녀덧('ㄴ' 첨가) → 서른녀덜(자음군 단순화)]

11 '좋아[조:아]'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다. 또한 '좋고[조:코]'의 'ㅎ'은 뒤에 오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12 급행열차: [그행열차(거센소리되기 - 축약) → 그행녘차('ㄴ' 첨가 - 첨가)]

15 '홀까지[혹까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값싸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싸다]로 발음된다. 반면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자피다]로 발음된다.

16 '홀하고[흐카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홀하고 → 홀하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홀하코 → 흐카고])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17 '고프- + -아서 → 고파서'에서는 'ㄴ' 탈락이 일어난다.

18 '서- + -어서 → 서서'는 'ㄴ'이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19 '넙따랗다'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넙따랗타]로 발음된다.

20 '종지'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1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다.

22 색연필: [색년필('ㄴ' 첨가 - 첨가) → 생년필(비음화 - 교체)]

23 '밥하고'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바파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24 (1) ㉠과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이다. (2) ㉢은 'ㅎ' 탈락이, ㉣은 'ㄴ'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25 '크-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대[실타]'는 자음 축약(ㅎ + ㄷ → [ㅌ])에 해당한다. ② '놀르(노은)'은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울- + -는 → 우는'은 자음(ㄹ)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건너- + -었다 → 건넜다'는 모음(ㅏ) 탈락에 해당한다.

26 '실학'은 표기 그대로 [실학]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목화[모화] ③ 끊기대[끈키다] ④ 밥하다[바파다] ⑤ 빨강다[빨가타]

27 '따르- + -면서 → 따르면서'에서는 'ㄷ'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④ 모으- + -아라 → 모아라 ⑤ 예쁘- + -어서 → 예뻐서

28 '눈요기'의 발음은 [눈뇨기]로, 'ㄴ'이 첨가되었다.

오답 해설 ② 막히면[마키면]: ㄱ + ㅎ → ㅋ - 축약(거센소리되기) ③ 물난리[물랄리]: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 ㄹ - 교체(유음화) ④ 벗어나[벗나무] → 변나무: ㅈ → ㄷ -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 + ㄴ → ㄴ + ㄴ - 교체(비음화) ⑤ 싫어서[너어서]: 탈락('ㅎ' 탈락)

29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조:아요]'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좁히다[조피다]', '그렇죠[그려쵸]', '하얏다[하야타]'는 'ㅎ'과 'ㅂ', 'ㅈ', 'ㄷ'이 만나 각각 [ㅍ], [ㅊ],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일어난다. ② '놓는다[논는다 → 논는다]'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비음화에 의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30 '입학[이팍]'에서는 거센소리되기 일어난다. '축하[추카]'에서도 거센소리되기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설날[설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④ '국수[국쑤]', '역전[역쩨]'에서는 된소리되기 일어난다. ⑤ '여덟[여덜]'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31 '읽- + -어서 → 읽어서[이러서]'는 'ㅎ'이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놀고[노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②, ④ '술하다[술하다 → 수타다]'와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달리는[다티는 → 다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3 문장 표현 1 - 높임 표현

본문 236~237쪽

01 주체 02 부사어 03 상대 04 드릴(드리다) 05 뵈고 06 상대 07 ○
08 × 09 ○ 10 ○ 11 × 12 ○ 13 선어말 어미 14 께 15 주체 16 어
머니 17 상대 18 계시면 → 있으시면 19 ㉠: 아버지, ㉡: 께, 드리다, ㉢: -
어요 20 ㉠: ㉡, ㉢: ㉣ 21 물어봐 → 여쭙봐 22 ㉡ 23 ㉢ 24 ㉣ 25 ㉤
26 ㉥

08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11 '드리다', '모시다'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6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는 '-ㅂ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7 '동생이 밥을 먹습니다.'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18 '궁금한 점'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보기>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서', '-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고, '어머니'에 대한 높임은 종결 표현 '-어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0 ㉠: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고('께서', '-시-')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 ㉣는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께', '드리다')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는 상대를 높여('-어요') 표현하였다.

21 선유의 마지막 말 중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물어보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쭙보다'를 사용해야 한다.

22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 ㉣, ㉤ '께서'와 '-사-'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23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서'와 '덕',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눈높이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께서'와 '-사-'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24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5 ㉤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㉔~㉖: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㉔: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26 '잡수시다'는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㉔)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㉖)이다.

오답 해설 ① 높여야 할 인물(그분)과 관련된 것(성함)을 높이는 명사(㉖)가 사용되었다. ②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여쭙다)가 사용되었으며,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맥)을 높이는 명사(㉖)가 사용되었다. ④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특수 어휘(모시다)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㉔)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04 문장 표현 2 - 시간 표현

본문 238~239쪽

- 01 발화시 02 형용사 03 -겠- 04 과거 05 추측 06 진행상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발화시, 사건시 14 앞서 있는, 나중
인 15 동사 16 진행상 17 회상 18 완료상 19 알맞는 → 알맞은 20 ㉔
21 ㉔ 22 ㉔, ㉕ 23 ㉔ 24 ㉕ 25 ㉔ 26 ㉔ 27 ㉔

- 08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11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에서 '들은'은 동사 어간 '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과거를 나타낸 것이다.

- 12 '그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 19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

- 20 ㉔에 사용된 '-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감기에 걸림.)의 결과 상태(목이 잠겨 있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아직도')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㉔, ㉕: '소풍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았-'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㉖: '-았-'은 과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에 해당한다.

- 21 ㉔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㉔~㉖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 22 ㉔의 '먹어 간다', ㉕의 '사용하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㉔의 '가 있다'와 ㉕의 '써 버렸다'에는 완료상이 드러난다.

- 23 '-더-'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리-'는 미래를 나타낸다. ④ '-ㄹ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⑤ '-었었-'은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 24 '빠른'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형용사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어간 '쓰-'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붙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형용사 어간 '귀엽-'에 관형사형 어미 '-더-'를 붙여 과거 시제(회상)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 어간 '조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동사 어간 '바치-'에 선어말 어미 '-리-'를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25 '익어 간다'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곡식이 익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오답 해설 ①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이미 소문이 퍼졌음을 나타낸 완료상이다. ②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발레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눈발이 날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⑤ '-어 있다'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건이 완결되어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완료상이다.

- 26 ㉔의 '산'은 동사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㉔의 '-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② ㉔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

시에 앞선다. ④ ㉔의 ‘-어 버리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다. ⑤ ㉔은 동사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27 ㉔는 벡타이를 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벡타이를 댄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붙여, 형이 과거에 양치질을 하는 동작을 진행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③ ‘-고 있-’을 통해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안경을 벗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고 있-’을 통해 그가 연말에 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기부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고 있-’을 통해 누나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5 문장 표현 ③ - 피동 표현/인용 표현

본문 240~241쪽

01 피동문 02 부사어 03 목적어 04 -되다 05 따옴표 06 간접 07 ×
08 × 09 ○ 10 × 11 ○ 12 ○ 13 강조하기 14 라고 15 간접
16 -하- 17 어제는 18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19 소녀는 나에게 내가 정말 친절하다고 하였다. 20 ㉔, ㉕ 21 ㉔ 22 ㉔ 23 ㉔ 24 ㉔ 25 ㉔
26 ㉔ 27 ㉔

07 ‘-우-, -구-, -추-’는 사동 접미사이다.

08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10 ‘달렸다’는 ‘달이- + -었- + -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접미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18 능동문의 목적어(‘친구들’)를 피동문의 주어(‘친구가’)로 바꾸고, 능동문의 주어(‘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벌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하여 서술어를 ‘쏘였다’로 만든다.

19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에서 ‘당신은’을 ‘내가’로 바꾸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20 ㉔: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㉔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인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㉕: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서술어를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1 ‘나누어집니다’는 ‘나누-’에 ‘-어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달려졌는지’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달렸는지’나 ‘달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썽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22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당기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② ‘감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로, ‘감기다’는 사동 표현이다. ③ ‘놀리다’는 ‘짓궂게 굴거나 흥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놀리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⑤ ‘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숙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23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한다. ③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은 조사 '고'이다. ④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 24 ①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곧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가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⑤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 25 '들다'는 '들리다(들- + -리- + -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취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② '풀이 사람들에게 의해 뽑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닫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⑤ '탁자 위에 있는 유리병이 그에게 깨졌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26 ㉠을 ㉡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제가'가 생략된다. ㉠의 목적어는 ㉡에서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③ '깨- + -었- + -어오'에 '-어자-'가 결합하여 '깨- + -어자- + -었- + -어오'라는 피동 표현이 된다. ④ ㉠은 주어를 통해 화분을 깬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 27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체인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에는 '남기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6 국어사 _ 고대 국어/중세 국어/근대 국어

본문 242~243쪽

01 한자 02 ㅁ 03 방점 04 -음 05 가 06 모음 조화 07 × 08 ○
09 × 10 ○ 11 × 12 ○ 13 거센소리 14 선어말 어미 15 × 16 이어
적기 17 근대 국어 18 -기 19 모음 조화 20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
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21 ①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⑤

- 07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이다.

- 09 중세 국어 시기에 쓰인 '-이-/-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줍-/-습-'이 있다.

- 11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 19 현대 국어의 '서로'를 중세 국어에서 '서르'로 표기한 것은, '서'의 'ㄴ'이 음성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모음 역시 음성 모음인 'ㅡ'를 넣어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 20 중세 국어에서는 '말쌈', '노미', '쁘들'처럼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 '사람이', '뜻을'처럼 끊어 적기를 한다.

- 21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부터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ㅁ, ㅁ, ㅁ' 등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방점이 있었다. ⑤ '부메'처럼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 22 된소리 계열이 나타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 23 '쁘- + -음 + 에 → ㅁ메'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몸'과 '일흔'의 'ㄴ', '하늘'의 'ㄴ'이라는 양성 모음에 '을'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⑤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비릇-'에 '-음'이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 24 ㉠은 이어 적기가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 25 'ㅁ'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는 'ㅁㅁㅁㅁ'이다.

오답 해설 ② 'ㅁ'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③, ④ 각자 병서

- 26 '깃슨'은 '깃 + 은'으로, 거듭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깁- + -은'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③ '심 +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부름 + 애크'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⑤ '바를 + 애크'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 27 '문줍고'는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즉, '문줍고'는 현대 국어처럼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한 현대 국어('호도ㅁ')와 달리 중세 국어('호도ㅁ')에서는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하였다. ② '쁘다'에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ㅁ')이 사용되었다. ③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 현대 국어('성손을')와 달리 중세 국어('聖孫(성손)을')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였다. ④ 주체 높임 전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내셨습니다’)와 중세 국어(‘내시니이다’)에서 모두 ‘-시-’가 사용되었다.

07 한글 맞춤법

본문 244~245쪽

01 한글 02 의사소통 03 표준어, 어법 04 원형 05 조사 06 일찍이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책이요 16 하곳
길 17 주십시오 18 학생으로서 19 널따란 20 백분율 21 시들은 → 시든
22 ㉠: 꽃이, ㉡: 꽃에 23 조사 24 ㉠ 25 ㉠ 26 ㉠ 27 ㉠ 28 ㉠ 29 ㉠

- 07 제5항 ‘다만’(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깎뚜기 → 깎두기’로 고쳐야 한다.
- 08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이므로, ‘맞추면 →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 10 ‘들릴’은 용언,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 13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에 따라 ‘내밀은 → 내민’으로 고쳐야 한다.
- 15 제15항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에 따르면 ‘책이요’가 맞는 표기이다.
- 16 제30항 ‘2’(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따르면 ‘하곳길’이 맞는 표기이다.
- 17 제15항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따르면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이다.
- 18 제57항(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 따라 ‘로써’와 ‘로써’를 구분해 적는다.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생으로서’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19 제21항 ‘2’의 ‘다만’(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중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르면 ‘널따란’이 맞는 표기이다.
- 20 제11항 [붙임 1]의 ‘다만’(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울’로 적는다.)에 따르면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 21 ‘시들은’은 어간(‘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결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붙인 것으로, 잘못된 표기이다.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에 따라 ‘시든’으로 적어야 한다.
-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꼬치]와 [꼬체]는 연음된 발음이므로, 본래의 형태는 각각 ‘꽃이’와 ‘꽃에’가 되어야 한다.
- 24 ‘안사람’은 [안싸람]으로 소리 나지만 ‘안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에 해당한다.

- 25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달혔다’는 ‘달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③ ‘귀걸이’는 ‘귀’에 ‘걸’이 붙어 ‘귀’를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표준어이다. ⑤ ‘절이다’는 ‘절다’의 자동사로,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간이나 들거나 숨이 죽도록 조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 26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④ ‘빛’은 [빔], ‘웃’은 [음], ‘잎’은 [입], ‘바깥’은 [바깼]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 27 ‘젓가락’은 ‘저’([㉠])와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반면 ‘술가락’은 ‘술’([㉡])과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다.

- 28 ‘놀리다, 발굴, 검정, 아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며, ‘먹는다[명는다], 북극점[북극점], 밝는다[밝:는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 29 ‘무덤’의 어원은 ‘묻- + -엄’인데, ‘묻-’은 명사가 아니라 용언 어간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고랑’의 어원은 ‘골(명사) + -양’이다. ③ ‘이파리’의 어원은 ‘잎(명사) + -아리’이다. ④ ‘바가지’의 어원은 ‘박(명사) + -아지’이다. ⑤ ‘지푸라기’의 어원은 ‘짚(명사) + -으라기’이다.

08 어휘 _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사고 도구어

본문 246~247쪽

- 01 고유어 02 개념 03 고유어 04 외래어 05 전문어 06 ○ 07 × 08 ○ 09 ○ 10 ○ 11 × 12 고유어 13 외래어 14 사고 도구어 15 마음 16 외래어, 외국어 17 산소, 우주 18 (1) 구름, 빨강 (2) 간식, 책 (3) 로켓, 망토 19 외래어, 외국어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④

- 07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이다.

- 11 ‘버스’는 외래어이고 ‘레스토랑’은 외국어이다.

- 17 ‘꽃, 흙, 하늘, 아기’는 고유어, ‘산소(酸素), 우주(宇宙)’는 한자어이다.

- 18 ‘구름, 빨강’은 고유어, ‘간식(間食), 책(冊)’은 한자어, ‘로켓(rocket), 망토(manteau)’는 외래어이다.

- 19 ‘피아노(piano)’는 대체할 어휘가 없으므로 외래어이지만, ‘게스트(guest)’는 ‘손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외국어이다.

- 20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②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 21 ‘노랗다, 누렇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는 미각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고유어에 감각어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것은 맞지만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③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말이 지닌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은 많으나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22 ‘고치다’라는 고유어가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 등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것은 그만큼 고유어의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의 의미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에 비해 다의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비해 동음이의어가 많거나, 반의 관계가 뚜렷하거나, 상위어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23 <보기>의 의사 1과 의사 2는 ‘심계 항진’, ‘안구 진탕’, ‘연하 곤란’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어는 세대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유행어이다.

- 24 <보기>의 밑줄 친 ‘분류’, ‘구분’은 사고 도구어로, 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③ ‘분류(分類)’와 ‘구분(區分)’은 한자로 된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분류’와 ‘구분’은 ‘나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품사 ① _ 체언/용언

본문 248~249쪽

01 보어 02 인칭 03 순서 04 서술어, 활용 05 성질 06 보조 용언 07 ×
08 ○ 09 × 10 × 11 ○ 12 ○ 13 명사, 대명사 14 명사 15 동사
16 들어온 17 형용사, 동사 18 보조 용언 19 수, 일 20 (1) 데 (2) 그, 여기
(3) 일하는 (4) 멀다 21 허름하다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① 29 ③

- 07 '그를 잊을 리 없다.'에서 '리'는 의존 명사이다.
- 09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매우 뛰어나다.'에서 수사는 '셋'뿐이다.
'한'은 수 관형사이다.
- 10 '다르듯'과 '그리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19 우리(대명사)가(조사) 할(동사) 수(명사 - 의존 명사) 없는(형용사)
일(명사)도(조사) 있다(형용사).
- 20 그(대명사)가(조사) 일하는(동사) 데(명사 - 의존 명사)는(조사)
여기(대명사)서(조사) 멀다(형용사).
- 21 나(대명사)는(조사) 허름한(형용사) 책방(명사)에서(조사) 곱팡이
(명사) 쓴(동사) 헌책(명사)을(조사) 뒤적이며(동사) 학창(명사)
시절(명사)을(조사) 보냈다(동사). → 형용사는 '허름하다' 하나
뿐이다.
- 22 우리(대명사)는(조사) 시골(명사) 할머니(명사) 맥(명사)에서(조
사) 즐겁게(형용사) 하루(명사)를(조사) 보냈다(동사). → 수사는
들어 있지 않다.
- 23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저녁'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나위'는 의존 명사이다. ③ '여기'는 대명사이다. ④ '그것'은 대명사
이다. ⑤ '한두째'는 수사이다.
- 24 '마주치다'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④ '파랗다', '비슷하다', '뛰어나다', '높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25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잘못'은 명사이다. ③ '열'은 수사이다. ④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
다. ⑤ '무엇'은 대명사이다.
- 26 '되고 싶었다'의 '싶다'는 소망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②의 '인사하다', ③의 '가다', ⑤의 '오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었다.
- 27 '쌓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③의 '채하다', ④의 '덧시다', ⑤의 '보다'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 28 옛날(명사) 사진(명사)을(조사) 보니(동사) 기뻐던(형용사) 기억
(명사) 하나(수사)가(조사) 떠올랐다(동사). → '옛날'은 명사이다.
- 29 <보기>의 ㉠은 의존 명사이다. ㉢의 '때'는 자립 명사로, '때가 되
었다.'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의 '터', ②의 '지', ④의 '만큼', ⑤의 '바'는 모두 의존 명사로,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10 품사 ② _ 관계언/수식언/독립언

본문 250~251쪽

01 가 02 서술 03 명사 04 부사 05 못 06 아이고 07 × 08 ○ 09 ×
10 ○ 11 ○ 12 × 13 보조사 14 보격 조사 15 관형사, 부사 16 관형사
17 오늘 18 감탄사 19 의, 은, 이다 20 (1) 가 (2) 을 (3) 에 21 보격 조사
22 ㉠: 수사, ㉡: 관형사, ㉢: 명사 23 ㉠, ㉡ 24 ㉠: 명사, ㉡: 부사 25 ㉠:
감탄사, ㉡: 관형사 26 (1) ㉡, ㉢ (2) ㉠, ㉢ 27 ㉤ 28 ㉡ 29 ㉡ 30 ㉡

- 07 같은 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사는 다른 조사 뒤에도 붙
을 수 있다.
- 09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 12 '민수야'는 '명사 + 호격 조사' 형태의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는
아니다.
-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 '은'은 보조
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 20 '아이가'의 '가'는 주격 조사, '의자에'의 '에'는 부사격 조사, '책
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 21 '되다', '아니다'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에 붙은 '이/가'를 제외하고
다른 체언에 붙은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 22 ㉠은 자식이 세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수사이다. 그리
고 ㉡은 뒤에 오는 체언 '살'(의존 명사)을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
이다. ㉢은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가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맏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 23 ㉠은 뒤에 오는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은 뒤에 오는 '사
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둘 다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은 '일처리'를 수식하지만, '빠르고', '빠르니'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
사이다.
- 24 ㉠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이
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용언 '먹어서'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25 ㉠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로, 감탄사이다. 그리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뒤
에 오는 체언 '상황'을 수식한다.
- 26 '이'(㉠)는 체언 '사과'를, '그'(㉡)는 체언 '연필'을 수식하는 관형
사이다. 또한 '이리'(㉢)는 용언 '오다'를, '그리'(㉣)는 용언 '보내
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27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②~④ '에',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28 '과연'은 부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첫', ②의 '무슨', ③의 '아무', ⑤의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
식하는 관형사이다.

29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모름지기', ③의 '일찍이', ④의 '같이', ⑤의 '실랑실랑'은 모두 부사이다.

30 ㉠과 ㉡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명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다. ㉡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1 문장 성분 -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본문 252~253쪽

01 보어 02 점수를 03 이상한, 마들로 04 물정에 05 독립어 06 ○ 07 ×
08 ○ 09 ○ 10 × 11 주어 12 예쁘다 13 정보의 14 공원에서 15 부
사어 16 나는, 동창생을, 만났다 17 보니, 우울하다 18 ㉠: 주어, ㉡: 부사
어, ㉢: 목적어, ㉣: 서술어 19 관형어 20 ㉠ 21 ㉡ 22 ㉢ 23 ㉡ 24 ㉢
25 ㉢ 26 ㉡

07 주어는 '그는'이고, '귀감이'는 보어이다.

10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헌'을 수식한다.

16 '나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에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동창생들', 서술어는 '만났다'로, 이들이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제', '길에서', '우연히'는 부사어, '초등학교'는 관형어이다.

17 '어두운 하늘을 보다.(보니) + 괜히 기분마저 우울하다.'의 형태이므로, 서술어는 '보니'와 '우울하다'의 2개이다.

18 '어머니께서는'는 주어, '형에게는'는 필수적 부사어, '용돈을'은 목적어, '주셨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19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어이다.

20 그들은(주어) 어린(관형어) 소년에게(필수적 부사어) 중요한(관형어) 임무를(목적어) 맡겼다(서술어). →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에서 주어는 '고래는'이고, '어류가'는 보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너만'과 '나도'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④ '아버지께서는'는 '체언 + 주격 조사'의 높임말(께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⑤ '학교에서'는 '체언 + 주어가 단제일 때 쓰이는 주격 조사(에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22 '동생도 이제 나만큼 컸다.'에서 '나만큼'은 부사어이다.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주소나'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마시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② '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로, '들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아구는'은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④ '밥만이라도'는 '체언 + 보조사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먹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23 '연신'은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④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24 '친구마저'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으로'는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② '조용히'는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④ '그래서'는 접속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⑤ '어지럽게'는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25 ㉠야호(독립어 - 독립 성분)! ㉡우리가(주어 - 주성분) ㉢드디어(부사어 - 부속 성분) ㉣힘든(관형어 - 부속 성분) ㉤관문을(목적어 - 주성분) ㉥통과했어(서술어 - 주성분). →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 ㉡, ㉢이고,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인 ㉣, ㉤이며, 독립 성분은 독립어인 ㉥이다.

26 ‘아’는 독립어(감탄사)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세월’의는 관형어, ‘이토록’은 부사어, ‘빠른’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은 모두 3개이다.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고,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므로 둘 다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인가!’). ④ ㉠은 뒤에 오는 체언 ‘흐름’을, ㉡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수식하고 있다. ⑤ ㉠은 체언 ‘세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은 체언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형(‘인가’)으로 결합되어 있다.





